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鄭在永*

1. 序言

釋讀口訣 자료인 『合部金光明經』 卷第三은[1] 南權熙(1994)에 의해 소개된 자료이다. 이 책은 卷子本으로 전체가 15장이다.[2] 석독구결 자료인 『合部金光明經』 卷第三은 제1장이 落張이고 2장부터 11장까지는 상단 부분이 부식되었다. 이 중 제2장부터 6장까지는 본문의 일부까지도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동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 釋讀口訣 자료인 『合部金光明經』 卷第三을 본고에서는 편의상 『金光明經』으로 부르기도 할 것이다. 약호는 『金光』으로 한다.

2) 이 책의 서지 사항에 대해서는 남권희(1994, 1997)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다. 남권희(1994, 1997)에 기대어 이 책의 서지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幅은 33.2㎝이고, 匡高는 24.5㎝이며 匡幅 57.6㎝에서 58㎝ 정도이다. 四周單邊으로 25行 17字본이며 小字雙行이다. 서체는 구양순체 계통이다. 지질은 고려 시대의 두꺼운 楮紙이다. 이 자료에는 부분적으로 刻手名이 보이는데 4장 存直, 5장 立省, 6장 正, 7장 正安, 8·9장 昌, 13장 孝兼 등이 그것이다. 第一張이 없어 권수제를 확인할 수는 없다. 권말제가 『金光明經』 卷第三이다.

부식되어 본문 내용의 일부와 그곳에 기입된 吐도 알 수 없다. 7장부터 11장까지도 상단 부분이 손상되긴 하였지만 본문 내용은 대체로 알아볼 수 있다.

본고는 『金光明經』 구결문의 문자 체계와 표기법을 정리하고 그 독법을 밝혀 15세기의 정음 표기 즉, 한글로 轉寫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金光明經』에 사용된 구결자들의 문자 체계를 다른 석독구결 자료들의 구결자들과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에 사용된 몇몇 특징적인 구결자와 『金光明經』에 보이는 특이하고 중요한 구결 吐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金光明經』 구결문 전체를 15세기 국어 표기로 轉寫한다. 어휘와 문법 형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띄어쓰도록 한다. 특히 교정되었거나 잘못 기입된 토에 대해서는 註釋을 달도록 한다.

2. 『合部金光明經』 釋讀口訣의 表記法

2.1. 『合部金光明經』 卷第三은 제1장이 落張이고 제2장부터 제15장까지 남아 있는데 제2장과 14장, 15장 등은 다른 필체로 구결이 기입되어 있다.[3] 즉 이 자료에 토를 기입한 사람이 적어도 두 사람 이상임을 알 수 있다.

『金光明經』 구결문에 기입된 口訣字의 文字 體系를 다른 釋讀口訣

3) 남권희(1997)는 이런 현상에 주목하여 제2장과 제14·15장 등은 이 자료를 인출한 직후에 기입된 구결로, 나머지 부분에 기입된 구결은 『유가사지론』에 토를 기입한 사람이 어떤 자료를 母本으로 하여 그대로 傳寫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金光明經』과 『유가사지론』이 같은 불복장에서 함께 나왔을 것이라는 사실과 토를 기입한 필체가 서로 유사하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실제로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 비해 『金光明經』과 『瑜伽師地論』의 석독구결이 유사한 점이 많다.

자료의 문자 체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舊譯	華疏	華嚴	金光	瑜伽	原字推定
(1) ㄱ/기	ㅅ	ㅅ	ㅅ	ㅅ	ㅅ	只
(2) 거	厶	厶	厶	厶	厶	去
(3) 겨	𠂇	𠂇	𠂇	𠂇	𠂇	在
(4) 고	ㅁ	ㅁ	ㅁ	ㅁ	ㅁ	古
(5) 과	人	人	人	人	人	果
(6) 곰	ホ	ホ	ホ	ホ[4]	ホ	
(7) 곧	遖		遖			這
(8) ㄴ/온	冂	冂	冂	冂	冂	隱
(9) 나	乃	乃	乃	乃	乃	那
(10) 노	乂	乂	乂	乂		奴
(11) 누	卜	卜	卜	卜	卜	臥
(12) 니		ヒ	ヒ		ヒ	尼
(13) 닉	ヒ	ヒ	ヒ	ヒ	ヒ	飛
(14) 놀			斤		斤	斤
(15) 다	丨	丨	丨	丨	丨	如,多?
(16) 뎌	丁	丁	丁	丁	丁	丁
(17) 뎌	彳	彳	彳	彳		彼
(18) 뎨	岁					第
(19) 도	刀	刀	刀	刀	刀	刀
(20) 두	斗	斗	斗	斗	斗	斗
(21) 디	矢	矢	矢	矢	矢	知

4) 『金光明經』이나 『瑜伽師地論』에는 실제로 결자 'ホ'은 부분에 따라 자형이 'ホ'처럼 쓴 것도 있으나 이 두 자형은 토를 기입한 개인 필체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ホ' 字 와 'ホ' 字는 구결자의 문자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형에 따른 의미가 없으므로 'ホ' 字 하나로 자형을 통일하도록 한다.

(22)	ᄃᆞ	の	入	の/入	入	入
(23)	돌	冬	冬	冬	冬	冬
(24)	ᄃᆡ	ム	ム	ム	ム	矣
				矣		矣
(25)	-을	し	し	し	し	乙
(26)	-읋	尸	尸	尸	尸	力?
(27)	라	罒	罒	罒	罒	羅
(28)	로	罒	罒	罒	罒	以
(29)	리	令	令	令	令	令?
(30)	리		禾			利
		禾		禾	禾	利
(31)	려					呂
(32)	ㅁ/음	立	立	立	立	音
					立	音
(33)	마	𠂉	𠂉	𠂉	𠂉	𠂉
(34)	며	分	分	分	分	彌
(35)	모	毛				毛
(36)	믈?		勿			勿
(37)	ㅂ/읍		邑			邑
(38)	ㅂ/브	火	火	火	火	火
(39)	ㅅ	七	七	七	七	叱
(40)	사	氵	氵	氵	氵	沙
(41)	삼		三			三
(42)	셔		立	立		立
(43)	시		𠃌	𠃌		賜
(44)	시	亠		亠	亠	示
(45)	숣	白	白	白	白	白
(46)	아	氵	氵	氵	氵	良
(47)	야	乚				也

(48)	여	ᄉ	ᄉ	ᄉ/ㅗ	ㅗ	ㅗ	亦
(49)			ᄒᆞ				與
(50)	예	ᄋᆡ	ᄋᆡ	ᄋᆡ	ᄋᆡ	ᄋᆡ	
(51)	오	ᄒᆞ		ᄒᆞ			乎
(52)	오(호)	ᄒᆞ	ᄒᆞ	ᄒᆞ	(ᄒᆞ)	ᄒᆞ	乎
(53)	오		五				五
(54)	우(리)		又				
(55)	우(리)	千			千		
(56)	의	ᄋᆞ	ᄋᆞ	ᄋᆞ	ᄋᆞ	ᄋᆞ	衣
(57)	이	ᄂᆡ	ᄂᆡ	ᄂᆡ	ᄂᆡ	ᄂᆡ	是
(58)	져	ᄌᆡ	ᄌᆡ	ᄌᆡ	ᄌᆡ	ᄌᆡ	齊
(59)	하	下	下	下	下	下	下
(60)	호(오)	ᄂᆞ	ᄂᆞ	ᄂᆞ	ᄂᆞ	ᄂᆞ	乎
(61)	히	ᄒᆡ	ᄒᆡ	ᄒᆡ	ᄒᆡ	ᄒᆡ	兮
(62)	ᄒᆞ	ᄉᆞ	ᄉᆞ	ᄉᆞ	ᄉᆞ	ᄉᆞ	爲
(63)	히(ᄒᆞ이)		ᄉᆞ	ᄉᆞ	ᄉᆞ/ᄉᆞ	ᄉᆞ	令
(64)	긔	十	十	十	十	十	中
(65)			ᄃᆡ	ᄃᆡ			止
(66)					民	民	
(67)			支	支	支	支	
(68)		子	子			子	
(69)					一	一	
(70)			ᄉᆞᆫ				
(71)		巴					
(72)			甲				甲
(73)	ᄀᆞᆮ(ᄀᆞᆺ)			印			印
(74)	짓			造			造
(75)	일					成	成

『金光明經』에서 사용한 구결자는 제2장의 첫 부분에 단 한 번 사용된 'ᄫ' 字를 포함하면 52字이다. 그리고 역독점(丶)을 사용하고 있다. 역독점을 생략한 경우도 많다.

구결자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아직도 몇몇 구결자에 대해서는 그 原字와 音價 그리고 기능 등을 밝히지 못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구결자들에 대해서는 그 原字와 音價 및 구결자의 기능 등을 밝혀 왔다. 앞에 제시된 석독구결에 사용된 구결 문자표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표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는 『金光明經』에 사용된 구결자 중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몇몇 특징적인 구결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 자료의 제15장에서만 네 번 사용된 'ㅁ' 字부터 먼저 검토해 보자. 다음 예문 (1)이 'ㅁ' 字가 쓰인 문장이다. 구결자 'ㅁ'가 석독구결 자료 중에서는 『金光明經』의 제15장에서만 나타나지만, 鄕歌와 고려 시대 음독구결 자료인 박동섭본 『楞嚴經』에도[5] '呂' 字가 사용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ㄱ. 我ᄒᆞ 等ㅅㄱㄱ 皆 當ㅅ 盡ㅌㅣ 心ᄆᆞᆷ 供養ㅅ白ᄀᆞ 諸聽衆ㄷᆞᆷ ㄱᆞ 安隱快樂ㅅ[令]ㅣㅁㅌㅣㄴㅔᄒᆞᆫᄀᆞ <金光 15:7>

ㄴ. 是 所ㅣㄱ 國土ㅣᄒᆞ十ㄱ 諸怨賊ㅅ 恐怖ㄴᆞᄉᆞㅌㅣ[之]難ㅅ ㄴᆞᄑᆞㄹ 無ㅣㅅᄒᆞ 飢饉ㅌㅣ 畏ㄴᆞᄑᆞㅅㄹ 無ㅣㅅᄒᆞ 非人ㅌㅣ 畏ㄴᆞᄑᆞㅅㄹ 無ㅣㅅᄒᆞ 人民興盛ㅅᄒᆞᄉᆞㅣㅁㅌㅣㄴㅔᄒᆞᆫᄀᆞ <金光 15:8-9>

ㄷ. 我ᄒᆞ 等ㅅㄱㄱ 爲ㄴ 救護ㅅᄒᆞ 利益ㅅᄒᆞ ㄴᆞᄑᆞㅅㄹ 作ㅅᄒᆞ 一切障礙ㄹ 消除ᄉᆞㅣᄀᆞ 其 須ㅌㅣ ㄴᆞᄑᆞ 所ㄹ 隨ㄴ 意ㄹ 如ㅅ 供給ㅅᄒᆞᄉᆞ 悉 具足ㅅ[令]ㅣㅁㅌㅣㄴㅎㅌㅣ <金光 15:13-14>

ㄹ. 是 說法處ㄹ火 一切諸天ㅅ 人ㅅ 非人ㅅ 等ㅅㄱㅣㅅ 及 諸衆生ㅅㄴᆞᄑᆞㄹ 得ᄒᆞᄉᆞ 上ㄹ 從ㅌ 而ᄆᆞ 過ㅅᄒᆞ 說法ㅌ之處ㄹ 汗漫ᄉᆞㅣᄑᆞ 不多ㅅ呂ㅌㅣㄴㅎㅌㅣ <金光 15:9-10>

5) 박동섭본 『楞嚴經』은 안동본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현재는 남풍현 교수의 소장본이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남풍현(1995)에서 검토된 바 있다.

백두현(1997b)은 예문 (1)에 사용된 'ㅁ' 字를 'ㅁ' 字 한 글자로 파악하지 않고 '-ㅁ+ㅁㅌ'의 '-ㅁ+ㅁ-'로 파악한 바 있다.[6] 필자가 예문 (1)에 보이는 'ᄉᆞ[令]ㅐㅁㅌ'이나 'ᄉᆞㅁㅌ'를 각각 '히렷(다)'나 'ᄒᆞ렷(다)'로 파악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鄕歌와 안동본 『楞嚴經』에서도 口訣字 'ㅁ'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ᄉᆞㅁᄀᆞ'(ᄒᆞ려며, ᄒᆞ리어며) <3:7>, 'ᄉᆞㅁᄇᆡ' <3:7>, 'ᄉᆞㅁㅌㅅㅗ' <3:7>, 'ᄉᆞㅁᄇᆡㅌㅅㅗ' <3:13> 'ᄉᆞㅁᄠᆡ' <3:7>, 'ᄉᆞㅁㅌᆡ' <3:7>, 'ᄉᆞㅁᄐ' <3:8> 등이 안동본 『楞嚴經』의 卷3에 집중적으로 보이는바, 이 자료에서는 'ㅁ'(려) 字가 '-리어-'를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ᄉᆞㅁᄠᆡ'와 'ᄉᆞㅁㅌᆡ'는 바로 『金光明經』에 보이는 'ᄉᆞ[令]ㅐㅁㅌ(ㅣ)'이나 'ᄉᆞㅁㅌ'과 같은 것이다. 전자는 'ᄉᆞ-' 사동사 'ᄉᆞ[令]ㅐ-'에 '-ㅁㅌ(ㅣ)'가 통합한 것이다. 字形도 『金光明經』의 제15장에 보이는 'ㅁ' 字와 같은 모양이다. 그리고 균여의 향가에도 '呂' 字가 8回나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7]

둘째, 예문 (1)이 나타나는 이 부분은 陁羅尼最淨地品에 대한 부처의 설법을 다 듣고 난 뒤 大會에 모인 중생들이 이 『金光明經』을 잘 들어 그 말씀을 받아 지니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다. 예문 (1ㄱ)의 '安隱快樂

---

6) 백두현(1997b:127)은 이 자형을 'ㅁ'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리'를 표기한 구결자 'ㅔ'가 있는데 다시 'ㅁ'(리) 字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ᄉᆞ[令]ㅐㅁㅌㄴㅔᄀᆞ'에 있는 'ㄴㅔᄀᆞ' 속에 '-ㅔ-'가 존재하여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앞에 다시 의지를 표현하는 '-ㅁ-'(-리-)가 쓰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ㅁ'가 석독구결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은 글자라는 점 등을 들어 'ㅁ' 자로 파악하는 것을 버리고 '-ㅁ+ㅁㅌ'의 '-ㅁ+ㅁ-'로 파악한 바 있다. 백두현(1997b)은 '-ㅁ+ㅁㅌ-'의 '-ㅁ-'를 선어말어미로 '-ㅁㅌ'을 '-ㅈㅌ' 또는 '-ㅋㅌ'과 기능상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여 '-ㅁㅌ'을 어말어미의 일종으로 "문장의 文勢를 강화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7) 향가에 사용된 '呂' 字에 용법과 기능에 대해서는 졸고(1995a)를 참조할 수 있다.

ᄂᆞᆷ[令]ㅣㅁᆞᆫᄃᆞᆫᄒᆞ'(히렷(다) 호리며)와 예문 (1ㄴ)의 '人民興盛ᄂᆞᆷᄌᆞㅣㅁᆞᆫᄃᆞᆫᄒᆞ'(ᄒᆞ져 히렷(다) 호리며), 예문 (1ㄷ)의 '具足ᄂᆞᆷ[令]ㅣㅁᆞᆫᄃᆞᆫᄒᆞᄒᆞᆫᄃᆡ'(히렷(다) 흠다), 예문 (1ㄹ)의 '不多ᄂᆞᆷᄃᆞᆫᄃᆞᆫᄒᆞᄒᆞᆫᄃᆡ'(안돌 ᄒᆞ렷(다) 흠다) 등에 보이는 'ᄂᆞᆷ[令]ㅣㅁᆞᆫᄃᆞ'이나 'ᄂᆞᆷᄃᆞᆫᄃᆞ'은 각각 평서법 문장종결어미 '-ㅣ'가 생략된 표기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ᄒᆞ-'와 '히-'에 통합되어 있는 'ㅁ'는 '려'로 이것은 '-리-'와 '-어-'가 통합한 어형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예문 (1)에 보이는 '-ㅁᆞᆫᄃᆞ ᄂᆞ-'의 '-ᄃᆞ-'은 선어말어미 '-거/어-'에 통합한 감탄 또는 강조의 선어말어미 '-ᄃᆞ-'(-ㅅ-)이다. 선어말어미 '-거-'나 선어말어미 '-고-'와 감탄의 선어말어미 '-ㅅ-'이 통합한 것들이 석독구결에서는 많이 쓰인다. 『金光明經』에 보이는 '-ㅣᄃᆞ-', '-ㅋᄃᆞ-'이나 '-ㅁᆞᆫᄃᆞ-' 등이 그것이다. 예문 (1)에 사용된 '-ㅁᆞᆫᄃᆞ-'을 선어말어미 '-ㅁ-'(-고-)에 다시 '-ㅁᆞᆫᄃᆞ-'이 통합한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ㅁᆞᆫᄃᆞ-'은 선어말어미 '-ㅁ-'에 감탄법 선어말어미 '-ᄃᆞ-'이 통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문 (1)의 '-ㅁᆞᆫᄃᆞ ᄂᆞ-'(-렷(다) 호-)의 '-ㅁ-'(려)를 '리'와 '-어-'가 결합한 어형으로 파악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남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균여의 향가에 사용된 '呂'(有叱下呂, 世呂中 등)는 다 '리' 정도로 읽을 수 있다는 점과 예문 (1)과 같은 환경에 사용된 '呂'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석독구결에는 선어말어미 '-거-'의 이형태인 '-어-'를 정확하게 표기한 구결자가 없다는 점 등이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8] 이런 점에서 본다면 『金光明經』에 나타난 예문 (1)의 '-ㅁᆞᆫᄃᆞ ᄂᆞ-'의 '-ㅁᆞᆫᄃᆞ-'은 다소 특이한 표기이다. 그런데 바로 이 '-ㅁᆞᆫᄃᆞ-'이 13세기 후반(또는 14세기 초반)의 자료로 추정되는 고

8) 선어말어미 '-거-'의 이형태 '-어-'를 정확하게 표기한 것은 고려말·조선 초기의 음독구결 자료에서부터이다. '-ㅇㅓ-'(-어-)나 '-ㅇᆞ-'(-어-) 字로 표기한 것이 그것이다. 선어말어미 '-거-'와 관련된 것을 석독구결에서는 '-ㅗ-'나 '-ㅏ-'(-아-)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려 시대 음독구결 자료인 안동본 『楞嚴經』에 나타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 자료의 제15장에 吐가 기입될 당시에 '리'와 '-거-'의 이형태 '-어-'가 통합한 어형을 'ㅁ'로 표기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남긴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석독구결의 문법으로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석독구결의 문자 체계는 일정한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나 형태소를 하나의 문자로 고정해서 표기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석독구결에서도 '-리-'와 선어말어미 '-거-'의 이형태인 '-ㅋ-'가 결합한 '-ㅊㅋ-'와 같은 통합이 가능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9] 또, '-ㅁㄴ-'의 '-ㅁ-'를 '-리-'로 볼 수 없는 것은 석독구결에서는 '-리-'에 바로 감탄의 선어말어미 '-ㅅ-'이 통합된 것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ㅁㄴ ノ-'의 '-ㅁㄴ-'을 '-리-'와 '-엇-'(-ㅋㄴ-) 정도가 통합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ㅁㄴ ノ-'의 'ㅁ'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문법사적으로나 음운사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자료에서 특이한 것은 사동 표현에 쓰인 구결자 'ᄉᆞ'(히)에 해당하는 것이 'ᄉᆞ'로도 표기된다는 사실이다. 이 'ᄉᆞ'字가 '令'에서 왔음을 이승재(1993)와 구결학회 월례강독회에서 이미 지적된 바가 있다. 남풍현(1997)에서는 '不ハᄉᆞリ□尸入…' <瑜伽師地論 14:20>에 대한 수정된 난상토 '不ハ令リ尸入…'를 근거로 하여 구결자 'ᄉᆞ'의 原字가 '令'임을 확실하게 밝혔다. 또, 남풍현 교수는 『金光明經』에서 사동사 'ᄉᆞ'(히-)에 해당하는 것이 'ᄉᆞ' 字로 표기된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여 석독구결에서 '리' 자로 쓰인 구결자 'ᄉᆞ'도 본자가 '令'자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10] 『金光明經』에는 사동사 '히-'를 표기함에 있어서 'ᄉᆞ(리)'와 구분

9) 云何 於一切衆生ヒ 中ㅋ十 第一リ尸 爲大 爲勝 爲最勝 爲妙 爲極妙 爲上 爲無上 爲無等 爲無等等 爲のごンナチㅋヒロ <華嚴 2:7-9>

10) 'ᄉᆞ'가 '令'의 초서체에서 왔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李東林(1982)에서 제

되지 않게 쓴 경우가 많다. 다음 예문 (2)가 그것이다.

(2) ㄱ. 若 有處處ᄒᆞ야 此 金光明經乙 講宣ᄉᆞ白ᄆᆞᄂᆞᆫ矣ㅡ <金光 15:4-5>

ㄴ. 是 會ᄂᆡ 大衆ᄭᅴ 皆 悉 彼ᄆᆞᆷ 往ᄒᆞ 爲ᄂᆞᆫ 聽衆ᄋᆡᄅᆞᄉᆞᄆᆞᆫ 作ᄉᆞᆫᄆᆞ ᄂᆡᄂᆞᆫᄒᆞᆫᄃᆞ 是 說法師乙火 種種ᄭᅴ 利益ᄂᆞᆫ 安樂無障ᄉᆞᆫᄃᆞ 身心泰然ᄉᆞᆫᄃᆞ ᄉᆞᄋᆡᄅᆞᄃᆞ <金光 15:5-7>

석독구결에서 사동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X ᄉᆞᆫ令ᄋᆡ-'(X히-), 'X ᄉᆞᆫᄋᆡ-'(X히-), 'X ᄉᆞ-'(X히-), 'X ᄉᆞᄋᆡ-'(X히-), 'X令-'(X히-)

『金光明經』에서 사동사 'ᄉᆞ'(히-)에 해당하는 것을 'ᄉᆞ' 字로 표기한 것은 이 자료가 보여주는 표기법의 특징이다.

다음 예문 (3)을 통해서는 구결자 'ᄎᆞ'가 『金光明經』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구결자 'ᄎᆞ'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의

기된 바 있다. 석독구결에서 사용된는 'ᄉᆞ'(리) 字나 'ᄉᆞ'(히) 字와는 다르게 고려말의 음독구결이나 조선 초기의 음독구결에 사용된 'ᄉᆞ' 字는 음이 '어'이고 이것은 '於'字의 오른 쪽만 취한 생획자이다. 이런 사실은 같은 모양의 구결자라도 시대에 따라 그 독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구결자 자체의 시대적인 변천을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자료다. 석독구결에 사용된 구결자 중에는 이후 계속해서 같은 음을 표기하는 구결자로 후대까지 사용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구결자도 시대에 따라 소멸하거나 같은 자형이라도 시대에 따라 그 음가가 달라진 것도 있다. 후대에 새로 만들어진 구결자들도 많다. 이와 같이 구결자 중에는 그 자체로서도 시대를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드물지만 講院에서는 불가의 구결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講院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결자 중에는 고려 시대나 조선 초기에서부터 사용된 구결자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후대에 새로 사용된 구결자들이 많다.

가 있었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그 음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攴'에 대해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다', '히', '디', '기' 등으로 그 음가를 추정하거나, 이승재(1993)는 이 '攴'를 일종의 지정문자로 파악한 바 있다. 필자도 구결자 '攴'는 이것이 기입되어 있는 앞의 어형을 문맥에 맞게 訓讀해야 함을 지정해 주는 일종의 지정문자로 파악하고 있다.[11] 지정문자설은 김완진(1980a)에서 제기된 바 있다. 『金光明經』에는 '攴'가 모두 '如'의 訓을 표기하는 데만 쓰이고 있다.

(3) ㄱ. 譬 轉輪聖王ヲ 主兵寶臣ㅣ 意し 如ハ 處分ンア 如攴 是 如攴 第九心ㅣ 善能 淸淨 佛土し、 莊嚴ンカ 功德ᄆ 普洽ン ᄀ ホ 廣ㅣ 一切し 利ンカンカ入ᄆ 故ノ 是し 名下 力波羅蜜因ナノオカ <金光 2:15-17>

ㄴ. 譬 虛空ナ 及 轉輪聖王ナンア 如攴ン ᄀ 是 如攴 第十心ㅣ [於]一切境界ᄀ十 皆 悉ᄀ 通達カ入ᄆ 故ノ [於]一切法 自在 灌頂位ᄀ十 至 故ノ 是し 名下 智波羅蜜因ナノオ ㅣ <金光 2:17-19>

예문 (3ㄱ)의 '如攴'나 예문 (3ㄴ)의 '如攴ン-' 등이 그것이다. '如攴'는 '다히' 정도로 읽을 수 있고, '如攴ン-'는 형용사 '다ᄒᆞ-' 정도로 읽을 수 있다.

『金光明經』에는 '如攴'나 '如攴ン-'와 관련하여 이것과 통사적인 기능에서 차이를 보이는 '如ハ'도 나타난다. 타동사적인 용법을 보이는 예문 (4)의 '如ハ'는 예문 (3)에 보이는 '如攴'나 '如攴ン-'와는 통사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

11) 이 '攴' 字가 구결자 다음에 기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攴' 앞에 오는 구결자는 모두 訓假字이다.

(4) ㄱ. 我ᄒᆞ 等ᄭᅮᆨᄀᆞ 爲ᄂᆞᆷ 救護ᄒᆞᆸ 利益ᄒᆞᆸ ᄂᆞᄆᆞᆺ入ᄋᆞᆯ 作ᄒᆞᄋᆞᆷ 一切障礙ᄋᆞᆯ 消除ᄉᆞᄅᆡᄀᆞᆫ 其 須ᄐᆡ ᄂᆞᄆᆞᆺ 所ᄋᆞᆯ 隨ᄂᆞᆷ 意ᄋᆞᆯ 如ᄒᆞ 供給ᄒᆞᄋᆞᆷᄒᆞ 悉 具足ᄒᆞᆫ令ᄅᆡᄒᆞᆫᄃᆞᄒᆞᄐᆡ <金光 15:13-14>

ㄴ. 善男子ᄋᆞᆷ [云]何ᄉᆞ 初地 而ᄆᆞᆫ 名ᄒᆞ 歡喜ᄅᆡᄒᆞᄂᆞᄋᆞᄅᆞᄉᆞᄂᆞᄒᆞᆫ入ᄀᆞ 出世心ᄂᆞᆯ 得ᄀᆞᆫ 昔ᄆᆞᆺ 得ᄆᆞᆺ 未ᄅᆡᄒᆞᄋᆞᆷᄐᆡᄂᆞᄀᆞ 所ᄅᆡᄀᆞᆫᄂᆞᆯ 而ᄆᆞᆫ 今ᄒᆞᄀᆞᆯ 始ᄂᆞᆷ 得ᄒᆞᆫᄀᆞ 大事ᄉᆞ 大用ᄉᆞᄂᆞᄆᆞᆺᄂᆞᆯ 意ᄐᆡ 願ᄂᆞᄀᆞ 所ᄂᆞᆯ 如ᄒᆞ 悉ᄋᆞᆷ 皆 成就ᄒᆞᆫᄀᆞᄒᆞᄋᆞᆷ 大ᄅᆡ 歡喜慶樂ᄒᆞᆫᄃᆞᄀᆞ入ᄆᆞᆫ 故ᄂᆞᆷ 是故ᄆᆞᆫ 初地ᄂᆞᆯ 名ᄒᆞ [爲]歡喜地ᄉᆞᄂᆞᄒᆞᆫᄀᆞᆫ <金光 6:22-25>

예문 (4)에 보이는 '如ᄒᆞ'는 예문 (3)의 '如ᄒᆞ'나 '如ᄒᆞᄋᆞᆫ-'와는 달리 타동사적인 용법을 보이는 어형을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 자료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석독구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바, 형용사 '다ᄒᆞᆫ-'(如ᄒᆞᄋᆞᆫ-, 如ᄒᆡᄋᆞᆫ-)와는 달리 타동사적인 용법을 보일 때는 '如ᄒᆞ' 또는 '如ᄒᆞᆫ'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이 문헌에 따로 표기상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 중 '如ᄒᆞ'는 『瑜伽師地論』과 『金光明經』에 나타난다. 『瑜伽師地論』에는 '如ᄒᆞ' 외에 '如ᄒᆞᄋᆞᆫ-'로 표기된 것도 있다. 이에 비해 『華嚴經』과 『舊譯仁王經』에서는 『金光明經』이나 『瑜伽師地論』의 '如ᄒᆞ', '如ᄒᆞᄋᆞᆫ-'와는 달리 '如ᄒᆞᆫ'(ᄀᆞᆮ)으로 표기하고 있다. 『華嚴經』에는 타동사 '如ᄒᆞᆫ' 대신에 '如ᄇᆞᆫ'(ᄀᆞᆮ)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이것을 통해서도 『金光明經』이나 『瑜伽師地論』에 토를 기입한 사람이 같거나 적어도 같은 유파의 승려들임을 알 수 있다.

『金光明經』에서 'ᄒᆞ' 字는[12] 항상 '-ᄒᆞᄂᆞᄀᆞ'(-누온)이나 '-ᄒᆞᄀᆞ'(-눈)으로만 나타난다. 즉 선어말어미 '-ᄒᆞᄂᆞ-'는 명사형어미 '-ㄴ'이나 관형사형어미 '-ㄴ'과 통합한 용례만 보인다. 구결자 'ᄒᆞ'는 釋讀口訣에서는 선

12) 일반적으로 석독구결에 사용된 구결자 'ᄒᆞ'는 '臥'의 생획자로 '누' 정도로 읽고 있다. 이 'ᄒᆞ'字가 음독구결에서는 '와'로 읽히는 구결이다. 석독구결에서 'ᄒᆞ'는 선어말어미 '-ᄒᆞ(누)-'로만 사용된다.

어말어미 '-ㅏ-'로만 쓰인다. 고려 시대의 선어말어미 '-ㅏ-'는 명사형 어미나 관형사형어미 '-ㄱ(-ㄴ)'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 '-ㅏ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선어말어미 '-오-'가 개제된 '-ㅏノㄱ'으로도 나타난다. 선어말어미 '-ノ-'(-오-)와는 수의적으로 통합한다. 이 '-ㅏ-'는 중세어의 '-ᄂᆞ-'에 대응된다. 석독구결에는 '-メ-'(-노-)도[13] 보인다.

(5) ㄱ. 三者 一切 衆生ㅣ 生死ㅋ+ 往還ノ尸ム 其 因緣し 隨ノソト ノㄱ入し 是 如ㅊ 見知ンケ <金光 4:22>
ㄴ. 初地ㅋ+ 有相道し 行ン [欲]ㅅントㄱカ 是ㄱ 無明ㅣケ 障礙 生死し 怖畏ントㄱカ 是ㄱ 無明ㅣ皿 是し 初地ヒ 障ユノヲケ <金光 7:16-17>

釋讀口訣에서 '-ㅏ-'가 명사형이나 관형사형어미 '-ㄱ(-ㄴ)' 앞에만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ㅏ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선어말어미 '-오-'가 개제된 '-ㅏノㄱ'으로도 나타난다. 선어말어미 '-오-' 외에 '-ㅏ-'와 통합할 수 있는 선어말어미로는 존경법의 '-ニ-'와 겸양법의 '-白-'이 있다. 시상과 서법 계열의 선어말어미 중에는 양태나 서법을 나타내는 '-ロ-'와 통합할 수 있다.[14]

다음 예문 (6)의 'ントニユ'는 선어말어미 '-ㅏ-'가 존경법의 '-ニ-'에

13) '-メ-'(-노-)는 중세어의 '-ᄂᆞ-'와 '-오-'의 통합형과 같은 것이다. 'メ'가 『유가사지론』에는 쓰이지 않았다. 석독구결에서 'ㅌ'字는 음독구결에서와는 다른 분포를 보인다. 高麗末·朝鮮初期의 음독구결에서부터는 'ㅌ'가 '-ᄂᆞ-'로 쓰이는 것과 달리 석독구결에서 'ㅌ'는 명사적으로 쓰이는 경우와 선어말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선어말어미로 쓰이는 경우도 '-ㅏ-'와 '-メ-'와는 분포에서 차이를 보인다.

14) 이 외에 'ンナトㅣ'나 'ンナトㄱ矢ミ'와 같이 '-ナ-'와 '-ㅏ-'가 통합한 것도 보인다.

선행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문법구조를 보인 토이다. 이 예는 『金光明經』에만 보이는 유일 예로 생략된 표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 '-ㅅ-'는 존경법의 '-ㅸ-'에 선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善男子 菩薩 九地ᄋᆞ十 是 相 前現ᄒᆞᄆᆞᆷ 轉輪聖王ㄱ 量 無ᄂᆞㄱ 億衆ᄅᆞ 圍繞ᄂᆞᄋᆞᄉᆞᄒᆞ 供養ᄉᆞᅀᆞᄒᆞᄂᆞᆫ 頂上ᄋᆞᄉᆡ 白蓋ㄱ 量 無ᄂᆞㄱ 衆寶ᄆᆞ(之) 莊嚴ᄂᆞㄱ 所ㄱᄂᆞᆫ 以ᄋᆞᄉᆞᄒᆞ [於]上ᄂᆞᆫ 覆ᄂᆞᄅᆞᄉᆡᄂᆞㄱ 入ᄂᆞᆫ 菩薩ㄱ 悉ᄋᆞ 見ᄂᆞᄒᆞᄉᆡᄂᆡ <金光 6:17-19>

예문 (6)의 '-ᄉᆞᄒᆞᄂᆞᆫ'는 '-ᄉᆞᄒᆞ-'가 '-ᄒᆞᄂᆞ-'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토이다. 석독구결의 다른 예에서는 '-ᄒᆞᄂᆞ-'가 '-ᄉᆞᄒᆞ-'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또 선어말어미 '-ᄒᆞᄂᆞ-' 다음에 바로 명사문을 종결하는 '-ᄂᆞᆫ'가 통합된 점도 특이한 것이다. 이 '-ᄉᆞᄒᆞᄂᆞᆫ'는 생략표기가 적용된 표기이다. 다음 예문 (7)을 통하여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자. 예문 (7)은 바로 예문 (6)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같은 유형의 구문이다.

(7) 善男子ᄋᆞ 菩薩 十地ᄋᆞ十ㄱ 是 相ㅣ 前現ᄒᆞᄆᆞᆷ 如來ᄆᆞ[之] 身ㅣ 金色 晃耀ᄂᆞᄒᆞᄒᆞ 量 無ㄱ 淨光ㅣ 悉ᄋᆞ 皆 圓滿ᄂᆞᄒᆞㄱᄂᆞᆫ 量 無ᄂᆞㄱ 億梵王ㅣ 圍繞ᄂᆞᄋᆞᄉᆞᄒᆞ 恭敬ᄂᆞᄒᆞ 供養ᄂᆞᄒᆞᄂᆞ白ᄉᆞᄂᆞㄱㅣᄂᆞᄒᆞㄱᄂᆞᆫ [於]無上微妙法輪ᄂᆞᄂᆞ 轉ᄂᆞᄒᆞᄉᆞᄂᆞㄱ 入ᄂᆞᆫ 菩薩ㄱ 悉ᄋᆞ 見ᄂᆞᄒᆞᄉᆡᄂᆡ <金光 6:19-22>

예문 (6)의 '供養ᄂᆞᄉᆞᄒᆞᄂᆞᆫ'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생략된 표기이다. 예문 (7)의 '供養ᄂᆞᄒᆞᄂᆞ白ᄉᆞᄂᆞㄱㅣᄂᆞᄒᆞㄱᄂᆞᆫ'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구결학회 월례강독회에서도 예문 (6)의 '供養ᄂᆞᄉᆞᄒᆞᄂᆞᆫ'가 생략된 표기임이 논의된 바 있다. 'ᄂᆞᄉᆞᄒᆞᄂᆞᆫ'는 'ᄂᆞᄉᆞ(ᄂᆞㄱㅣ)ᄒᆞ(ㄱ)ᄂᆞᆫ'나 'ᄂᆞᄉᆞ(ㄱㅣ)ᄒᆞ(ㄱ)ᄂᆞᆫ' 등에서 생략된 표기이다.

석독구결에서 'ᄀᆞ'(나)는 접속어미 '-ᄀᆞ'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대의 음독구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ㅱ'가 『金光明經』에서는 특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佛'이나 '世尊'을 주어로 하는 문장 '佛ㅣ 言ㅱㄴㅁ […]'에서만 'ㅱ'가 쓰였다. '言ㅱㄴㅁ'은 존칭 체언 '佛'과 호응하는 화법동사이다. '言ㅱㄴㅁ'에 달린 'ㅱ'를 선어말어미로 보기는 어렵다. '言ㅱㄴㅁ'에 통합되어 있는 '-ㄴㅁ'(싫)은 존경법의 '-시-'와 동명사어미(명사형어미)라고 하는 '-ㅁ'이다. 다른 석독구결에서 '言ㄴㅁ'(니ᄅ싫)로 나타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言ㅱㄴㅁ'에서 '-ㄴㅁ'(-싫) 앞에 통합되어 있는 'ㅱ'가 선어말일 가능성은 없다. 이 점에 착안하여 백두현(1997b)은 '言ㅱㄴㅁ'의 'ㅱ'를 동사 '니ᄅ-'와는 다른 존칭 동사 '言'의 훈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15] 다음 예문 (8ㄴ)과 (8ㄷ)의 '曰ㄲㄴㅁ'과 '言ㄲㄴㅁ' 도 예문 (8ㄱ)의 '言ㅱㄴㅁ'과 관련된 표기일 가능성이 높다.

(8) ㄱ. 佛ㅣ 言ㅱㄴㅁ 善男子ㅇ 何ㅅㅣ ㄴ[者] 波羅蜜義ㄲ ㅅㅅㅁㅗㅅ ㅁㅅㅅㅎㅁㅏㅅㅣ <金光 5:8>
ㄴ. 爾時十 世尊ㅣ 而ㅉ 呪乙 說ㅇ 曰ㄲㄴㅁ <金光 9:2>
ㄷ. 佛ㅣ 言ㄲㄴㅁ 善男子ㅇ 是 如ㅈㅅㅣ 汝等ㅅㅣㅣ 當ㅅ 此 如ㅈㅅㄴㅣ 經典乙 精勤修行ㅅㅅㅎ 應ㅌㅅㅣㅗ 則ㅅ 法乙 久ㅇ 於世ㅋ十 住ㅅㄲ白ㅇㅣㅣ ㅅㅎㅏㅣㄲㅣ ㅅㅂㅅㄴㅣ <金光 15:14-16>

예문 (8ㄱ)의 '言ㅱㄴㅁ'과 (8ㄷ)의 '言ㄲㄴㅁ'의 주어는 '佛'이다. 예문 (8ㄴ)의 '曰ㄲㄴㅁ'의 주어는 '世尊'으로 모두 존칭 체언이다. 백두현(1997b)은 '-ㄴㅁ' 앞에 다시 선어말어미 '-ㅱ-'가 올 수 없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것들을 '니르-'와 관련된 존칭동사로 파악한 것이다. 실제로

15) 백두현(1997b)은 '言ㅱㄴㅁ'을 '言ㄲㄴㅁ'를 고려하여 '言ㅱ-'와 '言ㄲ-'를 '내-' 정도로 읽었다.

지금까지 발굴된 구결 자료에서 구결자 'ㄱ'가 선어말어미로 표기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자료에서는 '言ㄱㄴㄷ'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예문 (8ㄴ)과 (8ㄷ)의 '曰ㅣㄴㄷ'과 '言ㅣㄴㄷ'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言ㄱㄴㄷ'을 '니ᄅᆞ-'에 대한 존칭 화법동사로 추정하는 데도 많은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言ㄱㄴㄷ'이나 '曰ㅣㄴㄷ', '言ㅣㄴㄷ'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필자는 '言ㄱㄴㄷ'과 '曰ㅣㄴㄷ', '言ㅣㄴㄷ' 등과 관련하여 가능성 하나를 더 열어 두고자 한다. 금광명경의 특이한 표기법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言ㄱㄴㄷ'의 '-ㄱ-'를 선어말어미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것이다.[16]

『瑜伽師地論』에만 보이는 구결자 'ㅌ'와 '一' 字가 『金光明經』에서도 쓰인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독법을 밝히기는 어렵다. 더 좋은 자료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다음 예문 (9)는 구결자 'ㅌ'이 '餘ㅌ'으로 한 번 나타나는 것이다. 『瑜伽師地論』에도 '餘ㅌ'이 한 번 보인다.

(9) 生死ㅣㅣ 涅槃ㅣㅣㄴㄷㅅㄱ 皆 是ㄱ 妄見ㅣㄱㄴ 能ᄉᆞ 度ㄴㄷㅁ 餘ㅌ 無ㄴㄷㄱㅣㄴㄷㅊ 是波羅蜜義ㅣᄉᆞ[生死이다 涅槃이다 하는 것은 다 이것은 妄見임을 능히 헤아리되 남김이 없으심 같은 것이 곧 바라밀의 뜻이며] <金光 5:18-19>

그런데 『金光明經』이나 『瑜伽師地論』에서와는 달리 '餘ㅌ'에 대해 華嚴經이나 舊譯仁王經에서는 '餘ㄴㄱ'으로 표기하여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도 『金光明經』이나 『瑜伽師地論』에 보이는 구결이 서로 유사한 표기법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瑜伽師地論』에도 '餘ㅌ'이 나타나는데, 이 '餘ㅌ'을 南豊鉉(1993a)에서는 '남즉' 정도로 파

16) 물론 구결 자료에서 '-ㄱ-'가 선어말어미로 사용된 경우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ㅂㄴㄷ-'와 같은 문법을 고려하면 예문 (8)에 보이는 특이한 '言ㄱㄴㄷ'과 '曰ㅣㄴㄷ', '言ㅣㄴㄷ' 등이 '-ㄱㄴㄷ-'나 '-ㄱㅣㄴㄷ-'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좋은 자료들을 기대해 본다.

악하고 있다. 특히 남풍현은 借字表記 자료인 詩經釋義에서 '艮' 자가 'ᄀᆞ' 음을 표기한 것을 근거로 하여 구결자 'ᄇᆞ'를 'ᄀᆞ'나 'ㄱ'으로 그 음가를 추정한 바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설령 같은 자형의 구결자라도 시대에 따라 그 음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餘'가 15세기 국어에서는 '남-' 또는 '남ᄌᆞ기', '남ᄌᆞᄒᆞ-' 등으로 언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瑜伽師地論』에 나타나는 '餘ᄇᆞ'을 남풍현 교수가 '남ᄌᆞ'으로 해독한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餘'와 관련된 어형들이 鄕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10) ㄱ. 法界 餘音玉只 出隱伊音叱如支 <懺悔業障歌4>
ㄴ. 伊留叱 餘音良 他事 捨齊 <總結無盡歌10>

예문 (10ㄱ)과 (10ㄴ)을 김완진(1980b)에서는 각각 "法界 넘어 나 있다"와 "뎌롯 나마 他事 ᄇᆞ리져"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대체로 향가의 해독자들은 예문 (10ㄱ)의 '餘音玉只'은 '*나목' 정도로, (10ㄴ)의 '餘音良'는 '*나마' 정도로 읽어, 이들을 '남-'의 부사 또는 부사형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鄕歌에 나타나는 '餘音玉只'과 '餘音良'도 각각 '남ᄌᆞ'과 '남-'의 활용형과 관련된 표기다. 예문 (9)의 '餘ᄇᆞ'은 향가에 보이는 '餘音玉只'이나 '餘音良'과는 통사적으로 다르게 사용된 것이다. 즉, 예문 (9)의 '餘ᄇᆞ 無ㅅᄀᆞ ㅣ ㅅᄆᆞ矣'에서의 '餘ᄇᆞ'은 동사 '無ㅅᄀᆞ ㅣ ㅅᄆᆞ矣'에 대해 주어로 쓰인 것으로 파악해야 문맥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餘ᄇᆞ'을 '남ᄌᆞ'으로 읽기는 어렵다. 국어 문법에서 '남ᄌᆞ'이 명사적으로 사용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金光明經』이나 『瑜伽師地論』에 보이는 '餘ᄇᆞ'에 대해 다른 독법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좋다. 『華嚴經』이나 『舊譯仁王經』에서는 '餘ㅅᄀᆞ'으로 표기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餘ᄇᆞ'에 대해 '餘ㅅᄀᆞ'으로 표기되는 현상은 석독구결에서 '今ᄇᆞ'에 대해 '今ㅅᄀᆞ'으로 표기되는 현상과는 동궤의 현상이다.

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 '一'는[17] 아직도 그 음가나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이 구결자가 사용된 것은 예문 (11)과 『瑜伽師地論』에 보이는 '爲'에 현토된 세 용례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전부다.

(11) ㄱ. 微細ンㄱ 諸相ㅣ 或現ンᄒᆞ 不現ンᄒᆞントㄱ カ 無明ㅣ 因 [爲] ㅣ尸入乙ンカ 一味一ㅣ 熟 思惟ンᄋᆞ 斷乙 欲ンア矢 方便乙 得尸 未ハントㄱ カ 無明ㅣ 因 [爲]ㅣ尸入乙ンヲ皿 是乙 七地ヒ 障ナノヲカ[미세한 여러 相이 혹 나타나며 나타나지 않으며 하는 것도 無明이 因이 되며, 一味로(?) 깊이 사유하여 斷을 원하는 것이 방편을 얻지 못하는 것도 無明이 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七地의 障이라고 하며] <金光 7:25-8:2>

ㄴ. 何以故 善男子ᄋᆞ 若 一切衆生ㅣ 善根乙 種一尸 未ㅣᄒᆞ 善根乙 成熟 未ㅣᄒᆞ 諸佛乙 親近 未ㅣᄒᆞ ンナㄱㄱ 得ᄋᆞホ 是金光明經乙 聽聞 不ハンナヲㄱ入皿ナ[어째서냐 하면 善男子야 만약 모든 衆生이 善根을 심지 않거나 善根을 성숙시키지 않거나 모든 부처를 가까이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능히 이 金光明經을 듣지 않기 때문이로다] <金光 14:1-3>

예문 (11)에 보이는 '一味一ㅣ'나 '種一尸'만으로는 '一' 자를 읽기는 어렵다. 『瑜伽師地論』에 보이는 '爲'에 현토된 세 용례를 살펴보자. '障ᄅᆞ ヒ 爲一ㅣ尸入皿' <8:8-10>, '障ᄂᆞ 爲一ㅣナセㅣ' <14:17-18>, '障ᄅᆞ ヒ 爲一ㅣ个七' <30:5-10> 등이 그것인데, 이것은 모두 대격을 지배하는 동사로 사용된 것이다. 즉 '一' 字가 타동사 '爲一-'으로 쓰인 것만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석독구결에서 '爲'는 'ᄒᆞ-'나 '삼-' 정도로 읽히는데, 석독구결에서 '삼-'이 주로 속격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보면, 또, 예문 (11ㄴ)의 '種一尸'을 고려하면 '爲一-'가 'ᄒᆞᆫ'이나 'ᄒᆞ-' 정도로 읽힐

17) 후대의 음독구결 자료에 보이는 '一' 字는 '西'의 생획자로 쓰인 것이다. 석독구결에 보이는 '一' 字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 남권희 교수가 소개한 바 있는 고려본 음독구결 자료인 詳校正本 慈悲道場懺法 卷4의 5장 15행에 보이는 원문의 '同' 字 옆에 '一可之又'(ᄒᆞᆫ가지로)라고 표기하고 있다.[18] 이 '一可之又'(ᄒᆞᆫ가지로, 同)를 보면 '一' 字를 훈독하여 'ᄒᆞᆫ'으로 읽었음을 알 수 있다. '一味ㅡㅣ'나 '種ㅡ尸' 그리고 '[爲]ㅡㅣ尸入灬', '[爲]ㅡㅣナ𠂉七ㅣ', '[爲]ㅡㅣ𠂇七'에 보이는 '[爲]ㅡㅣ-'의 'ㅣ'가 문제다. 일반적으로 'ㅣ'(이)는 주격조사나 사동접사 '-이-', 계사 '-이-' 등을 표기하는 데 쓰는바, 여기서는 계사를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爲]ㅡㅣ-'가 사용된 전체 용례를 검토해 보면 특별히 사동문으로 쓰인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문 (11)과 유가사지론에 사용된 '一味ㅡㅣ', '種ㅡ尸' 그리고 '[爲]ㅡㅣ尸入灬', '[爲]ㅡㅣナ𠂉七ㅣ', '[爲]ㅡㅣ𠂇七' 등에 사용된 'ㅡ' 字는 그 原字가 '一' 字로 'ᄒᆞᆫ' 정도로 읽을 수 있다.

2.2. 『金光明經』에 기입된 釋讀口訣은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위치에 吐가 달린 것이 많고 부분적으로는 난상 등에 교정하거나 화살표로 토의 위치를 교정한 것도 보인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이 자료는 어떤 저본을 보고 베꼈을 가능성 아주 높다. 이 자료에는 吐를 기입한 위치가 잘못되어 수정하거나 토 자체를 수정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또 極細字로 본문의 글자 중간에 구결자가 기입된 것도 있고, 欄 上下에 구결을 표기한 것도 있다.

『金光明經』에는 생략표기도 많이 보인다. 그리고 일부, 이 자료에 특징적으로 사용된 토와 난해토들도 존재한다.[19] 이 자료에만 보이는 특

18) 이 자료는 이와 같이 음독구결 吐 외에 원문의 한자의 훈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하고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9) '今ハ丁ᄉ'는 한 예가 나타나는데 다음 예문이 그것이다.
善男子ᄋᆞ [云]何ㅗ 初地 而灬 名下 歎喜リハンロ𠂉ンナ𠂇入丁 出世心し 得ケ 昔尸 得尸 未リンᄋᆞセㅣノ丁 所リ丁し 而灬 今ハ丁ᄉ 始ノ 得ンケ 大事ㅗ 大用ㅗノ尸し 意七 願ノ丁 所し 如ハ 悉ᄋᆞ 皆 成就ンケンᄋᆞ 大リ

징적인 口訣吐 'ㅣㅂ'부터 먼저 검토해 보자. 다음 예문 (12)는 'ㅣㅂ'가 사용된 예문이다.

(12) ㄱ. 何ᄉᆞᆫᄀᆞᆫ 者 [爲]五ㅣㅂ ᄆᆞᅀᆞᆷᄆᆞ ᄉᆞᄂᆞᆯᄒᆞᄂᆞᆫ 一者 信根ᄒᆞ ᄉᆞᆼᄀᆞ 二者 慈悲ᄒᆞᄉᆞᆼᄀᆞ 三者 求欲心 無ᄀᆞ 四者 一切 衆生ᄒᆞ 攝受ᄉᆞᆼᄀᆞ 五者 一切 智智ᄒᆞ 願求ᄉᆞᆼᄀᆞᄉᆞᆼᄃᆞᆯ矣ᄂᆞᆫᄀᆞᆯᄋᆡ <金光 2:22-23>

ㄴ. 何ᄉᆞᆫᄀᆞᆫ[者] [爲]五ㅣㅂ ᄆᆞᅀᆞᆷᄆᆞ ᄉᆞᄂᆞᆯᄒᆞᄂᆞᆫᄀᆞᆫ <金光 3:1-4>

ㄷ. 佛ᄀᆞ 言ᄒᆞᄃᆞᆯ 善男子ᄋᆞ 何ᄉᆞᆫᄀᆞᆫ[者] 波羅蜜義ㅣㅂᄉᆞᆫᄆᆞᅀᆞᆷᄆᆞ ᄉᆞᄂᆞᆯᄒᆞᄂᆞᆫᄀᆞᆫ <金光 5:8>

ㄹ. 善男子ᄋᆞ [云]何ㅡ 初地 而ᄆᆞᆷ 名ᄒᆞ 歡喜ㅣㅂᄉᆞᆫᄆᆞᅀᆞᆷᄆᆞᄉᆞᄂᆞᆯᄒᆞᄂᆞᆫᄀᆞᆫ […] <金光 6:22-25>

ㅁ. 何者 爲五ㅣㅂ <金光 4:12-13>

ㅂ. 何等 [爲]五ㅣㅂ <金光 5:2-3>

ㅅ. 何ᄉᆞᆫᄀᆞᆫ[者] [爲]五[ㅣㅂᄆᆞᅀᆞᆷᄆᆞᄉᆞᄂᆞᆯᄒᆞᄂᆞᆫᄀᆞᆫ] <金光 3:6-9>

ㅈ. 云何ᄉᆞᆫᄀᆞᆫ 爲五 <金光 3:24-25>

ㅊ. 何者 爲五 <金光 4:5-6>

예문 (12)에 보이는 'ㅣㅂ (ᄉᆞ)ᄆᆞᅀᆞᆷᄆᆞ ᄉᆞᄂᆞᆯᄒᆞᄂᆞᆫᄀᆞᆫ'(이기 ᄒᆞ고오리고 ᄒᆞ겨릻 ᄃᆞᆫ)의 'ㅣㅂ'에 대해서는 구결학회 월례강독회의에서 그리고 이건식(1997)과 백두현(1997b), 박진호(1997) 등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다. 이건식(1997)은 금광명경에 보이는 'ㅣㅂ'가 포함된 복합토 'ㅣㅂ ᄉᆞᆫᄆᆞᅀᆞᆷᄆᆞ ᄉᆞᄂᆞᆯᄒᆞᄂᆞᆫᄀᆞᆫ'을 세 단위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아 'ㅣㅂ'와 'ᄉᆞᆫᄆᆞᅀᆞᆷᄆᆞ', 'ᄉᆞᄂᆞᆯᄒᆞᄂᆞᆫᄀᆞᆫ'로 분석하고, 다음 예문 (13)에서 대동사 'ᄉᆞ-'

歡喜慶樂ᄉᆞᄃᆞᆫᄂᆞᆫᄆᆞᆷ 故ᄂᆞ 是故ᄆᆞᆷ 初地ᄂᆡ 名ᄒᆞ [爲]歡喜地ㅡᄂᆞᆯᄒᆞᆫ <金光 6:22-25>

일반적으로 석독구결에서 '今'은 '今ᄉᆞᆫᄀᆞ', '今ᄒᆞᆫ', '今ᄃᆞᆫ', '今ᄎᆞᆫ' 등으로 표기된 것인데 이 자료에서 '今ᄒᆞᄂᆞᆯ'로 나타난 유일 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을 해독하기 어렵다.

앞에 나타나는 '丄', '-尸丁', '-ㅣㅣ', 'ㅅㄴㅎㄴㅣ' 등을 'ㅣㅅ'와 비교한 바 있다.

(13) ㄱ. 佛子ㅣ 何ㅎ 等ㅣㅅㄱㄴ 菩薩摩訶薩尸 聞藏丄 ㅅ仝ㅁ [爲]ㅅ ナ孑尸入ㄱ <화소 1:3>

ㄴ. 佛子ㅣ 云何ㄴㅅㄱㄴ 用心ㅅㄱㅣ十 能ㅊ 一切勝妙功德ㄴ 獲尸丁 ㅅ仝ㅁ ㅅ孑尸入ㄱ 佛子ㅣ <華嚴 2:17-18>

ㄷ. 爾ㄴㅅㄱ 時十 大王ㄱ 復ㅅㄱ 起ㅅㅣ 作禮ㅅ白ㅁ 佛十 白ㅣ 言ㄴ尸 世尊下 一切 菩薩ㄱ 云 何ㄴㅅㄱㄴ 佛果ㄴ 護ㅅ仝 云何ㄴㅅㄱㄴ 十地ㄴ 行ㄴ 護ㅅ仝ㄴ 因緣ㅣㅣ ㅅㅁㄹ仝ㄹ <舊仁 3:22-23>

ㄹ. 佛十 白ㅣ 言ㄴ尸 云 何ㄴ ; 十方ㄴ 諸ㄴㄱ 如來 ; 一切菩薩 ; ㅅ孑 文字ㄴ 離 不多ㅅㅣ 而ᅲ 諸ㄱ 法上ㅣ十 行ㅅㄴㅎ ㄴㅣ ㅅㅁㄹ仝ㄹ <舊仁 15:20-23>

백두현(1997b)에서는 'ㅣㅅ ㅅㅁㅅ仝ㅁ ㅅナ孑尸入ㄱ'에 보이는 'ㅣㅅ'를 계사 'ㅣ-'와 어말어미 '-ㅅ'로 파악하고 문맥상 "-이라고"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박진호(1997)는 'ㅣㅅ'가 명명 구문이나 뜻풀이 구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여 현대국어의 '-라고' 정도에 해당하는 형태로 파악한 바 있다.

예문 (12ㄱ)은 "어떤 것을 다섯 가지라고 할 것인가 하면, 첫째는 믿음을 깊게하며 둘째는 자비를 행하며 셋째는 욕심을 구하는 마음이 없으며 넷째는 일체 중생을 거두어 들이며 다섯째는 모든 지혜를 원하여 구하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다. 예문 (12ㄱ, ㄴ)의 'ㅣㅅ ㅁㅅ仝ㅁ ㅅナ尸入ㄱ'은 金光明經에서 이와 같은 구문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바로 '이기 코오리고 ᄒᆞ겋 ᄃᆞᆫ' 정도로 판독할 수 있다. 이 'ㅣㅅ'을 현재로서는 '이기'나 '익' 정도로 읽을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정확한 판독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예문 (12ㄷ)은 열 일곱 가지의

波羅蜜義를 설명하는 첫 부분에 나오는 문장이다. 'ㅣㅅ ㅅㅗㅁㅇㅗ ㅅㅏㅎㅠㅏㄱ'은 '이기 ᄒᆞ고오리고 ᄒᆞ겨릷 ᄃᆞᆫ' 정도로 판독할 수 있다. 예문 (12ㄹ)의 'ㅣㅅ ㅅㅗㅁㅇㅗ ㅅㅏㅎㅠㅏㄱ'에서의 'ㅅㅏㅎㅠㅏㄱ'은 'ㅅㅏㅎㅠ ㅠㅏㄱ'에서 'ㅠ'이 생략된 표기이다. 'ㅎ'(리) 바로 다음에 의존명사 'ㅏ'(ᄃᆞ)가 바로 통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토 전체는 '이기 ᄒᆞ고리고 ᄒᆞ겨릷 ᄃᆞᆫ'으로 판독할 수 있다. 예문 (12ㅁ, ㅂ)은 'ㅣㅅ (ㅅ)ㅁㅗㅁㅇㅗ ㅅㅏ(ㅎ)ㅠㅏㄱ' 중에서 'ㅣㅅ'만 남고 나머지는 생략된 표기이다. 예문 (12ㅅ, ㅈ, ㅊ) 등은 반복되는 구문에서 이 吐들 전체가 모두 생략된 표기이다. 이 문장들은 모두 뜻풀이(내용 풀이 포함)나 명명 구문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장들이다. 바로 대동사 'ㅅㅡ' 앞에 '-ㅈ/ㅊ', '-ㅠㅜ'(-ㄹ뎌), '-ㅣㅣ', 'Xㅅㅣ'와 대치될 수 있는 자리에 '-ㅣㅅ'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문에 사용된 'ㅣㅅ'는 박진호(1997)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명명 구문이나 뜻풀이 구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현대국어의 '-라고' 정도에 해당하는 형태이다. 이 '-ㅣㅅ'가 고려말 음독구결에서부터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 예문 (14)와 예문 (15)를 통하여 '-ㅈㅓㅣ {ㅅㅡ, ㅅㅡ}', '-ㄹㅓㅣ {ㅅㅡ, ㅅㅡ}', '-ㅁㅓㅣ {ㅅㅡ, ㅅㅡ}'와 관련된 구문의 특징과 이것과 관련된 문장종결어미 '-ㅣ'(-다)의 생략표기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14) ㄱ. 生死ㄱ 過失ㅣㅎ 涅槃 功德ㅣㄱ ㅣㅈㅓㅣ ㅅㅈ 正覺正觀ㅅㅠㅊ 是波羅蜜義ㅣㅎ <金光 5:10-11>

ㄴ. 善男子ㅈ [云]何ㅗ 初地 而ㅱ 名ㅏ 歎喜ㅣㅅㅗㅁㅇㅗㅅㅏㅎㅠㅏㄱ 出世心ㄴ 得ㅎ 昔ㅠ 得ㅠ 未ㅣ ㅅㅈㅓㅣ ㅅㄱ 所ㅣㄱㄴ 而ㅱ 今ㅅㅏㄱㅈ 始ㅅ 得ㅅㅎ 大事ㅗ 大用ㅗㅅㅠㄴ 意ㅊ 願ㅅㄱ 所ㄴ 如ㅅ 悉ㅈ 皆 成就ㅅㅎㅅㅈ 大ㅣ 歡喜慶樂ㅅㅈㄱㅅㅱ 故ㅅ 是故ㅱ 初地ㄴ 名ㅏ [爲]歡喜地ㅗㅅㅎㅎ <金光 6:22-25>

ㄷ. 昔尸 得尸 未リ ソ氵セ丨 ノ丁 所七 勝利し 得氵丁入ㅠ 故ノ 動踊ソトフ力 無明し 因ノソ夕 聞持陁羅尼し 具尸 不ハソト フ力 無明し 因ノソ干ㅠ 是し 三地障ナノ干夕 <金光 7:18-20>

ㄹ. 衆生ラ 相し 思惟ソ白ノ尸ム 一切 種 皆七 無ソフ リ氵セ丨 ソニロ尸ナ 困苦ソトフ 諸 衆生ラ十 世尊リニ氵 普リ 救濟 ソニロ尸夕 <金光 13:12-13>

ㅁ. 法界フ 分別 無七ロフ 是故ㅠ 異ソフ 乘 無七ロフし 衆生し 度ソ 爲人ソニ尸入ㅠ 故ノ 分別ソ氵 三乘し 說ニロフ リ氵七丨 ソヒハニ丨 <金光 13:16-17>

ㅂ. 世尊ラ 智フ 一味リニ下 淨品ナ 不淨品ナノ今十 界し 分別 不多ソニ尸入ㅠ 故ノ 無上淸淨し 獲ニロフ リ氵七丨 <金光 13:9-10>

예문 (14)는 '-氵セ丨 {ソ-, ノ-}', '-ラセ丨 {ソ-, ノ-}', '-ロセ丨 {ソ-, ノ-}'에서 문장종결어미 '-丨'(-다)가 생략되지 않은 것이고, 다음 예문 (15)는 이 구문에서 문장종결어미 '-丨'가 생략된 것이다. 이런 생략표기는 석독구결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보이는 현상이다.

(15) ㄱ. 善男子氵 初菩薩地氵十フ 是相リ 前現ノフム 三千大千世界 氵十 量 無七夕 邊 無ソフ 種種七 寶藏リ 皆七 悉氵 盈滿リ ラセ ノフ入し 菩薩フ 悉 見ソナ亡七丨 <金光 5:23-25>

ㄴ. 生死し 損 不多ソニフ入ㅠ 故ノ 願ソ氵尔 尊フ 涅槃し 證ソ ニロフ リㅠ 二法見し 過ソニフ入ㅠ 故ノ 是故ㅠ 寂靜し 證 ソニロフ リ氵七夕 <金光 13:8-9>

ㄷ. 是 會七 大衆フ 皆 悉 彼ム 往氵 爲ノ 聽衆リ尸入乙 [作]ソ ロセ ノ干夕 是 說法師乙火 種種ㅠ 利益ノ 安樂無障ソき 身 心泰然ソき 今リ夕 <金光 15:5-7>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ㅭ七ㅣ {ㅅ-, ㄴ-}', '-ㄹ七ㅣ {ㅅ-, ㄴ-}', '-ㅁ七ㅣ {ㅅ-, ㄴ-}' 구문에서 '-ㅭ七(ㅣ)', '-ㄹ七(ㅣ)', '-ㅁ七(ㅣ)'은 각각 선어말어미 '-ㅭ-', '-ㄹ-', '-ㅁ-' 등에 감탄 또는 강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ㅅ-'이 통합한 것이다. 국어의 감탄법 선어말어미의 생성은 바로 이 통합형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석독구결에서는 '-ㅿ-'(-거-)와 '-七-'이 통합한 '-ㅿ七-'도 보인다. 금광명경 구결문의 생략표기가 다른 석독구결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은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문법은 중세어의 문법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ナハニ-' 또는 '-ㅭハニ-', '-ㅿハニ-', '-ㅁハニ(ㅁハ万)-', '-ヒハニ-' 등의 존재도 그 중 하나다. 이러한 문법은 중세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문법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석독구결 자료 중 가장 후대 자료인 『瑜伽師地論』에서도 이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金光明經』에는 이것과 관련된 것으로 '-白ハニ-', '見白ノ干ロハニㅣ', '-ナハニ-' 는 각 하나씩, '-ヒハニ-'는 몇 개의 용례가 보이는데, 그 중 예문 (16ㄱ)은 유일 예이다.

(16) ㄱ. 是 金光明經乙 說尸 巳ㅋ ソ白ハニ丁 三万億菩薩摩訶薩丁 無生法忍乙 得ヒハニ分 量 無丁 諸菩薩丁 菩提心乙 退 不多ソヒハニ分 量 無分 邊 無ソ丁 比丘丁 法眼淨乙 得ヒ尸分 量 無丁 衆生丁 菩提心乙 發ソヒㅣ[이 金光明經을 말하기를 이미 하신(다하신) 三万億菩薩摩訶薩은 無生法忍을 얻으시며 한량없는 모든 보살은 보리심을 물러나게 하지 않으시며 한량없고 끝없는 비구들은 법안정을 얻으며 한량없는 중생은 보리심을 발한다] <金光 14:22-24>

ㄴ. 是時十 世尊丁 而巾 偈乙 說ㅭ 言リニ尸 生死流乙 逆ニ今七(去叱ニ干) 道丁 甚深ソ寸 微ソ寸 ソニ下 難ㅋ 見白ノ干ロハニㅣ[이 때 世尊은 偈를 일러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흐름을

거스르시는 道는 매우 깊고 미묘하시어 어렵게야 뵐 것이시다[뵙기 어려울 것이다] <金光 14:24-15:1>

ㄷ. 是時ㅓ 大自在梵王ㄱ [於]大會ㄷ 中ㅇㅓ ᄉᆞᆫᄒᆞᄂᆞᆫㄱㅗ <金光 13:18>

ㄹ. 佛ㄱ 言ᄅᆡᄃᆞᄑᆞ 善男子ㅇ 是 如ᄒᆞᄉᆞᆫᆡ 汝等ᄉᆞᆫㄱㄱ 當ㅎ 此 如ᄒᆞᄉᆞᆫᄃᆞㄱ 經典ㄹ 精勤修行ᄉᆞᄆᆞᄒᆞ 應ㄷᄉᆞᆫㄱㅗ 則ᄂᆞ 法ㄹ 久ㅇ 於世ㅋㅓ 住ᄉᆞᄅᆡ白ㅇㄱㄱ ᄂᆞᄒᆞᄐᆞㄱᄅᆡᄂᆡ ᄉᆞᆫᄇᆞᄒᆞᄂᆡ <金光 15:14-16>

지금까지 알려진 '-ㅏㅎᄂᆞ-', '-ㅇㅎᄂᆞ-', '-ㅅㅎᄂᆞ-', '-ㅁㅎᄂᆞ-(ㅁㅎᄒᆞ)-', '-ㅂㅎᄂᆞ-' 외에 예문 (16ㄱ)의 '-白ㅎᄂᆞ-'(-숣기신)을 추가할 수 있다. 예문 (16ㄴ)의 '見白ノᄒᆞㅁㅎᄂᆞᆡ'는 '-ㅁㅎᄂᆞ-'가 통합되어 있는 구성체이다. 이 '-ㅁㅎᄂᆞ-' 앞에 통합되어 있는 '-白ノᄒᆞ-'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석독구결의 문법을 고려하면 '見白ノᄒᆞㅁㅎᄂᆞᆡ'에서 '-ㅁㅎᄂᆞ' 앞에 통합되어 있는 의 '-白ノᄒᆞ-'를 모두 다 선어말어미 '-白-', '-ノ-'(-오-), '-ᄒᆞ-'(-리-)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見白ノᄒᆞㅁㅎᄂᆞᆡ'의 '-白ノᄒᆞ-' '-숣-'과 '-오-' 그리고 명사형어미 '-ㄹ'에 계사 '-이-'가 통합한 구성체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문 (16ㄷ)에 보이는 'ᄉᆞᆫᄒᆞᄂᆞᆫㄱㅗ'는 중요한 용례이다. 선어말어미 '-ㅏ-'가 존경법의 '-ㅇㅎ-'와 통합한 것이다.

석독구결에서 '-{ㄹ, ノ}ㅎㄷᆡ'나 '-{ㄹ, ノ}ㅎ [應]ㄷᆡ'는 '-옳다'나 '-읊다' 정도로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당위성 구문에 나타난다. '-옳다'에서 '-오-'의 통합이 향가나 석독구결에서는 수의적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다음 예문 (17)에 보이는 '-ㅎ 應ㄷᆞᆫ-'를 어떻게 읽을 것이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에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17) ㄱ. 若 善男子ㅗ 善女人ㅗᄂᆞᄑᆞㄱ 當 諸香ㅗ 花繒ㅗ 綵ㅗ 幡ㅗ 蓋ㅗᄂᆞᄑᆞㄹ 以ㅋ 是 說法處ㄹ 供養ノㅎ 應ㄷᆞᆫㄹᆡ <金光

15:11-13>

ㄴ. 佛ㄱ 言ᄒᆞ시ᄃᆞ 善男子ᄋᆞ 是 如ᄒᆞᆫᄉᆞᆷ 汝等ᄋᆞᆫᄀᆞᆯ 當ᄒᆞ 此 如ᄒᆞᆫᄉᆞᆷᄋᆞᆫᄀᆞ 經典ᄋᆞᆯ 精勤修行ᄒᆞᄆᆞᅀᆞᆷ 應ᄒᆞᅀᆞᆫᄀᆞᆫᄃᆞ 則ᄂᆞ 法ᄋᆞᆯ 久ᄒᆞ [於]世ᄒᆞᅀᆞᆫ 住ᄒᆞᄉᆞᄇᆞᆷᄒᆞᆫᄃᆞ ᄂᆞᄒᆞᄂᆞᄀᆞᄒᆞᆫᄃᆞ ᄉᆞᄇᆞᄒᆞᄂᆞᆫ

<金光 15:14-16>

먼저 이승재(1995b)와 박진호(1997)에서 주장한 것처럼 '-{ㄹ, ㄴ}ᄆᆞᅀᆞᆷ ᄒᆞ', '-{ㄹ, ㄴ}ᄆᆞᅀᆞᆷ [應]ᄒᆞ'와 '-ᄆᆞᅀᆞᆷ 應ᄒᆞᅀᆞᆫ-', '應ᄒᆞᅀᆞᆫ-' 구분하여 읽는 것이 합리적이다. '-ᄆᆞᅀᆞᆷ 應ᄒᆞᅀᆞᆫ'에 대한 해독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하나는, '-ᄆᆞᅀᆞᆷ 應ᄒᆞᅀᆞᆫ-'를 '-음 맞ᄒᆞ-' 정도로 읽자는 견해가 이승재(1995b)에서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진호(1997)는 양태 표현에 사용된 '可ᄒᆞᅀᆞᆫ-'와 '應ᄒᆞᅀᆞᆫ-'의 관련성을 지적하면서 '應ᄒᆞᅀᆞᆫ-'의 경우도 '可ᄒᆞᅀᆞᆫ-'와 같이 '짓ᄒᆞ-' 정도로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20]

3. 한글 轉寫

合部金光明經은 8卷 24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卷三은 제6품 陁羅尼最淨地品에 해당한다. 이 品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師子相無礙光焰菩薩이 菩提와 菩提心에 대해 부처께 질문하고 부처가 대답하면서 본문이 시작한다.

---

20) 이 두 의견이 현재로서는 다 가능성이 있는 견해이긴 하지만 어느 것이 더 확실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어사 자료에서는 '應ᄒᆞᅀᆞᆫ-'를 '맞ᄒᆞ-'나 '짓ᄒᆞ-'로 읽어야만 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좋은 자료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3장에서 '-ᄆᆞᅀᆞᆷ 應ᄒᆞᅀᆞᆫ-'에 대한 한글 전사는 보류하기로 한다.

菩薩摩訶薩十種菩提心因[21](1:29-2:20)
10가지 波羅蜜을 成就하기 위한 五種法(02:21-05:08)
17가지 波羅蜜義(05:08-05:23)
菩薩十地[22](05:23-06:22)
十地의 釋名(06:22-07:15)
十障과 如來地障(07:16-08:10)
菩薩十地와 十波羅蜜(08:10-08:16)
十種發心의 三摩提[23](08:16-08:25)
菩薩十地 각각의 단계에서 誦持해야 할 陁羅尼(08:25-13:01)
師子相無礙光焰菩薩의 讚歎(13:01-13:17)
大自在梵王의 말(13:18-13:21)
佛의 말과 偈頌(13:21-15:02)
大會之衆의 말(15:03-15:14)
佛의 말(15:14-15:16)

---

21) 十波羅蜜의 이름이 合部金光明經에는 주로 音譯되어 있는 데 반해 金光明最勝王經에는 주로 意譯되어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檀(布施)波羅蜜, ②尸(持戒)波羅蜜, ③羼提(忍辱)波羅蜜, ④毗梨耶(勤策)波羅蜜, ⑤禪(靜慮)波羅蜜, ⑥般若(智慧)波羅蜜, ⑦方便勝智波羅蜜, ⑧願波羅蜜 ⑨力波羅蜜, ⑩智波羅蜜.

22) 菩薩 修行의 階位인 52位 中 제41位부터 제50位까지. ①歡喜地, ②無垢(離垢)地, ③明(發光)地, ④焰(焰慧)地, ⑤難勝地, ⑥現前地, ⑦遠行地, ⑧不動地, ⑨善慧地, ⑩法雲地.

23) 三摩地, 三昧라고도 함. 마음을 한 곳에 定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

合部金光明經 卷第三

隋 大興善寺 沙門 釋 寶貴 合
梁 三藏 眞諦 譯

陁羅尼寂淨地品第六

제1장 落張

(是時師子相無礙光焰菩薩 與無量億衆從座俱起 偏袒右肩右膝著地 合掌恭敬頂禮佛足 以種種華香寶幢幡蓋 以爲供養 而作是言 以幾因緣得菩提心 何者是菩提心 世尊 於菩提者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 科學心不可得 離菩提者 菩提心亦不可得 菩提者不可言說 心者亦無色無相無事無業 非可造作 衆生者亦不可得亦不可知 世尊 云何者法甚深之義而可得知

佛言 善男子 菩提秘密事業造作不可得知 離菩提菩提心亦不可得 菩提者不可言說 心亦無相 衆生亦不可得知 何以故 如意心亦如是 如心菩提亦如是 如心如菩提 衆生亦如是 如衆生一切三世法亦如是

佛言 善男子 如是菩薩摩訶薩得名 是心通一切法 是說菩提菩提心 菩提非科學非未來非現在 心亦如是 衆生亦如是 於如此中亦不可得 何以故 一切法無生故 菩提不可得菩提名不可得 衆生衆生名不可得 聲聞聲聞名不可得 緣覺緣覺名不可得 菩薩菩薩名不可得 佛佛名不可得 行非行不可得 行非行不可得 於一切寂靜法而得安住 依一切功德善根而得發出)

菩薩摩訶薩十種菩提心因

<金光 2:1>

(是名初發菩提心 譬如寶須彌)山王(ㅅ白ㅋ?) 是ㄴ 名下 檀波羅蜜因ㅗ ㅅ孑ㅎ

(是名初發菩提心 譬如寶須彌)山王(ᄒᆞ실불?) 이롤 일하 檀波羅蜜因여 호리며

<金光 2:1-2>

第二發心ㄱ 譬入ㄱ 大地ㅣ 一切法事ㅗ ㅅ尸ㄴ 持尸 如支ㅅ亡ㄱ 入ㅠ 故ㅅ 是ㄴ 名下 尸波羅蜜因ㅗ ㅅ孑ㅎ

第二發心온 가줄빌 ᄃᆞᆫ 大地ㅣ 一切 法事여 홇올 디닒 다ᄒᆞ건 ᄃᆞ로 [故ㅅ] 이를 일하 尸波羅蜜因여 호리며

<金光 2:2-4>

譬 師子ㅣ 臆長毫獸ㅋ七 王ㅣㅠ 大神力 有斗ㅋ 獨步ㅅ尸ㅁ 畏ㅅ尸 無ㅋ 戰怖ㅅ尸 有ㅅㄱ 無ㅋ 如支 是 如 第三心ㄴ 說ㅋ 屠提波羅蜜因ㅗ ㅅ孑ㅎ

가줄빌 ᄃᆞᆫ 師子ㅣ 臆長毫獸앗 王이라 大神力 두져 獨步홇 ᄃᆡ 畏홇 없져 戰怖홇 有ᄒᆞᆫ 없져 다히(如支) 是 如 第三心을 닐아 屠提波羅蜜因여 호리며

<金光 2:4-6>

譬入ㄱ 風輪ㄱ 那羅延力勇壯 如支 速疾ㅅㄱ 是 如支 第四心ㅣㅠ 退轉ㅅ尸 不多ㅅ亡ㄱ 入ㅠ 故ㅅ 是ㄴ 名下 毗梨耶波羅蜜因ㅗ ㅅ孑ㅎ

가줄빌 ᄃᆞᆫ 風輪은 那羅延力勇壯 다히 速疾ᄒᆞᆫ 이 다히 第四心이 退轉홇 안ᄃᆞᆯ ᄒᆞ건 ᄃᆞ로 [故ㅅ] 이를 일하 毗梨耶波羅蜜因여 호리며

<金光 2:6-8>

譬 七寶樓觀ᄀᆞ十 四階道ᄂᆞ 有ᄒᆞᄂᆞᄀᆞᄂᆞᆫ 淸凉之風ㅣ 來ᄂᆞᄀᆞᄉᆞ 四門ᄂᆞᆫ 吹尸 如ᄒᆞᆫ 是ᄂᆞ 如ᄒᆞᆫ 第五心ㅣ 上ᄒᆞ 種種ᄒᆞ 功德法藏ᄀᆞ十 猶ㅣ 滿足ᄂᆞ尸 未ㅣᄉᆞᄒᆞᄂᆞ?[24] 是ᄂᆞᆫ 名下 禪波羅蜜因ㅡᄂᆞᄒᆞᆺ

譬 七寶樓觀아기 四階道ᄂᆞ 잇ᄒᆞᆯ 淸凉之風이 來ᄒᆞ아곰 四門을 붋다히 이 다히 第五心이 읏 갓갓 功德法藏아기 오히(猶ㅣ) 滿足ᄒᆞᆷ 未ㅣᄉᆞᄒᆞᄂᆞ? 이를 일하 禪波羅蜜因여 호리며

<金光 2:8-10>

譬 日輪ㅣ 光耀熾盛ᄂᆞᄀᆞ 如ᄒᆞᆫ 是 如ᄒᆞᆫ 第六心ㅣ 能ᄀᆞ 生死大闇ᄂᆞᆫ 破滅ᄂᆞᄃᆞᄀᆞᄉᆞᄆᆞ 故ᄂᆞ 是ᄂᆞᆫ 名下 般若波羅蜜因ㅡᄂᆞᄒᆞᆺ

譬 日輪이 光耀熾盛ᄒᆞᆫ 다히 이 다히 第六心이 能ᄀᆞ(시르며?) 生死大闇올 破滅ᄒᆞ건 ᄃᆞ로 [故ᄂᆞ] 이롤 일하 般若波羅蜜因여 호리며

<金光 2:10-13>

譬 大富商主ㅣ 能 一切 心願ᄂᆞᆫ 滿足 令ㅣ尸 如ᄒᆞᆫ 是 如ᄒᆞᆫ 第七心ㅣ 能ᄀᆞ 得ᄀᆞᄉᆞ 生死險惡道ᄂᆞ、 度[令]ㅣᄃᆞᄀᆞᄉᆞᄆᆞ 故ᄀᆞ 能ᄀᆞ 多ㅣᄀᆞ 功德寶ᄂᆞᆫ 得ㅣ 令ㅣᄃᆞᄀᆞᄉᆞᄆᆞ 故ᄂᆞ 是ᄂᆞᆫ 名下 方便勝智波羅蜜因ㅡᄂᆞᄒᆞᆺ

譬 大富商主ㅣ 能 一切 心願을 滿足ᄒᆞᆷ 다히 이 다히 第七心이 시르며 시러곰 生死險惡道롤 건내건 ᄃᆞ로 故며 시르며 多ㅣᄀᆞ(하인?) 功德寶롤 얻이 히건 ᄃᆞ로 [故ᄂᆞ] 이롤 일하 方便勝智波羅蜜因여 호리며

---

24) '未ㅣᄉᆞᄒᆞᄂᆞ'의 마지막 구결자가 'ᄂᆞ'(호)가 과연 정확한 구결자인지 아니면 잘못 기입한 것인지 아니면 생략된 표기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런 토가 아주 드물다는 점과 마지막 구결자 'ᄂᆞ'자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만일 '未ㅣᄉᆞᄒᆞ'이고 마지막에 오른 쪽으로 빼친 'ᄂᆞ'가 구결자가 아니라면 '아니 힛-' 정도로 읽을 수 있다.

<金光 2:13-14>

譬 月ㅣ 淨ㅅ ᄀᆞᄉᆞ 圓滿ᄒᆞᆫ 如ᄒᆞᆫ 是 如ᄒᆞᆫ 第八心ㅣ 一切 境界ᄀᆞ 清淨 具足ᄒᆞᄃᆞᆨ ᄉᆞᆷ 故ㅅ 是ᄂᆞ 名下 願波羅蜜因ㅡㅅ ᄒᆞᆫᄃᆞ

譬 ᄃᆞᆯ이 淨ᄒᆞ아곰 圓滿ᄒᆞᆫ 다히 이 다히 第八心이 一切 境界아기 清淨 具足ᄒᆞ건 ᄃᆞ로 [故ㅅ] 이ᄅᆞᆯ 일하 願波羅蜜因여 호리며

<金光 2:15-17>

譬 轉輪聖王ㅋ 主兵寶臣ㅣ 意ᄂᆞ 如ㅅ 處分ᄒᆞᆫ 如ᄒᆞᆫ 是 如ᄒᆞᆫ 第九心ㅣ 善能 清淨 佛土ᄂᆞ、 莊嚴ᄒᆞᆫ 功德ᄉᆞᆷ 普洽ᄀᆞᄉᆞ 廣ㅣ 一切ᄂᆞ 利ᄒᆞ(ㅣ)ᄒᆞᆫᄃᆞᆨ ᄉᆞᆷ[25] 故ㅅ 是ᄂᆞ 名下 力波羅蜜因ㅡㅅ ᄒᆞᆫᄃᆞ

譬 轉輪聖王의 主兵寶臣이 意를 如ㅅ 處分ᄒᆞᆯ 다히 이 다히 第九心이 善能 清淨 佛土ᄅᆞᆯ 莊嚴ᄒᆞ며 功德으로 普洽ᄒᆞ아곰 너비 一切를 利ᄒᆞ며 ᄒᆞ건 ᄃᆞ로 [故ㅅ] 이ᄅᆞᆯ 일하 力波羅蜜因여 호리며

<金光 2:17-19>

譬 虛空ㅡ 及 轉輪聖王ㅡㅅ ᄒᆞᆫᄃᆞ 如ᄒᆞᆫᄉᆞᄀᆞ 是 如ᄒᆞᆫ 第十心ㅣ [於]一切境界ᄀᆞ 皆 悉ᄀᆞ 通達ᄒᆞᄃᆞᆨ ᄉᆞᆷ 故ㅅ 是ᄂᆞ 名下 智波羅蜜因ㅡㅅ ᄒᆞᆫᄃᆞ ㅣ

譬 虛空여 및 轉輪聖王여 ᄒᆞᆯ 다ᄒᆞ아 이 다히 第十心이 [於]一切境界아기 皆 다 通達컨 ᄃᆞ로 [故ㅅ] [於]一切法 自在 灌頂位아기 至 故ㅅ(고로) 이ᄅᆞᆯ 일하 智波羅蜜因여 호리다

<金光 2:20>

佛 言 善男子ᄀᆞ 是 如ᄒᆞᆫᄉᆞᄀᆞ 十種ᄂᆞ 菩薩摩訶薩ㄲ 菩提心因ㅡㅅ ᄒᆞᆫᄂᆞᆨᄀᆞㅣㅣ

---

25) '利ㅅ ᄒᆞᆫᄃᆞᆨ ᄉᆞᆷ'가 처음 기입한 정확한 吐이다. '利ㅅ-'의 'ㅅ' 字 위에 'ㅣ'를 다시 쓰넣은 것처럼 보인다.

佛 言 善男子아 이 다ᄒᆞᆫ 十種ᄋᆞᆯ 菩薩摩訶薩ᄃᆞᆫ 菩提心因여 호리견이다

10가지 波羅蜜을 成就하기 위한 五種法

<金光 2:21>

佛 言ᄒᆞ니ᄃᆞ 善男子ᄋᆞ 五種法ㄴᆞᆯ 依ᄒᆞ 菩薩摩訶薩 檀波羅蜜ㅣ 成就ᄒᆞ나ᄒᆞᆫᄃᆡ

佛 言ᄒᆞ니ᄃᆞ 善男子아 五種法을 븥어 菩薩摩訶薩 檀波羅蜜를 成就ᄒᆞ겸짜

<金光 2:22-23>

何ᄃᆡᄒᆞᆫᄀᆞᆫ 者 [爲]五ᄅᆡ ᄒᆞᄅᆞᄂᆞᆫᄉᆞᄅᆞᄂᆞᆫᄃᆞᆫ ᄉᆞᄅᆞᄂᆞᆫᄃᆞᆫ ᄒᆞᄂᆞᆫᄀᆞᆫ 一者 信根ㅣᄂᆞᆫᄀᆞ 二者 慈悲ㅣᄂᆞᆫᄀᆞ 三者 求欲心 無ᄀᆞ 四者 一切 衆生ㅣ 攝受ᄂᆞᆫᄀᆞ 五者 一切 智智ㅣ 願求ᄂᆞᆫᄀᆞᄂᆞᆫᄃᆞᆫ 矣ᄂᆞᆫᄀᆞ ᄅᆡㅣ

엇ᄒᆞᆫᄋᆞᆯ [者] [爲]五이기(익) 코오리고 ᄒᆞ겷 ᄃᆞᆫ 一者 信根을 ᄒᆞ며 二者 慈悲를 ᄒᆞ며 三者 求欲心 없으며 四者 一切 衆生ᄋᆞᆯ 攝受ᄒᆞ며 五者 一切 智智를 願求ᄒᆞ며 홇 디견이다

<金光 2:24>

善男子ᄋᆞ 是 五法ㄴᆞᆯ 依ᄒᆞ 檀波羅蜜ㄴᆞ 能ᄀᆞ 得ᄂᆞᄒᆞᄉᆞ 成就ᄒᆞ나ᄒᆞᆫᄃᆡ

善男子아 이 五法을 븥어 檀波羅蜜을 시르며 得ᄒᆞ아곰 成就ᄒᆞ겸짜

<金光 2:25>

佛ᄀᆞ 言ᄒᆞ니ᄃᆞ 善男子ᄋᆞ 是 五法ㄴᆞᆯ 依ᄒᆞ 菩薩摩訶薩ᄀᆞ 尸波羅蜜ㄴᆞ 成就ᄒᆞ나ᄒᆞᆫᄃᆡ

佛은 言ᄒᆞ니ᄃᆞ 善男子아 이 五法을 븥어 菩薩摩訶薩ᄋᆞᆫ 尸波羅蜜을 成就ᄒᆞ겸짜

<金光 3:1-4>

何ㅅㄱㄴ[者] [爲]五ㄲㅏㅂㅁㅇ仝ㅁㅅㄴㅓㄲㅓㅅㄱ 一者 三業 淸淨ㅅ가 二者 一切 衆生ㅋ 爲ㅑㅎ 煩惱 因緣ㄴ 作ㅅㄲ 不多ㅅ가 三者 諸 惡道ㄴ 斷ㅅㅁ 善道(門ㄴ) 開ㅅ가 四者 [於]聲聞ㅗ 緣覺ㅗㅅㄲㅓㅋ[之] 地ㄴ 過ㅅ가 五者 一切 (功德願 滿足)ㅅㅊㅓㅅㄲㅓㅅㅅ 故ㅅㅅㄲㅓ矢ㅅㄱㄲㅣㅣ

엇ᄒᆞᆯ [者] [爲]五이기 코오리고 ᄒᆞ겷 ᄃᆞᆫ 一者 三業 淸淨ᄒᆞ며 二者 一切 衆生의 삼 煩惱 因緣을 作ᄒᆞᆷ 안ᄃᆞᆯ ᄒᆞ며 三者 모ᄃᆞᆫ 惡道ᄅᆞᆯ 斷ᄒᆞ고 善道(門을) 開ᄒᆞ며 四者 [於]聲聞여 緣覺여 ᄒᆞᆷ의[之] ᄯᅩᄒᆞᆯ 過ᄒᆞ며 五者 一切 功德願 滿足ᄒᆞ더 ᄒᆞᆷ ᄃᆞ로 [故ㅅ] ᄒᆞᆷ 디견이다

<金光 3:4-5>

善男子ㅈ 是 五法ㄴ 依ㅈ 尸波羅蜜ㄴ (能가 得ㅅㅈㅎ 成就ㅅㄴㅎㅊㅣ)

善男子아 이 五法을 븥어 尸波羅蜜ᄋᆞᆯ (시르며 得ᄒᆞ아곰 成就ᄒᆞ겸짜)

<金光 3:5-6>

佛ㄱ 言乃ㄴㅓ 善男子ㅈ 又 五法ㄴ 依ㅈ 菩薩摩訶薩ㄱ 屠提波羅蜜ㄴ 成就ㅅㄴㅎㅊㅣ

佛은 言乃ㄴㅓ 善男子아 ᄯᅩ 五法을 븥어 菩薩摩訶薩ᄋᆞᆫ 屠提波羅蜜을 成就ᄒᆞ겸짜

<金光 3:6-9>

何ㅅㄱㄴ[者] [爲]五[ㄲㅏㅂㅁㅇ仝ㅁㅅㄴㅓㄲㅓㅅㄱ] 一者 貪膜(煩惱ㄴ) 伏ㅅ가 二者 身命ㄴ 惜ㅓ 不多ㅅㅋ 安樂止息ㅅ仝ㅊ [之] 觀ㄴ 生ㅓ 不多ㅋㅅ가 三者 往業ㄴ 思惟ㅅ가 四者 一切 衆生ㅋ 功德善根ㄴ 成熟ㅅㄲ [爲欲]ㅅ 慈悲心ㄴ 發ㅅ가 五者 甚深無生法忍ㄴ 得ㅈ[爲]ㅅㅅ(ㅓ)矢ㅅㄱㄲㅣㅣ

엇ᄒᆞᆫ올 [者] [爲]五[이기 코오리고 ᄒᆞ겋 ᄃᆞᆫ] 一者 貪瞋(煩惱를) 伏ᄒᆞ며 二者 身命을 앗깋 안ᄃᆞᆯ ᄒᆞ져 安樂止息호릿 [之] 觀올 냃 안ᄃᆞᆯ져 ᄒᆞ며 三者 往業을 思惟ᄒᆞ며 四者 一切 衆生의 功德善根을 成熟히 [爲欲]과 慈悲心을 發ᄒᆞ며 五者 甚深無生法忍을 얻어 [爲]콰 ᄒᆞᆶ 디견이다

<金光 3:10>

善男子ᄋᆞ 是ㄴ 名ㅏ 菩薩摩訶薩ㅣ 羼提波羅蜜ㄴ 成就ㅅ尸丁ノ干ナㄱ ㅣㅣ

善男子아 이ᄅᆞᆯ 일하 菩薩摩訶薩이 羼提波羅蜜을 成就ᄒᆞᆶ뎌 호리견이다

<金光 3:11>

佛 言 善男子ᄋᆞ 又 五法ㄴ 依ᄋᆞ 菩薩摩訶薩ㄱ 毗梨耶波羅蜜ㄴ 成就ㅅナㅎセㅣ.

佛 言 善男子아 ᄯᅩ 五法을 븥어 菩薩摩訶薩은 毗梨耶波羅蜜을 成就ᄒᆞ겸짜

<金光 3:12>

何ㄷ 等ㅅㄱㄴ 爲五

엇 다ᄒᆞᆫ올 爲五

<金光 3:12>

一者 諸 煩惱ㄴ 與ㄷ 得ᄋᆞㅈ 共住ㅅ尸 不冬ㅅ分

一者 諸 煩惱를 다ᄆᆞᆺ 시러곰 共住ᄒᆞᆶ 안ᄃᆞᆯ ᄒᆞ며

<金光 3:13>

二者 福德火ㄷ 具尸 未ハㅅㄱㅣ十ㄱ 得ᄋᆞㅈ 安樂 不冬ㅅ分

二者 福德ᄇᆞᆺ ᄀᆞᄌᆞᆷ 안득 ᄒᆞᆫ 다긘 시러곰 安樂 안ᄃᆞᆯ ᄒᆞ며

<金光 3:13>

三者 一切 難行ノ尸ラ十 厭心し 生尸 不多ソか

三者 一切 難行홇의긔 厭心을 냃 안돌 ᄒᆞ며

<金光 3:14>

四者 一切 衆生し 利益ソ ᄀᆞ ホ 成就ᄉᆞ リ爲欲人 大慈ᄭᅳ 攝受ソか

四者 一切 衆生올 利益ᄒᆞ아곰 成就히[爲欲]과 大慈로 攝受ᄒᆞ며

<金光 3:15>

五者 不退轉地し、 願求ソかソ尸矢ナ ㄱ リ ㅣ

五者 不退轉地를 願求ᄒᆞ며 홇 디견이다

<金光 3:16>

善男子ᄀᆞ 是し 名下 菩薩摩訶薩ㅣ 毗梨耶波羅蜜し 成就ソ尸丁ノ千ナ ㄱ リ ㅣ

善男子아 이를 일하 菩薩摩訶薩이 毗梨耶波羅蜜을 成就홇뎌 호리견이다

<金光 3:16-17>

佛ㄱ 言乃ニ尸 善男子ᄀᆞ 五法し 又 依ᄀᆞ 菩薩摩訶薩尸 禪那波羅密し 成就ソナ六七ㅣ

佛은 言乃ニ尸 善男子아 五法을 ᄯᅩ 븥어 菩薩摩訶薩ᄄᆞ 禪那波羅密을 成就ᄒᆞ겸싸

<金光 3:18>

(何[七] 等ソㄱし 爲五[リハロノ今ロソナ尸入ㄱ] 一)者 一切 善法し 攝持 不散ソか

(엇 다ᄒᆞᆫ올 [爲]五[이기 코오리고 ᄒᆞ겪 ᄃᆞᆫ 一)者 一切 善法을 攝持 不散ᄒᆞ며

<金光 3:19>
二者 生死 二處ᄋᆞᆞ十 不著ᄂᆞᆫᄀᆞ 解脫ᄉᆞᄇᆡᄂᆡᄀᆡ
二者 生死 二處아ᄌᆡ 不著ᄒᆞ며 解脫힛뎌

<金光 3:19>
三者 願ᄂᆞᆞᄒᆞ 神通ᄂᆡ 得ᄋᆞ 衆生ᄋᆞᆨ 善根ᄂᆡ 成就ᄉᆞᄇᆡ[爲]ㅅᄂᆞᆫᄆᆞᄉᆞ 故ㅣᄂᆞᆫᄀᆞ
三者 願ᄒᆞ아곰 神通올 얻어 衆生의 善根을 成就히[爲]과 홇 ᄃᆞ로 [故ㅣ] ᄒᆞ며

<金光 3:20>
四者 發心ᄂᆞᆞᄒᆞ 法界ᄂᆡ 洗浣ᄂᆞᆞ 心ᄂᆡ 淸淨ᄉᆞᄇᆡ[爲]ㅅᄂᆞᆫᄆᆞᄉᆞ 故ㅣᄂᆞᆫᄀᆞ
四者 發心ᄒᆞ아곰 法界를 洗浣ᄒᆞ아 心을 淸淨히[爲]과 홇 ᄃᆞ로 [故ㅣ] ᄒᆞ며

<金光 3:21>
五者 衆生ᄋᆞᆨ 一切 煩惱根ᄂᆡ 斷ᄉᆞᄇᆡ[爲]ㅅᄂᆞᆫᄆᆞᄉᆞ 故ㅣᄂᆞᆫᄆᆞᄉᆞᄋᆞᆨᄀᆞᄇᆡᄂᆡ
五者 衆生의 一切 煩惱根을 斷히[爲]과 홇 ᄃᆞ로 [故ㅣ] 홇 디견이다

<金光 3:22>
善男子ᄋᆞ 是ᄂᆡ 名ᄒᆞ 菩薩摩訶薩ᄇᆡ 禪那波羅密ᄂᆡ 成就ᄂᆞᆫᄆᆞᄒᆞᄀᆞᄒᆞᄀᆞᄇᆡᄂᆡ
善男子아 이ᄅᆞᆯ 일하 菩薩摩訶薩이 禪那波羅密을 成就홇뎌 호리견이다

<金光 3:22-23>

佛ㄱ 言ᄒᆞ니ᄃᆞ 善男子ㅣ 又 五法 有ᄒᆞ나ㅣ 菩薩摩訶薩ㅣ 般若波羅蜜ㅣ 成就ᄒᆞ샤ㅣ

佛은 言ᄒᆞ니ᄃᆞ 善男子아 또 五法 잇겨다 菩薩摩訶薩이 般若波羅蜜을 成就호리여

<金光 3:24-25>

云何ᄋᆞㄱㅣ 爲五 一者 一切 諸佛ㅣ 菩薩ㅣ 聰慧大智ㅣ니ㄱㅣㅣᄋᆞᄃᆞ ㅣ 供養ᄋᆞᄒᆞ 親近ᄋᆞᄒᆞᄋᆞ白ᄋᆞᄃᆞᄆᆞ 心ㅣ十 厭足ᄋᆞᄃᆞ 無ᄀᆞ

[云]엇ᄒᆞᄋᆞᆯ 爲五 一者 一切 諸佛여 菩薩여 聰慧大智이신이여 ᄒᆞᆷᄋᆞᆯ 供養ᄒᆞ져 親近ᄒᆞ져 ᄒᆞᄉᆞᆷᄋᆞᆷ ᄃᆡ ᄆᆞᄉᆞᆷ아기 厭足ᄒᆞᆷ 없으며

<金光 3:25-4:1>

二者 諸佛如來ᄃᆞ 說白ᄋᆞㄱ 甚深法ㅣ 心ㅣ十 常ㅣ 樂ᄋᆞ 聞白ᄋᆞᄃᆞᄆᆞ 厭足ᄋᆞᄃᆞ 無有ᄒᆞᄀᆞ

二者 諸佛如來ᄄᆞ 니르ᄉᆞᆷ온 甚深法을 心아기 덛더디 樂ᄋᆞ(*랍오)[26] 듣ᄉᆞᆷᄋᆞᆷ ᄃᆡ 厭足ᄒᆞᆷ 無 잇으며

<金光 4:1>

---

26) 일반적으로 중세어에서 '樂'은 타동사 '즐기-'나 형용사 '즐겁-' 정도로 언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樂'을 '라온'으로 언해한 몇 예가 몇 개 남아 있어 주목을 끈다.

一切 라온 거시 그 中에 ᄀᆞᄃᆞᆨᄒᆞ야(一切樂具充滿其中) <法華 5:202>

人生애 슬프며 라온 이리 서르 半만 ᄒᆞ니(人生半哀樂) <杜初 7:25>

엇디 납디 아니ᄒᆞ료(豈不樂哉里午) <정속언해 25>

이런 중세어 자료를 고려한다면 '樂ᄋᆞ'가 '라온'과 관련된 '*랍오, 라보'와 관련된 어형일 가능성이 높다. '라온'이 고려가요에도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樂ᄋᆞ'가 '라온'과 관련될 가능성은 그 만큼 더 커진다.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樂ㆆ'로 표기된다. '樂ㆆᄋᆞㅣㅸ', '樂ㆆᄋᆞᄃᆞ', '樂ㆆᄂᆞᆺᄀᆡ' 등.

三者 眞俗勝智ㅣᄂᆞᆫᄀᆞ
三者 眞俗勝智ᄅᆞᆯ ᄒᆞ며

<金光 4:2>
四者 見思煩惱ㅣ 是 如ᄎᆞᄂᆞᆫᄀᆞ 勝智ᄭᅴ 能ᄀᆞ 分別ᄂᆞᆫᄃᆞ 斷ᄂᆞᆫᄀᆞ
四者 見思煩惱ᄅᆞᆯ 이 다ᄒᆞᆫ 勝智로 能ᄀᆞ(시르며) 分別ᄒᆞ아 斷ᄒᆞ며

<金光 4:3>
五者 [於]世間ㅅ 五明ㅅ [之]法ᄃᆞ 十 皆 悉ᄃᆞ 通達ᄂᆞᆫᄀᆞᆫᄆᆞᆺᄎᆞᆫᄀᆞ ᄆᆡᆨᆡ
五者 [於]世間ㅅ 五明ㅅ [之]法아기 皆 다 通達ᄒᆞ며 ᄒᆞᆷ디 견이다

<金光 4:3>
善男子ᄃᆞ 是ㅣ 名ᄒᆞ 菩薩摩訶薩ᄆᆡ 般若波羅蜜ㅣ 成就ᄂᆞᆫᄆᆞᆺᄐᆞᆫᄂᆞᆺᄎᆞᆫᄀᆞ ᄆᆡᆨᆡ
善男子아 이ᄅᆞᆯ 일하 菩薩摩訶薩이 般若波羅蜜을 成就ᄒᆞᆷ뎌 호리견이다

<金光 4:4-5>
佛 言 善男子ᄃᆞ 又 五法ㅣ、 依ᄃᆞ 菩薩摩訶薩ᄆᆡ 方便勝智波羅蜜ㅣ 成就ᄂᆞᆫᄉᆞᄉᆞᄎᆡᆨᆡ
佛 言 善男子아 ᄯᅩ 五法을 븥어 菩薩摩訶薩이 方便勝智波羅蜜을 成就ᄒᆞ겸짜

<金光 4:5-6>
何者 爲五 一者 [於]一切 衆生ㅅ 意慾煩惱行ㅅᄂᆞᆫᄉᆞᆫᄉᆞᆫ 心 悉ᄃᆞ 通達ᄂᆞᆫᄀᆞ
엇ᄒᆞᄋᆞᆯ [者] [爲]五[이기 코오리고 ᄒᆞ겷 ᄃᆞᆫ] 一者 [於]一切 衆生여 意慾煩惱行여 호리긔 ᄆᆞᅀᆞᆷ 다 通達ᄒᆞ며

<金光 4:6-7>

二者 量 無ㅅㄱ 對治ㅗ 諸法ㅗㅅ仝ㄷ [之]門ㅣ 心ㅇㅓㅏ 皆 曉了ㅅ가

二者 量 無ᄒᆞᆫ 對治여 諸法여 ᄒᆞ릿 [之]門을 心아기 닷 曉了ᄒᆞ며

<金光 4:7-8>

三者 大慈大悲ㅠ 入出ㅅ尸ㅁ 自在ㅎㅅ가

三者 大慈大悲로 入出홇 ᄃᆡ 自在히 ᄒᆞ며

<金光 4:8-9>

四者 [於]摩訶波羅蜜ㅇㅓㅏ 多ㅐ 能가 修行ㅅㅇㅓ成就滿足ㅅ尸入ㅣ 悉ㅇㅓ 皆ㄷ 願求ㅅ가

四者 [於]摩訶波羅蜜아기 해 시르며 修行ᄒᆞ아 成就滿足홇 ᄃᆞᆯ 다 닷 願求ᄒᆞ며

<金光 4:9-10>

五者 一切 佛法ㅣ 了達攝受ㅅ尸入ㅣ 皆 悉 願求ㅅ가ㅅ尸矢ナㄱㅐㅣ

五者 一切 佛法을 了達攝受홇 ᄃᆞᆯ 皆 悉 願求ᄒᆞ며 홇 ᄃᆡ견이다

<金光 4:10-11>

善男子ㅇㅓㅏ 是ㅣ 名下 菩薩摩訶薩ㅐ 方便勝智波羅蜜ㅣ 成就ㅅ尸丁ノ孑ナㄱㅐㅣ

善男子아 이ᄅᆞᆯ 일하 菩薩摩訶薩이 方便勝智波羅蜜을 成就홇뎌 호리견이다

<金光 4:11>

佛 言 善男子 五法 又 有ㄷナㅣ 菩薩摩訶薩ㅐ 願波羅蜜ㅣ 成就ノ孑ㅗ

佛 言 善男子 五法 ᄯᅩ 잇겨다 菩薩摩訶薩이 願波羅蜜을 成就호리여

<金光 4:12-13>

何者 爲五ㅣㅅ 一者 [於]一切法ㅣ 本ᄆᆞᄆᆞᄐᆞ 來ᄂᆞᄀᆞᄑᆞᄆᆞᆷ?27) 不生ᄂᆞᆫ 不滅ᄂᆞᆫ 不有ᄂᆞᆫ 不無ᄂᆞᆫᄂᆞᄀ 心ᄅᆞᄒᆞ 安樂ᄒᆞ 住ᄂᆞᆺ

何者 [爲]五이기 一者 [於]一切法이 본ᄃᆡ롯 來ᄒᆞᆫ ᄃᆡ 不生ᄒᆞ져 不滅ᄒᆞ져 不有ᄒᆞ져 不無ᄒᆞ져 ᄒᆞᆫ 心의긔 安樂히 住ᄒᆞ며

<金光 4:14>

二者 一切 諸法ㅣ 最妙ᄂᆞᆞᄉᆞ 一切 垢 淸淨ᄂᆞᄀᆞ入ᄂᆞ、 觀 心得ᄂᆞᆞᄉᆞ 安住ᄂᆞᆺ

二者 一切 諸法이 最妙ᄒᆞ아곰 一切 垢 淸淨ᄒᆞᆫ ᄃᆞᆯ 觀 心得ᄒᆞ아곰 安住ᄒᆞ며

<金光 4:15>

三者 一切相ᄂᆞ 過 心如如ᄂᆞᄂᆞᆞ 無作ᄂᆞᆫ 無行ᄂᆞᆫ 不異ᄂᆞᆫ 不動ᄂᆞᆫᄂᆞᆞᄉᆞ 安心於如

三者 一切相ᄋᆞᆯ 過 心如如ᄅᆞᆯ ᄒᆞ아 無作ᄒᆞ져 無行ᄒᆞ져 不異ᄒᆞ져 不動ᄒᆞ져 ᄒᆞ아곰 安心於如

<金光 4:16>

四者 衆生ᄂᆞ 利益ᄂᆞ[爲]ㅅᄂᆞᄒᆞᄂᆞ 事ᄆᆞᄆᆞ [於]俗諦中ᄂᆞᆞᄒᆞ 得ᄂᆞᆞᄉᆞ 安心住(ᄂᆞᆺ)

---

27) '來ᄂᆞᄀᆞᄑᆞᄆᆞᆷ'처럼 보인다. 『금광명경』에 기입된 吐 중에는 잘못 기입되거나 불확실한 것이 간혹 보인다. 이런 것은 『金光明經』에 토가 어떻게 기입되었나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金光明經』에 기입된 석독구결은 이 경을 해석한 스님이 직접 토를 단 것이 아니고 제자나 다른 사람이 스승이나 이 경전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의 해석을 들으면서 기입했거나 吐가 달린 다른 자료를 보고 베꼈을 가능성이 높다. '來ᄒᆞᆫ ᄃᆡ' 정도가 자연스럽다.

四者 衆生올 利益ᄒᆞ[爲]과 혼ᄃᆞᆺ 일로 [於]俗諦中아기 시러곰 安心住(ᄒᆞ며)

<金光 4:17>

五者 [於]奢摩他ㅅ 毗鉢舍那ㅅㄴᆞᄉᆞㅓ 同時ᄀᆞ 能ᄀᆞ 住ᄂᆞᆫᄀᆞᄂᆞᆯᄉᆞᄂᆞᆫᄀᆞ ㅣㅣ

五者 [於]奢摩他여 毗鉢舍那여 호리긔 同時아기 시르며 住ᄒᆞ며 홇 디 견이다

<金光 4:18>

善男子 是ㄴ 名ㅏ 菩薩摩訶薩ㅣ 願波羅蜜ㄴ 成就ᄂᆞᆫᄃᆞᆫᄀᆞᄒᆞᄂᆞᆫᄀᆞ ㅣㅣ

善男子 이를 일하 菩薩摩訶薩이 願波羅蜜을 成就홇뎌 호리견이다

<金光 4:19>

佛ᄀᆞ 言ㅣㄴᆞᆫᄃᆞ 善男子ᄀᆞ 此 五法ㄴ 依ᄀᆞ 菩薩摩訶薩ㅣ 力波羅蜜ㄴ 成就ᄂᆞᆫᄂᆞᄒᆞᄉᆞㅣ

佛은 言ㅣㄴᆞᆫᄃᆞ(내싫, 뇌싫?) 善男子아 이 五法을 븥어 菩薩摩訶薩이 力波羅蜜을 成就ᄒᆞ겸짜

<金光 4:20-21>

何者 [爲]五 一者 一切 衆生ᄋᆞ 心行險惡 智力ᄆᆞᆫ 能ᄀᆞ 解ᄂᆞᆫᄀᆞ

何者 [爲]五 一者 一切 衆生의 心行險惡 智力으로 能ᄀᆞ(시르며) 解ᄒᆞ며

<金光 4:21>

二者 能ᄀᆞ 一切 衆生ㄴ [於]甚深ᄂᆞᆫᄇᆞᄂᆞᆫᄉᆞ [之]法ᄀᆞ 入[令]ㅣᄀᆞ

二者 能ᄀᆞ 一切 衆生올 [於]甚深ᄒᆞᄂᆞᆺ [之]法아기 들이며

<金光 4:22>

三者 一切 衆生ㅣ 生死ᄒᆞ야 往還ᄒᆞ야ᄆᆞᆷ 其 因緣ᄒᆞ 隨ᄒᆞᄂᆞᆫᄃᆞᆨᄒᆞᆫᄃᆞᆨ 入ᄒᆞ 是 如ᄒᆞᆫ 見知ᄒᆞᄂᆞᆫ가

三者 一切 衆生이 生死아ᄀᆡ 往還ᄒᆞᆷ ᄃᆡ 其 因緣을 조초 ᄒᆞ누온 ᄃᆞᆯ 이 다히 見知ᄒᆞ며

<金光 4:23>

四者 [於]一切 衆生ᄋᆞᆫ 三聚ᄒᆞ야 智力ᄋᆞᆫ 能가 分別ᄒᆞᄂᆞᆫ 知가

四者 [於]一切 衆生의 三聚아ᄀᆡ 智力으로 시르며 分別ᄒᆞ아 알며

<金光 4:24>

五者 理ᄒᆞ 如[ ] 種ᄉᆞᆫㅣ[爲]ᄉᆞᆫᄃᆞᆨ 熟ᄉᆞᆫㅣ[爲]ᄉᆞᆫᄃᆞᆨ 脫ᄉᆞᆫㅣ[爲]ᄉᆞᆫᄃᆞᆨᄒᆞᆫᄃᆞᆨ

五者 理를 如[ ] 種히[爲]과 ᄒᆞ져 熟히[爲]과 ᄒᆞ져 脫히[爲]과 ᄒᆞ져 ᄒᆞ아

<金光 4:24>

是 如ᄒᆞᆫ 說法ᄒᆞᆫᄃᆞᆨᄆᆞᆷ 智力ᄋᆞᆫ 故ᄒᆞᄂᆞᆫᄃᆞᆨ矣ᄂᆞᆨㅣㅣㅣ

이 다히 說法ᄒᆞᆷ ᄃᆡ 智力으로 [故ᄒᆞᄂᆞᆫ] ᄒᆞᆷ 디견이다

<金光 4:24-25>

善男子 是ᄒᆞ 名ᄒᆞᆫ 菩薩摩訶薩ㅣ 力波羅蜜ᄒᆞ 成就ᄒᆞᄂᆞᆫᄃᆞᆨᄐᆞᆫᄒᆞᄂᆞᆫᄂᆞᆨㅣㅣㅣ

善男子 이ᄅᆞᆯ 일하 菩薩摩訶薩이 力波羅蜜을 成就ᄒᆞᆷ더 호리견이다

<金光 4:25-5:1>

佛ㄱ 言ㅣㄴᄃᆞᆨ 善男子 復 五法 有ᄒᆞᄂᆞᆨㅣ 菩薩摩訶薩ㅣ 修行ᄒᆞᄂᆞᆫᄀᆞᆺ 智波羅蜜(ᄒᆞᄂᆞᆫ) 成就ᄒᆞᄂᆞᆫᄂᆞᆨㅗ

佛은 言ㄲㄴㄱ(뇌싫?) 善男子 復 五法 잇겨다 菩薩摩訶薩이 修行ᄒᆞ아곰 智波羅蜜(을) 成就호리여

<金光 5:2-3>

何等 [爲]五ㄲㅅ 一七十 者 [於]一體 法ᄀᆞ十 善惡ㄴ 分別ㅅㄱㅁ 智能 具足ㅅᄀᆞ

何等 [爲]五이기 一七十 者 [於]一體 法아기 善惡을 分別홇 ᄃᆡ 智 能 具足ᄒᆞ며

<金光 5:3>

二者 [於]黑白法ᄀᆞ十 遠離ㅅᄒᆞ 攝受ㅅᄒᆞᄉᆞㄲㅅㄱㅁ 智 能 具足ㅅᄀᆞ

二者 [於]黑白法아기 遠離ᄒᆞ져 攝受ᄒᆞ져 히옳 ᄃᆡ 智 能 具足ᄒᆞ며

<金光 5:4>

三者 [於]生死 涅槃ᄀᆞ十 不厭ㅅᄒᆞ 不喜ㅅᄒᆞᄉᆞㄲㅅㄱㅁ 智 能 具足ㅅᄀᆞ

三者 [於]生死 涅槃아기 不厭ᄒᆞ져 不喜ᄒᆞ져 히옳 ᄃᆡ 智 能 具足ᄒᆞ며

<金光 5:5>

四者 大福德ㄴ 行ㅗ 大智慧ㄴ 行ㅗㅅㄱㅁㄴㅠ 得ᄀᆞᄉᆞ 究竟ᄀᆞ十 度ㅅㄱㅁ 智 能 具足ㅅᄀᆞ

四者 大福德ㅅ 行여 大智慧ㅅ 行여 홇ᄋᆞ로 시러곰 究竟아기 度홇 ᄃᆡ 智 能 具足ᄒᆞ며

<金光 5:6-7>

五者 一切 諸佛ㄴ 不共法等ㅅㄱㅣㅗ 及ㅅ 一切 智智ㅗㅅㄱㅅ十 灌頂 智 能 具足ㅅᄀᆞㅅㄱㅁ矢ㄴㄱㅣㅣ

五者 一切 諸佛ㅅ 不共法等ᄒᆞ이여 ᄆᆡᆨ 一切 智智여 호리긔 灌頂 智能 具足ᄒᆞ며 ᄒᆞᆷ 디견이다

<金光 5:7>
善男子ᄋᆞ 是ㄴ 名ᄒᆞ 菩薩摩訶薩ㅣ 智波羅蜜ㄴ 成就ᄂᆞᆫᄆᆞ丁ノオナㄱㅣㅣ
善男子아 이ᄅᆞᆯ 일하 菩薩摩訶薩이 智波羅蜜을 成就ᄒᆞᆷ뎌 호리견이다

17가지 波羅蜜義(05:08-05:23)

<金光 5:8>
佛ㄱ 言乃ニᄆᆞ 善男子ᄋᆞ 何ᄂᆞㄱㄴ[者] 波羅蜜義ㅣハソロノ仝ロソナオᄆᆞ入ㄱ
佛은 言乃ニᄆᆞ 善男子아 엇ᄒᆞᆫ올 波羅蜜義이기 ᄒᆞ고오리고 ᄒᆞ겨릻 ᄃᆞᆫ

<金光 5:8-9>
行道ㄴ 勝利ㄴᆞᆫᄆᆞ矢 是波羅蜜義ㅣ分
行道ㅅ 勝利를 ᄒᆞᆷ 디 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9>
大甚深智ㄴ 滿足ᄂᆞᆫᄆᆞ矢 是波羅蜜義ㅣ分
大甚深智ᄅᆞᆯ 滿足ᄒᆞᆷ 디 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10>
行非行ㄴ 法ㄴ 心ᄋᆞ十 執著 不多ᄂᆞᆫᄆᆞ矢 是波羅蜜義ㅣ分
行非行올 法을 ᄆᆞᄉᆞᆷ아기 執著 안ᄃᆞᆯᄒᆞᆷ 디 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10-11>

生死ㄱ 過失ㅣ라 涅槃 功德ㅣㄱㅣ ᄒᆞ야ᄉᆞᆫ 正覺正觀ㅅᄋᆞ로ᄆᆞᆺ 是波羅蜜義ㅣ라

生死(죽사리)ᄂᆞᆫ 過失이며 涅槃 功德인이앗다 ᄒᆞ아 正覺正觀ᄒᆞᆷ 디 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11-12>

愚人ㅅ 智人ㅅᄋᆞ로ᄆᆞᆫ 皆悉ᄒᆞ야 攝受ㅅᄋᆞ로ᄆᆞᆺ 是波羅蜜義ㅣ라

愚人여 智人여 ᄒᆞᆷ올 다 攝受ᄒᆞᆷ 디 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12-13>

能라 種種ㅅ 珍妙法寶ᄒᆞ 現ㅅᄋᆞ로ᄆᆞᆺ 是波羅蜜義ㅣ라

시르며 갓갓 珍妙法寶ᄅᆞᆯ 現ᄒᆞᆷ 디 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13>

無礙人 解脫人ㅅ 智ᄒᆞ 滿足ㅅᄋᆞ로ᄆᆞᆺ 是波羅蜜義ㅣ라

無礙와 解脫왓 智ᄅᆞᆯ 滿足ᄒᆞᆷ 디 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14>

法界ㅅ 衆生界ㅅᄋᆞ로ᄆᆞᆫ 正分別ㅅᄒᆞ야 知ㅅᄋᆞ로ᄆᆞᆺ 是波羅蜜義ㅣ라

法界여 衆生界여 ᄒᆞᆷ올 正分別ᄒᆞ아 知ᄒᆞᆷ 디 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14-15>

檀等ㅅㄱㅣㅅ 及智ㅅᄋᆞ로ᄆᆞᆫ 能라 不退轉地ᄒᆞ야ᄉᆞᆨ 至ㅣ 令ㅣㅅᄋᆞ로ᄆᆞᆺ 是波羅蜜義ㅣ라

檀等ᄒᆞᆫ이여 及智여 ᄒᆞᆷ올 시르며 不退轉地아ᄀᆡ 니르리 ᄒᆡ ᄒᆞᆷ 디 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15-16>
能ᄀᆞ 無生法忍ᄒᆞ 滿足 令ᄒᆡᄂᆞᆫᄃᆞ矣 是波羅蜜義ᄒᆡᄀᆞ
시르며 無生法忍을 滿足히 ᄒᆞᆷ 디 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16-17>
一切衆生ᄋᆞ 功德善根ᄒᆞ 能ᄀᆞ 成熟 令ᄒᆡᄂᆞᆫᄃᆞ矣 是波羅蜜義ᄒᆡᄀᆞ
一切衆生이 功德善根을 시르며 成熟 히ᄒᆞᆷ디 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17-18>
[於]菩提道場ᄋᆞᄒᆞᆫᄂᆞᆫᄋᆞ 佛慧ㅅ 十力ㅅ 四無所畏ㅅ 不共法ㅅ 等ᄂᆞᆨᄒᆞ
成就ᄂᆞᆫᄃᆞ矣 是波羅蜜義ᄒᆡᄀᆞ
菩提道場아긔 ᄒᆞ아 佛慧여 十力여 四無所畏여 不共法여 다ᄒᆞᆫᄋᆞᆯ 成就
ᄒᆞᆷ 디 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18-19>
生死ᄒᆡᄒᆡ 涅槃ᄒᆡᄒᆡᄂᆞᆫᄃᆞ入ᄀᆞ 皆 是ᄀᆞ 妄見ᄒᆡᄀᆞᆫᄒᆞ 能ᄀᆞ 度ᄂᆞᆫᄃᆞᆷ 餘ᄇᆞᆯ
無ᄂᆞᆫᄀᆞᄒᆡᄂᆞᆫᄃᆞ矣 是波羅蜜義ᄒᆡᄀᆞ
生死이다 涅槃이다 ᄒᆞᆷ 든 닷 이는 妄見인ᄋᆞᆯ 시르며 度ᄒᆞᆷ 디 餘ᄇᆞᆯ 無
ᄒᆞ신 다ᄒᆞᆷ 디 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19-20>
一切ᄒᆞ 濟度ᄂᆞᆫᄃᆞ矣 是波羅蜜義ᄒᆡᄀᆞ
一切ᄅᆞᆯ 濟度ᄒᆞᆷ 디 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20-21>
一切外人ᄒᆡ 來ᄂᆞᆫᄋᆞᄉᆞ 相ᄂᆞ 詰難ᄂᆞᆫᄃᆞᄀᆞᄒᆞ (善能 解釋)ᄂᆞᆫᄋᆞ 其ᄒᆞ 降伏
令ᄒᆡᄂᆞᆫᄃᆞ矣 是波羅蜜義ᄒᆡᄀᆞ

一切 外人이 來ᄒᆞ아곰 서로 詰難ᄒᆞ건을 (善能 解釋)ᄒᆞ아 그를 降伏히홇 디 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21-22>
能ᄀᆞ 十二行法輪ᄂᆞᆯ 轉ᄉᆞᄆᆞ矣 是波羅蜜義ㅣᄀᆞ
시르며 十二行法輪을 轉홇 디 이 波羅蜜義이며

<金光 5:22-23>
著ᄉᆞᄆᆞ 所 無ㄴᆞᆯᄉᆞ 見ᄉᆞᄆᆞ 所 無ㄴᆞᆯᄉᆞ 患累 無ㄴᆞᆯᄉᆞ 異 思惟ᄉᆞᄆᆞ 無ㄴᆞᆯᄉᆞᄉᆞᄆᆞ矣 是波羅蜜義ㅣᄂᆞᆫᄀᆞㅣㅣ
著홇 바 없져 見홇 바 없져 患累 없져 異 思惟홇 없져 홇 디 이 波羅蜜義이젼이다

菩薩十地(05:23-06:22)

<金光 5:23-25>
善男子ᄋᆞ 初菩薩地ᄋᆞᆫᄀᆞ 是相ㅣ 前現ᄉᆞᄀᆞᄆᆞ 三千大千世界ᄋᆞᆫ 量無ㄴᆞᆫᄀᆞ 邊 無ᄉᆞᄀᆞ 種種ㄴᆞ 寶藏ㅣ 皆ㄴᆞ 悉ᄋᆞ 盈滿ㅣᄅᆞㄴᆞᄀᆞ入ᄂᆞ 菩薩ᄀᆞ 悉 見ᄉᆞᄂᆞᄒᆞㄴᆞㅣ
善男子아 初菩薩地아긘 이 相이 前現혼 디 三千大千世界아기 그지 없으며 ᄀᆞᆺ 無ᄒᆞᆫ 갓갓 寶藏이 (닷) 다 盈滿이잇(다) 혼 ᄃᆞᆯ 菩薩ᄋᆞᆫ 다 見ᄒᆞ겸ᄉᆞ다

<金光 5:25-6:2>
善男子ᄋᆞ 菩薩二地ᄋᆞᆫᄀᆞ 是相ㅣ 前現ᄉᆞᄆᆞᄆᆞ 三千大千世界ㄴᆞ 地 平ᄉᆞᄀᆞ矣 掌 如ᄒᆞᆫᄉᆞᄀᆞᄅᆞᄂᆞ 量 無ᄀᆞ 數 無ᄉᆞᄀᆞ 種種ㄴᆞ 妙色ㅣᄀᆞ 淸淨ᄉᆞㅂㄴᆞ[之] 寶ᄆᆞᄉᆞᄀᆞ 莊嚴ㄴᆞ[之] 具ㅣᄉᆞᄋᆞㄴᆞᄀᆞᄂᆞ入ᄂᆞ 菩薩ᄀᆞ 悉ᄋᆞ 見ᄉᆞᄂᆞᄒᆞ

ᄂᆡ

善男子아 菩薩二地아긘 이 相이 前現홇 ᄃᆡ 三千大千世界ㅅ 地 平ᄒᆞᆫ ᄃᆡ 掌 다ᄒᆞᆫ의긔 그지 없으며 數 無ᄒᆞᆫ 갓갓 妙色인 淸淨ᄒᆞᄂᆞᆺ(ᄒᆞᆫᄂᆞᆺ) 寶로 ᄒᆞᆫ 莊嚴ㅅ 具이(ᄀᆞᄌᆡ) ᄒᆞ앗(다) ᄒᆞᆫ ᄃᆞᆯ 菩薩ᄋᆞᆫ 다 見ᄒᆞ겸ㅅ다

<金光 6:2-4>

善男子ᄋᆞ 菩薩三地ᄋᆞ ᅀᅡᆨᄀᆞ 是相ㅣ 前現ノ尸ム 自身ㅣ 勇健ソᄀᆞᄅᆞᅀᅡ 鎧仗ᄆᆞ 莊嚴ソᄋᆞ 一切怨賊し 皆ヒ 能ク 摧伏ᄉᆞㅣトノᄀᆞ入し 菩薩ᄀᆞ 悉ᄋᆞ 見ソナᄒᆞヒᄂᆡ

善男子아 菩薩三地아긘 이 相이 前現홇 ᄃᆡ 自身이 勇健ᄒᆞᆫ의긔 鎧仗ᄋᆞ로 莊嚴ᄒᆞ아 一切 怨賊을 닷 시르며 摧伏히누온 ᄃᆞᆯ 菩薩ᄋᆞᆫ 다 見ᄒᆞ겸ㅅ다

<金光 6:4-6>

善男子ᄋᆞ 菩薩尸 四地ᄋᆞᅀᅡᆨᄀᆞ 是相ㅣ 前現ノᄀᆞム 四方風輪ㅣ 種種ヒ 妙花し 悉ᄋᆞ 皆ヒ 散灑ㅣロᄀᆞ 地上ᄋᆞᅀᅡᆨ 圓滿ᄉᆞヒノᄀᆞ入し 菩薩ᄀᆞ 悉 見ソナᄒᆞヒᄂᆡ

善男子아 菩薩ㅅ 四地아긘 이 相이 前現ᄒᆞᆫ ᄃᆡ 四方 風輪이 갓갓 妙花ᄅᆞᆯ 다 닷 ᄲᅳ리곤 地上아긔 圓滿힛 ᄒᆞᆫ ᄃᆞᆯ 菩薩ᄋᆞᆫ 다 見ᄒᆞ겸ㅅ다

<金光 6:6-8>

善男子 菩薩五地ᄋᆞᅀᅡᆨᄀᆞ 是相ㅣ 前現ノ尸ム 寶女人 如ᄉᆞソᄀᆞㅣ 一切之ヒ 其身頂上し 莊嚴ノ尸ム 散多那花ナ 妙寶瓔珞ナノ尸しᄆᆞ 身首し 貫飾ソᄋᆞヒノᄀᆞ入し 菩薩ᄀᆞ 悉ᄋᆞ 見ソナᄒᆞヒᄂᆡ

善男子 菩薩 五地아긘 이 相이 前現홇 ᄃᆡ 寶女人 다ᄒᆞᆫ 이 一切옛 其身頂上ᄋᆞᆯ 莊嚴홇 ᄃᆡ 散多那花여 妙寶瓔珞여 홇ᄋᆞ로 身首를 貫飾ᄒᆞ앗 ᄒᆞᆫ ᄃᆞᆯ 菩薩ᄋᆞᆫ 다 見ᄒᆞ겸ㅅ다

<金光 6:8-12>

善男子ᄀᆞ 菩薩六地ᄀᆞᆫᄀᆞ 是相ㅣ 前現ㅅᄆᆞᆷ 七寶花池ᄀᆞᆫ 四階道有ᄒᆞᄉᆞ 金沙ㅣ 遍滿ᄂᆞᄀᆞ 淸淨無穢ᄂᆞᄉᆞ 八功德水ㅣ 皆ᄒᆞ 悉ᄀᆞ 盈滿ᄂᆞᄉᆞ 鬱波羅花ᅀᅳ 拘物頭花ᅀᅳ 分陁利花ᅀᅳㅅᄂᆞᄅᆞᆫ 其池ᄂᆞ 莊嚴ᄂᆞᄉᆞᄂᆞᄅᆞᄒᆞᄀᆞᄂᆞ[28] [於]花池所ᄀᆞᆫ 自ᄅᆞ 身ㅣ 遊戲快樂ㅅᄆᆞᆷ 淸淨淸凉無比ᄒᆞᄂᆞᆫᄃᆞᄀᆞ 入ᄂᆞ 菩薩ᄀᆞ 悉ᄀᆞ 見ᄂᆞᄉᆞᄒᆞᄂᆡ

善男子아 菩薩 六地아긘 이 相이 前現홇 ᄃᆡ 七寶花池아기 四階道 잇으며 金沙이 遍滿ᄒᆞ아 淸淨無穢ᄒᆞ며 八功德水이 닷 다 盈滿ᄒᆞ며 鬱波羅花여 拘物頭花여 分陁利花여 홇의긔 그 池ᄅᆞᆯ 莊嚴ᄒᆞ며 ᄒᆞ잇(다) ᄒᆞᆫ올 花池所아기 저의 몸이 遊戲快樂홇 ᄃᆡ 淸淨 淸凉 無比히 ᄒᆞ누온 ᄃᆞᆯ 菩薩은 다 見ᄒᆞ겸ㅅ다

<金光 6:12-15>

善男子ᄀᆞ 菩薩七地ᄀᆞᆫᄀᆞ 是相 前現ㅅᄆᆞᆷ 左邊ᅀᅳ 右邊ᅀᅳㅅᄂᆞᄉᆞᆫᄒᆞᄂᆞᄀᆞ 地獄ᄀᆞᆫ 墮ᄂᆞᄉᆞᅀᅳ? 應ᄉᆞᄂᆞᄉᆞᄂᆡᄀᆞ (菩薩力ᄂᆞ 以) 故ㅅ 還ㅅ 得ᄀᆞᆷ 不墮ᄂᆞᄀᆞ 損傷ㅅᄆᆞᆷ 無有ᄂᆞᄀᆞ 痛惱 無有ᄉᆞᄂᆞᄀᆞᄂᆞᄃᆞᄀᆞ 入ᄂᆞ 菩薩ᄀᆞ 悉ᄀᆞ 見ᄂᆞᄉᆞᄒᆞᄂᆡ

善男子아 菩薩 七地아긘 이 相 前現홇 ᄃᆡ 左邊여 右邊여 호리긔 ᄒᆞ아 地獄아기 墮ᄂᆞᄉᆞᅀᅳ? 應ᄉᆞᄂᆞᄉᆞᄂᆡᄀᆞ[29] (菩薩力을 ᄇᆞᆫ) 故ㅅ 도로 시러곰 不墮ᄒᆞ아 損傷홇 無有ᄒᆞ져 痛惱 없ᄒᆞ져 ᄒᆞ누온 ᄃᆞᆯ 菩薩은 다 보겸ㅅ다

---

28) '莊嚴ᄂᆞᄉᆞᄂᆞᄅᆞᄒᆞᄀᆞᄂᆞ'는 '莊嚴ᄂᆞᄉᆞ ᄂᆞᄅᆞᄒᆞ(ㅣ) (ᄂᆞ)ᄀᆞᄂᆞ' 정도에서 생략된 표기이다.

29) '墮ᄂᆞᄉᆞᅀᅳ? 應ᄉᆞᄂᆞᄉᆞᄂᆡᄀᆞ' 부분은 "[…] 지옥에 떨어짐이 마땅하거든" 정도로 해석되어 의미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구절이지만, 토가 달린 모양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다. 모두 좌토인데 '應' 자 밑에는 'ᄉᆞᄂᆞᄉᆞᄂᆡᄀᆞ'이 분명하고 '墮' 자 밑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 'ᄂᆞᄉᆞᅀᅳ?'가 문제다. 게다가 '應ᄉᆞᄂᆞᄉᆞᄂᆡᄀᆞ'의 마지막 'ᄀᆞ'과 'ᄂᆞᄉᆞ(ㅗ)ᅀᅳ?'의 'ᄂᆞ'가 겹쳐서 표기되어 있다.

<金光 6:15-17>

善男子ㄱ 菩薩八地ㅣ十ㄱ 是相 前現ㅅ尸ㅁ 左邊ㅓ 右邊ㅓㅅ令十 師子ㅣ 臆ㅣ十 長毫ㅅㄱㅣ 獸ㅣㄷ 王ㅣㅠ 一切衆獸ㅣ 悉ㅣ 皆 怖畏ㅅㅣ ㅏㅅㄱ入ㄴ 菩薩ㄱ 悉ㅣ 見ㅏㅎㄷㅣ

善男子ᄂᆞᆫ 菩薩 八地아긘 이 相 前現홇 ᄃᆡ 左邊여 右邊여 호리긔 師子이 臆아기 長毫ᄒᆞ이 獸앗 王이라 一切 衆獸를 다 닷 怖畏히누온 ᄃᆞᆯ 菩薩ᄋᆞᆫ 다 보겸ㅅ다

<金光 6:17-19>

善男子 菩薩九地ㅣ十 是相 前現ㅅ尸ㅁ 轉輪聖王ㄱ 量 無ㅅㄱ 億衆ㅋ 圍遶ㅅㅣㅎ 供養ㅅㅏㄴㅓ 頂上ㅣㄷ 白蓋ㄱ 量 無ㅅㄱ 衆寶ㅅ[之] 莊嚴ㅅㄱ 所ㄱㄴ 以ㅑㅎ [於]上ㅓ十 覆ㅅㅋㄷㅅㄱㅅㄴ 菩薩ㄱ 悉ㅣ 見ㅏㅎㄷㅣ

善男子 菩薩 九地아기 이 相 前現홇 ᄃᆡ 轉輪聖王ᄋᆞᆫ 그지 無ᄒᆞᆫ 億衆의 圍遶ᄒᆞ아곰 供養ᄒᆞ누시여 頂上앗 白蓋ᄂᆞᆫ 그지 無ᄒᆞᆫ 衆寶로 莊嚴ᄒᆞᆫ 바인ᄋᆞᆯ 써곰 우여긔 覆ᄒᆞ잇 ᄒᆞᆫ ᄃᆞᆯ 菩薩ᄋᆞᆫ 다 보겸ㅅ다

<金光 6:19-22>

善男子ㅣ 菩薩十地ㅣ十ㄱ 是相ㅣ 前現ㅅ尸ㅁ 如來尸[之] 身ㅣㅠ[30] 金色 晃耀ㅅㄴㅏ 量 無ㄱ 淨光ㅣ 悉ㅣ 皆 圓滿ㅅㄴㄱㄴ 量 無ㅅㄱ 億梵王ㅣ 圍遶ㅅㅣㅎ 恭敬ㅅㅎ 供養ㅅㅎㅅ白ㅏㅅㄱㅣㄴㄱㅓ [於]無上微妙法輪ㄴ 轉ㅅㄴㅏㅅㄱㅅㄴ 菩薩ㄱ 悉ㅣ 見ㅏㅎㄷㅣ

善男子아 菩薩 十地아긘 이 相이 前現홇 ᄃᆡ 如來ㅠ 몸이 金色 晃耀ᄒᆞ시하 그지 업슨 淨光이 다 닷 圓滿ᄒᆞ신을 그지 無ᄒᆞᆫ 億梵王이 圍遶

30) '如來尸[之] 身ㅣㅠ'에 통합되어 있는 '尸'은 속격 조사로 사용된 것이다. '-ㅅ'으로 읽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如來尸[之] 身ㅣㅠ'의 '之'는 不讀字다.

ᄒᆞ아곰 恭敬ᄒᆞ져 供養ᄒᆞ져 ᄒᆞᄉᆞᆸ누온이신여 無上微妙法輪을 轉ᄒᆞ시누온 ᄃᆞᆯ 菩薩은 다 보겸ㅅ다

十地의 釋名(06:22-07:15)

<金光 6:22-25>

善男子ᄋᆞ [云]何ㅗ 初地 而ᄆᆞᆷ 名下 歎喜ㅣ ㅅᄂᆞᆫㅁᆞᆺᄂᆞᆫㅏᄒᆞᆫㄱᆞ 出世心ㄴᆡ 得ᄀᆞᆫ 昔尸 得尸 未ㅣᄂᆞᆫᄋᆞᄉᆞㅣᄂᆞᆫㄱᆞ 所ㅣㄱᆞㄴᆡ 而ᄆᆞᆷ 今ㅅㄱᆞᆫ ᄋᆞ 始ᄂᆞ 得ᄂᆞᆫᄀᆞᆫ 大事ㅗ 大用ㅗᄂᆞ尸ㄴᆡ 意ㅅ 願ᄂᆞᆫㄱᆞ 所ㄴᆡ 如ㅅ 悉ᄋᆞ 皆 成就ᄂᆞᆫᄀᆞᆫ ᄂᆞᆫᄋᆞ 大ㅣ 歡喜慶樂ᄂᆞᆫᄀᆞㅈㄱᆞ入ᄆᆞᆷ 故ᄂᆞ 是故ᄆᆞᆷ 初地ㄴᆡ 名下 [爲]歡喜地ㅗᄂᆞᆫᄒᆞᆫᄀᆞᆫ

善男子아 엇뎌 初地 而ᄆᆞᆷ 일하 歎喜이기 ᄒᆞ고리고 ᄒᆞ겨ᄅᆡᆷ 돈 出世心을 어드며 昔尸(녯) 어듦 아니ᄒᆞ앗다 혼 바인ᄋᆞᆯ 而ᄆᆞᆷ 今ㅅㄱᆞᆫ ᄋᆞ 비르소 得ᄒᆞ며 大事여 大用여 홇ᄋᆞᆯ 意ㅅ 願혼 바ᄅᆞᆯ 如ㅅ(ᄃᆞᆫ) 다 닷 成就ᄒᆞ며 ᄒᆞ아 키 歡喜慶樂ᄒᆞ건 ᄃᆞ로 [故ᄂᆞ] 是故로 初地ᄅᆞᆯ 일하 歡喜地여 호리며

<金光 6:25-7:2>

一切 微細ᄂᆞᆫㅂᆞㅌᆞ[之] 罪ㅣㄱᆞ 破戒ㅌᆞ 過失ㄴᆡ 皆ㅌᆞ 淸淨ᄂᆞᆫᄋᆞᄌᆞㄱᆞ入ᄆᆞᆷ 故ᄂᆞ 是故ᄆᆞᆷ 二地ㄴᆡ 說尸 名下 無垢地ㅗᄂᆞᆫᄒᆞᆫᄀᆞᆫ

一切 微細ᄒᆞᄂᆞᆺ(ᄒᆞᆫᄂᆞᆺ) 罪인 破戒ㅅ 過失ᄋᆞᆯ 닷 淸淨ᄒᆞ안 ᄃᆞ로 [故ᄂᆞ] 是故로 二地ᄅᆞᆯ 니ᄅᆞᆷ 일하 無垢地여 호리며

<金光 7:2-3>

量 無ㄱᆞ 智慧ㅌᆞ 光明ᄋᆞᄉᆞ十 三昧ㅣ 傾動ᄂᆞᆫᄒᆞᄉᆞㅌᆞ[31] 可ᄂᆞᆫㄱᆞ 不ᄉᆞᆺㅂᆞㅌᆞㅅㅅ? 能

31) 'ㅌᆞ'은 '可'자 뒤에 붙는 것이 옳다.

矣 摧伏ᄂᆞᄅᆞᄉᆞᆫ 無ᄀᆞ 聞持陁羅尼ㅅᄀᆡ 爲ᄒᆞᄂᆞᆫ 本ᄀᆡ入ᄒᆞᆫ [作]ᄂᆞᆫᄃᆞᄀᆞ入ᄒᆞᆷ 故ᄂᆞ 是故ᄒᆞᆷ 三地ᄒᆞ 說ᄆᆞ 名ᄒᆞ 明地ᄉᆞᄂᆞᄒᆞᆫᄀᆞ

그지 업슨 智慧ㅅ 光明아기 三昧이 傾動홈 짓ᄒᆞᆫ 안디ᄂᆞ와? 能矣 摧伏ᄒᆞ고리 업슨 聞持陁羅尼왜 삼오 本일ᄃᆞᆯ ᄒᆞ건 ᄃᆞ로 [故ᄂᆞ] 是故로 三地를 니ᄅᆞᆷ 일하 明地여 호리며

<金光 7:4-5>

能ᄀᆞ 煩惱ᄒᆞ 燒ᄂᆞᄆᆞᄆᆞᆷ 智慧ᄎᆡ 火ᄒᆞ 以ᄒᆞ 光明ᄒᆞ 增長ᄂᆞᆫᄃᆞᄀᆞ入ᄒᆞᆷ 故ᄀᆞ 是ᄀᆞ 道品ᄒᆞ 修行ᄂᆞᄉᆞᄎᆡ 依處所ᄀᆡᄃᆞᄀᆞ入ᄒᆞᆷ 故ᄂᆞ 是故ᄒᆞᆷ 四地ᄒᆞ 說ᄆᆞ 名ᄒᆞ 焰地ᄉᆞᄂᆞᄒᆞᆫᄀᆞ

시르며 煩惱를 燒홇 ᄃᆡ 智慧ㅅ 블을 ᄡᅥ 光明을 增長ᄒᆞ건 ᄃᆞ로 故며 이ᄂᆞᆫ 道品을 修行호릿 依處所이건 ᄃᆞ로 [故ᄂᆞ] 是故로 四地를 니ᄅᆞᆷ 일하 焰地여 호리며

<金光 7:5-7>

是ᄀᆞ 方便勝智ᄒᆞ 修行ᄂᆞᄆᆞᆷ 自在ᄒᆞᄆᆞᄆᆞ入ᄀᆞ 難ᄒᆞ 得ᄂᆞᄒᆞᄀᆞᄒᆞᆫᄂᆞᄒᆞᄀᆞᄒᆞᆫᄀᆞ入ᄒᆞᆷ 故ᄀᆞ 見思煩惱ᄀᆡ 伏ᄂᆞᄉᆞ 可ᄂᆞᄀᆞ 不矣ᄀᆞᄒᆞᆫᄂᆞᄒᆞᄀᆞᄒᆞᆫᄀᆞ入ᄒᆞᆷ 故ᄂᆞ 是故ᄒᆞᆷ 五地ᄒᆞ 說ᄆᆞ 名ᄒᆞ 難勝地ᄉᆞᄂᆞᄒᆞᆫᄀᆞ

이ᄂᆞᆫ 方便勝智를 修行홇 ᄃᆡ 自在히 홇 ᄃᆞᆫ 어려ᄇᆡ사 得호린ᄋᆞᆯ ᄒᆞ안 ᄃᆞ로 故ᄀᆞ 見思煩惱이 伏홈 짓ᄒᆞᆫ 안디인ᄋᆞᆯ ᄒᆞ안 ᄃᆞ로 [故ᄂᆞ] 是故로 五地를 니ᄅᆞᆷ 일하 難勝地여 호리며

<金光 7:7-8>

行法相續ᄒᆞᄉᆞᆸ 了了顯現ᄂᆞᆫᄃᆞᄀᆞ入ᄒᆞᆷ 故ᄀᆞ 無相ᄒᆞᄉᆞᆸ 多ᄀᆡ 思惟ᄂᆞᄒᆞ 現前ᄂᆞᆫᄃᆞᄀᆞ入ᄒᆞᆷ 故ᄂᆞ 是故ᄒᆞᆷ 六地ᄒᆞ 說ᄆᆞ 名ᄒᆞ 現前地ᄉᆞᄂᆞᄒᆞᆫᄀᆞ

行法相續아기 了了顯現ᄒᆞ건 ᄃᆞ로 故며 無相아기 해 思惟ᄒᆞ야 現前ᄒᆞ건 ᄃᆞ로 [故ᄂᆞ] 是故로 六地를 니ᄅᆞᆷ 일하 現前地여 호리며

<金光 7:9-10>

無漏無間ᄒᆞ 無相ᄒᆞᆫ 思惟ᄒᆞᄉᆞᆫᄃᆡ 解脫三昧ᄒᆞ 遠ᄅᆡ 修行ᄒᆞᄃᆞᆨᄀᆞᆫ 故ᄉᆞᆫ 是地ᄀᆞ 淸淨ᄒᆞᄒᆞᆫᄃᆞ 無障無礙ᄒᆞᄃᆞᆨᄀᆞᆫ 故ᄂᆞᆫ 是故ᄆᆞᆫ 七地ᄒᆞ 說ᄆᆞ 名ᄒᆞᆫ 遠行地ᄒᆞᄂᆞᆫᄒᆞᆫᄉᆞᆫ

無漏無間히 無相아기 思惟ᄒᆞ릿 解脫三昧ᄅᆞᆯ 머리 修行ᄒᆞ건 ᄃᆞ로 故며 이 ᄯᅡᄒᆞᆫ 淸淨ᄒᆞ아곰 無障無礙ᄒᆞ건 ᄃᆞ로 [故ᄂᆞ] 是故로 七地를 니ᄅᆞᆷ 일하 遠行地여 호리며

<金光 7:11-12>

無相ᄒᆞᆫ 正思惟ᄒᆞᄒᆞᆫᄃᆞ 修得自在ᄃᆞᆨᄀᆞᆫ 故ᄉᆞᆫ 諸煩惱行ᄋᆞᆯ 動 令ᄅᆡᄆᆞ 能ᄋᆞᆺ 不ᄒᆞᄂᆞᆫᄒᆞᆫᄂᆞᆫᄀᆞᆫ 故ᄂᆞᆫ 是故ᄆᆞ 八地ᄒᆞ 說ᄆᆞ 名ᄒᆞᆫ 不動地ᄒᆞᄂᆞᆫᄒᆞᆫᄀᆞᆫᄉᆞᆫ

無相아기 正思惟ᄒᆞ아 修得自在컨 ᄃᆞ로 故며 諸煩惱行의 動ᄒᆞᆯᆞᆯ 能ᄋᆞᆺ 안ᄃᆞᆨ 호리견 ᄃᆞ로 [故ᄂᆞ] 是故로 八地를 니ᄅᆞᆷ 일하 不動地여 호리시며

<金光 7:12-14>

一切 種種ᄉᆞᆫ 法ᄒᆞ 說ᄂᆞᆫᄆᆞᄆᆞᆷ 而ᄆᆞ 得ᄒᆞᆫᄒᆞᆫᄃᆞ 自在ᄒᆞᄒᆞᆫᄃᆞ 患累 無ᄒᆞᄃᆞᆨᄀᆞᆫᄆᆞ 故ᄉᆞᆫ 知慧ᄒᆞ 增長ᄒᆞᄒᆞᆫᄃᆞ 自在ᄃᆞᆨᄀᆞᆫᄆᆞ 故ᄂᆞᆫ 是故ᄆᆞ 九地ᄒᆞ 說ᄆᆞ 名ᄒᆞᆫ 善慧地ᄒᆞᄂᆞᆫᄒᆞᆫᄉᆞᆫ

一切 갓갓 法을 니ᄅᆞᆷ ᄃᆡ 而ᄆᆞ 시러곰 自在ᄒᆞ아 患累 無ᄒᆞ건 ᄃᆞ로 故며 知慧를 增長ᄒᆞ아 自在컨 ᄃᆞ로 [故ᄂᆞ] 是故로 九地를 니ᄅᆞᆷ 일하 善慧地여 호리며

<金光 7:14-15>

法身ᄀᆞ 虛空 如ᄉᆞᄒᆞᆷᄒᆞ 智慧ᄀᆞ 大雲 如ᄉᆞᄒᆞᆷᄒᆞᆫᄃᆞ 能ᄉᆞᆫ 遍滿ᄒᆞᄒᆞᆫᄃᆞ 一切ᄒᆞ 覆ᄒᆞ 令ᄃᆞᆨᄀᆞᆫᄆᆞ 故ᄂᆞᆫ 是故ᄆᆞ 十地ᄒᆞ 說ᄆᆞ 名ᄒᆞᆫ 法雲地ᄒᆞᄂᆞᆫᄒᆞᆫᄀᆞᆫᄅᆡᄂᆡ

法身은 虛空 다ᄒᆞ져 智慧는 大雲 다ᄒᆞ져 ᄒᆞ아 시르며 遍滿ᄒᆞ아곰 一

切를 覆ᄒᆞ이건 ᄃᆞ로 [故ㅣ] 是故로 十地를 니륾 일하 法雲地여 호리견이다

十障과 如來地障(07:16-08:10)

<金光 7:16-17>

初地ᄋᆞ十 有相道ㅣ 行ㅣ [欲]ㅅㅣㅏㄱㅏ 是ㄱ 無明ㅣㅏ 障礙 生死ㅣ 怖畏ㅣㅏㄱㅏ 是ㄱ 無明ㅣㅛ 是ㅣ 初地ㄴ 障ㅓㅣㅎㅏ

初地아긔 有相道를 行ᄒᆞ[欲]과 ᄒᆞ눈도 이ᄂᆞᆫ 無明이며 障礙 生死를 怖畏ᄒᆞ눈도 이ᄂᆞᆫ 無明이라 이를 初地ㅅ 障여 호리며

<金光 7:17-18>

微細罪過ㅣㅏㅣㅏㄱㅏ 無明ㅣ 因ㅣㅣㅎㅏ 種種ㄴ 業行相ㅣㅏㅣㅏㄱㅏ 無明ㅣ 因ㅣㅣㅎㅛ 是ㅣ 二地ㄴ 障ㅓㅣㅎㅏ

微細罪過이 ᄒᆞ눈도 無明을 지즈로 ᄒᆞ며 갓갓 業行相이 ᄒᆞ눈도 無明을 지즈로 ᄒᆞ리라 이를 二地ㅅ 障여 호리며

<金光 7:18-20>

昔ㄷ 得ㄷ 未ㅣㅏㅣㅎㄴㅣㅣㄱ 所ㄴ 勝利ㅣ 得ㅣㄱㅅㅛ 故ㅣ 動踊ㅣㅏㄱㅏ 無明ㅣ 因ㅣㅣㅎㅏ 聞持陁羅尼ㅣ 具ㄷ 不ㅎㅣㅏㄱㅏ 無明ㅣ 因ㅣㅣㅎㅛ 是ㅣ 三地障ㅓㅣㅎㅏ

녯 어듧 아니 ᄒᆞ앗다 혼 밧 勝利를 얻안 ᄃᆞ로 [故ㅣ] 動踊ᄒᆞ눈도 無明을 지즈로 ᄒᆞ며 聞持陁羅尼를 ᄀᆞᄌᆞᆷ 안ᄃᆞᆨ ᄒᆞ눈도 無明을 지즈로 ᄒᆞ리라 이를 三地障여 호리며

<金光 7:20-21>

禪定樂ㅣ 味ㅣㅏㅣㅎㅏ 愛著心ㅣ 生ㅣㅏㅣㅏㄱㅏ 無明ㅣ 因ㅣㅣㅎㅏ 微妙淨

法ㄴ 愛ᄉᆞᄐᆞᄀᆞ ᄀᆞᆷ 無明ㄱ 因ᄂᆞᆫᄒᆞᄆᆞ 是ㄱ 四地ㄴ 障ᄉᆞᄂᆞᆫᄒᆞᄀᆞ

禪定樂을 맛내 ᄒᆞ아 愛著心을 내 ᄒᆞ눈도 無明을 지즈로 ᄒᆞ며 微妙淨法ㅅ 愛ᄒᆞ눈도 無明을 지즈로 ᄒᆞ리라 이ᄅᆞᆯ 四地ㅅ 障여 호리며

<金光 7:21-24>

一意ᄒᆞ+ㄱ 涅槃ᄒᆞ+ 入ᄂᆞ [欲]ㅅ 思惟ᄂᆞᆫᄀᆞ 一意ᄒᆞ+ㄱ 生死ᄒᆞ+ 入ᄂᆞ [欲]ㅅ 思惟ᄂᆞᆫᄀᆞᄂᆞᆫᄒᆞ 是ㄱ 涅槃ㅣㅣ 思惟ᄂᆞᆫᄒᆞ 是ㄱ 生死ㅣㅣ 思惟ᄂᆞᆫᄒᆞᄂᆞᆫᄐᆞᄀᆞᆷ 無明ㅣㅣ 因 [爲]ㅣㅣ尸入乙ᄂᆞᆫᄀᆞᆫ 生死涅槃ᄒᆞ+ 不平等ᄒᆞ 思惟ᄂᆞᆫᄐᆞᄀᆞᆷ 無明ㅣㅣ 因 [爲]ㅣㅣ尸入乙ᄂᆞᆫᄒᆞᄆᆞ 是(ㄴ) 五地ㄴ 障(ᄂᆞᆫᄒᆞᄀᆞᆫ)

一意아긘 涅槃아기 入ᄒᆞ[欲]과 思惟ᄒᆞ며 一意아긘 生死아기 入ᄒᆞ[欲]과 思惟ᄒᆞ며 ᄒᆞ아 이ᄂᆞᆫ 涅槃이다 思惟ᄒᆞ져 이ᄂᆞᆫ 生死이다 思惟ᄒᆞ져 ᄒᆞ눈도 無明이 因[爲]읾ᄃᆞᆯ ᄒᆞ며 生死涅槃아기 不平等히 思惟ᄒᆞ눈도 無明이 因[爲]일ᄃᆞᆶ ᄒᆞ리라 이(ᄅᆞᆯ) 五地ㅅ 障(여 호리며)

<金光 7:24-25>

行法相續ᄒᆞ+ 了了顯現ᄂᆞᆫᄐᆞᄀᆞᆷ 無明ㅣㅣ 因ㅣㅣ [爲]尸入ᄀᆞᄂᆞᆫᄀᆞᆫ 法相ㅣㅣ 數數ㅣㅣ 行ᄂᆞᆫ [於]心ᄒᆞ+ 至ᄐᆞᄀᆞᆷ 無明ㅣㅣ 因 [爲]ㅣㅣ尸入乙ᄂᆞᆫᄒᆞᄆᆞ 是ㄱ(ㄴ)[32] 六地ㄴ 障ᄉᆞᄂᆞᆫᄒᆞᄀᆞᆫ

行法相續아기 了了顯現ᄒᆞ눈도 無明이 因읾ᄃᆞᆫ ᄒᆞ며 法相이 數數이 行ᄒᆞ아 [於]ᄆᆞᅀᆞᆷ아기 니르눈도 無明이 因[爲]읾ᄃᆞᆯ ᄒᆞ리라 이ᄅᆞᆯ 六地ㅅ 障여 호리며

<金光 7:25-8:2>

微細ᄂᆞᆫᄀᆞ 諸相ㅣㅣ 或現ᄂᆞᆫᄒᆞ 不現ᄂᆞᆫᄒᆞᄐᆞᄀᆞᆷ 無明ㅣㅣ 因 [爲]ㅣㅣ尸入乙

32) 十障과 如來地障을 설명하는 같은 유형의 문장이 반복되는데 대부분 '是ㄴ'로 나타난다. 문맥상 '是ㄴ'(이ᄅᆞᆯ)이 더 자연스럽다. 처음 기입한 토 위에다가 다시 'ㄴ'로 교정한 것처럼 보인다.

ᄂᆞᆷᄀᆞ 一味ㅡㅣ 熟 思惟ᄂᆞᆞᆫ 斷乙 欲ᄂᆞᆫᄃᆞ矣 方便乙 得ᄃᆞ 未ㅎᄂᆞᄐᆞᄀᆞ 刀 無明ㅣ 因 [爲]ㅣᄃᆞ入乙ᄂᆞᆫᄒᆞᆫᄆᆞ 是乙 七地ㄴᆡ 障ㅗᄂᆞᆫᄒᆞᆫᄀᆞ

微細ᄒᆞᆫ 諸相이 或 現ᄒᆞ져 不現ᄒᆞ져 ᄒᆞ눈도 無明이 因[爲]잃ᄃᆞᆯ ᄒᆞ며 一味ㅡㅣ.熟 思惟ᄒᆞ아 斷ᄋᆞᆯ 欲ᄒᆞᆯ 디 方便을 얻읋 안ᄃᆞᆨ ᄒᆞ눈도 無明이 因[爲]잃ᄃᆞᆯ ᄒᆞ리라 이ᄅᆞᆯ 七地ㅅ 障여 호리며

<金光 8:2-4>

[於]無相法ᄋᆞᆞᆫ 多ㅣ 功力乙 用ᄂᆞᄐᆞᄀᆞ 刀 無明ㅣ 因 [爲]ㅣᄃᆞ入乙ᄂᆞᆫᄀᆞᆷ 相自在ㅣ 難ᄋᆞ 得ᄋᆞᆞᆫᄇᆞ 度ᄂᆞᄉᆞ 可ᄉᆞᄂᆞᄀᆞ 乙 執ᄂᆞᄐᆞᄀᆞ 刀 無明ㅣ 因 [爲]ㅣᄃᆞ入乙ᄂᆞᆫᄒᆞᆫᄆᆞ 是乙 八地ㄴᆡ 障ㅗᄂᆞᄂᆞᄀᆞ ᄂᆞᆫᄀᆞᆷ[33]

[於]無相法아기 해 功力을 用ᄒᆞ눈도 無明이 因[爲]잃ᄃᆞᆯ ᄒᆞ며 相自在이 어려ᄇᆡ사 시러곰 度홈 짓ᄒᆞᆫᄋᆞᆯ 執ᄒᆞ눈도 無明이 因[爲]잃ᄃᆞᆯ ᄒᆞ리라 이ᄅᆞᆯ 八地ㅅ 障여 혼 ᄒᆞ며

<金光 8:4-6>

說法無量ㅗ 名味句無量ㅗ 智慧分別無量ㅗᄂᆞᆫᄃᆞ乙 能 攝持ᄃᆞ 未ㅎᄂᆞᄐᆞᄀᆞ 刀 無明ㅣ 因 [爲]ㅣᄃᆞ入乙ᄂᆞᆫᄀᆞᆷ 四無礙辯ᄋᆞᆞᆫᄇᆞ 得ᄋᆞᆞᆫᄇᆞ 自在 未ㅎᄂᆞᄐᆞᄀᆞ 刀 無明ㅣ 因 [爲]ㅣᄃᆞ入乙ᄂᆞᆫᄒᆞᆫᄆᆞ 是乙 九地ㄴᆡ 障ㅗᄂᆞᆫᄒᆞᆫᄀᆞ

說法無量여 名味句無量여 智慧分別無量여 홇ᄋᆞᆯ 能攝持ᄆᆞ 안ᄃᆞᆨ ᄒᆞ눈도 無明이 因[爲]잃ᄃᆞᆮ ᄒᆞ며 四無礙辯아기 시러곰 自在 안ᄃᆞᆨ ᄒᆞ눈도 無明이 因[爲]잃ᄃᆞᆯ ᄒᆞ리라 이ᄅᆞᆯ 九地ㅅ 障여 호리며

<金光 8:6-8>

最大神通ᄋᆞᆞᆫᄇᆞ 得ᄋᆞᆞᆫᄇᆞ 意ᄉᆡ 如ㅎ 未ㅎᄂᆞᄐᆞᄀᆞ 刀 無明ㅣ 因 爲ㅣᄃᆞ入ᄉᆡᄂᆞᆫᄀᆞᆷ 微妙秘密ᄂᆞᆫᄒᆡㄴᆡ[之] 藏ᄉᆡ 修行ᄂᆞᄃᆞᆷ 足 未ㅎᄂᆞᄐᆞᄀᆞ 刀 無明ㅣ 因

33) '障ㅗᄂᆞᄂᆞᄀᆞ ᄂᆞᆫᄀᆞᆷ'는 '障ㅗᄂᆞᆫᄒᆞᆫᄀᆞᆷ'로 되어야 한다.

爲ㅣ尸入しンオ皿 (是ㄱ)[34] 十地ヒ 障ナノオケ

最大神通아기 시러곰 意를 갇?如ㅅ 안ᄃᆞᆨ ᄒᆞ눈도 無明이 因[爲]잃ᄃᆞᆯ ᄒᆞ며 微妙秘密ᄒᆞ(ᄒᆞᆫ)ᄀᆞᆺ[之] 藏올 修行홇 ᄃᆡ 足 안ᄃᆞᆨ ᄒᆞ눈도 無明이 因[爲]잃ᄃᆞᆯ ᄒᆞ리라 (이ᄂᆞᆫ) 十地ㅅ 障여 호리며

<金光 8:8-10>

一切境界ㅋ十 微細智礙ㅣントㄱカ 無明ㅣ 因 爲ㅣ尸入しンケ 未來ㅋ十 是礙ㅣ 更ㅋ 生ㄱ 不ハンアし 更ㅋ 生 不ハ々ㅣ今ヒ 智し 得尸 未ハントㄱカ 無明ㅣ 因 爲ㅣ尸入しンオ皿 是し 如來地ヒ 障ナノオナㄱㅣㅣ

一切境界아기 微細智礙이 ᄒᆞ눈도 無明이 因[爲]잃ᄃᆞᆯ ᄒᆞ며 未來아기 이 쟝애ㅣ 가시아 난 안ᄃᆞᆨ 홇 가시아 生 안ᄃᆞᆨ 히릿 智를 얻읋 안ᄃᆞᆨ ᄒᆞ눈도 無明이 因[爲]잃ᄃᆞᆷ ᄒᆞ리라 이ᄅᆞᆯ 如來地ㅅ 障여 호리견이다

菩薩十地와 十波羅蜜(08:10-08:16)

<金光 8:10-16>

善男子ㅋ [於]初菩薩地ㅋ十ㄱ 檀波羅蜜し 行向ンケ [於]二地ㅋ十ㄱ 尸波羅蜜し 行向ンケ 於三地 羼提波羅蜜 行向 於四地 毗梨耶波羅蜜 行向 於五地 禪那波羅蜜し 行向 於六地 般若波羅蜜 行向 於七地 方便勝智波羅蜜 行向 於八地 願波羅蜜 行向 於九地 力波羅蜜 行向 [於]十地ㅋ十ㄱ 智波羅蜜し 行向ンナ々ヒㅣ

善男子아 [於]初菩薩地아긘 檀波羅蜜을 行向ᄒᆞ며 [於]二地아긘 尸波羅蜜을 行向ᄒᆞ며 [於]三地 羼提波羅蜜 行向 於四地 毗梨耶波羅蜜 行向 於五地 禪那波羅蜜을 行向 於六地 般若波羅蜜 行向 於七地 方便勝智波

34) 이 부분은 원본이 상해서 희미하게 보인다.

羅蜜 行向 於八地 願波羅蜜 行向 於九地 力波羅蜜 行向 [於]十地아긴 智波羅蜜을 行向ᄒᆞ겸짜

十種發心의 三摩提(08:16-08:25)

<金光 8:16-17>
善男子 菩薩摩訶薩ᄆᆞᆫ 初發心ᄀᆡ 名ᄀᆡ 妙寶起ᄉᆞᄂᆞᆫᄃᆞ 三摩提ᄅᆡ 攝受ᄉᆞᆫᄀᆡ ᄉᆞᆫᄭᅳᆯ 得ᄒᆞᄉᆞ 生ᄉᆞᆫᄃᆞ
善男子 菩薩摩訶薩ᄆᆞᆫ 初發心ᄋᆞᆫ 일홈은 妙寶起여 홇 三摩提ㅣ 攝受ᄒᆞᆫ ᄃᆞ로 시러곰 生ᄒᆞ며

<金光 8:17-18>
第二發心ᄀᆡ 可愛住ᄉᆞᄂᆞᆫᄃᆞ 三摩提ᄅᆡ 攝受ᄉᆞᆫᄀᆡ ᄉᆞᆫᄭᅳᆯ 得ᄒᆞᄉᆞ 生ᄉᆞᆫᄃᆞ
第二發心은可愛住여 홇 三摩提ㅣ 攝受ᄒᆞᆫ ᄃᆞ로 시러곰 生ᄒᆞ며

<金光 8:18-19>
第三發心ᄀᆡ 難動ᄉᆞᄂᆞᆫᄃᆞ 三摩提ᄅᆡ 攝受ᄉᆞᆫᄀᆡ ᄉᆞᆫᄭᅳᆯ 得ᄒᆞᄉᆞ 生ᄉᆞᆫᄃᆞ
第三發心은 難動여 홇 三摩提ㅣ 攝受ᄒᆞᆫ ᄃᆞ로 시러곰 生ᄒᆞ며

<金光 8:19-20>
第四發心ᄀᆡ 不退轉ᄉᆞᄂᆞᆫᄃᆞ 三昧ᄅᆡ 攝受ᄉᆞᆫᄀᆡ ᄉᆞᆫᄭᅳᆯ 得ᄒᆞᄉᆞ 生ᄉᆞᆫᄃᆞ
第四發心은 不退轉여 홇 三昧ㅣ 攝受ᄒᆞᆫ ᄃᆞ로 시러곰 生ᄒᆞ며

<金光 8:20>
第五發心 寶花 三昧 攝受 得 生
第五發心 寶花 三昧 攝受 得 生

<金光 8:20-21>
第六發心 日圓光焰 三昧 攝受 得 生
第六發心 日圓光焰 三昧 攝受 得 生

<金光 8:21-22>
第七發心 一切願如意成就 三昧 攝受 得 生
第七發心 一切願如意成就 三昧 攝受 得 生

<金光 8:22-23>
第八發心 現在佛現前證住 三昧 攝受 得 生
第八發心 現在佛現前證住 三昧 攝受 得 生
제8발심은 現在佛現前證住라고 하는 삼매가 攝受하기 때문에 능히 나며

<金光 8:23-24>
第九發心 智藏 三昧 攝受 得 生
第九發心 智藏 三昧 攝受 得 生
제9발심은 智藏이라고 하는 삼매가 攝受하기 때문에 능히 나며

<金光 8:24-25>
第十發心 首楞嚴ㅓㄴㅇ尸 三昧ㄲ 攝受ㅅㄱ ㅅㅟ 得ㅋ ㅎ 生ㅅㄴㅎㅌㅣ
第十發心 首楞嚴여 홈 三昧ㅣ 攝受ᄒᆞᄃᆞ로 시러곰 ᄒᆞ겸싸

<金光 8:25>
善男子ㅋ 是ㄹ 諸菩薩摩訶薩尸 十種 發心ㅓㄴㅇ ᄒᆞㄴㄱㄲㅣㅣ
善男子아 이ᄅᆞᆯ 諸菩薩摩訶薩ㅍㅎ 十種 發心여 호리견이다

菩薩十地 각각의 단계에서 誦持해야 할 陁羅尼(08:25-13:01)

<金光 8:25-9:2>

善男子 菩薩摩訶薩ㄱ [於]此初地ᄋᆞ十 依功德力ㅓㄴ尸 名ㄴ 陁羅尼乙 得ᄒᆞᄉᆞ (生ㅣナㅎㄴㅣ)[35]

善男子 菩薩摩訶薩ᄋᆞᆫ [於]此初地아ᄀᆡ 依功德力여 홇 일홇 陁羅尼를 시르곰 (내겸싸)

<金光 9:2>

爾時十 世尊ㄱ 而ᄲᅳ 呪乙 說ᄒᆞ 曰ㅣㄴ尸

그 ᄢᅴ긔 世尊ᄋᆞᆫ 而로 呪를 닐아 曰ㅣㄴ尸

<金光 9:3-6>

哆姪他 富樓梶 那羅提 豆吼豆吼豆吼 耶跋修履瑜 烏婆娑底 耶跋旃陁魯 提兪多底 多跋駱懺 檀陁波履訶嵐 苟留 莎訶

<金光 9:7-8>

善男子ᄒᆞ 是 陁羅尼ㄴ 名ㄱ 一恒河沙數乙 過ㅅㄴㄱ 諸佛ㅣ 初地菩薩乙 救護ㅅ [爲]ㅅㅅ白ㅅㄱ ㅣㄴㄱ ㅣㅠ

善男子아 이 陁羅尼ㅅ 일홈은 一恒河沙數를 過ᄒᆞ신 諸佛이 初地菩薩을 救護ᄒᆞ[爲]과 ᄒᆞᄉᆞᆷ온이신이라

<金光 9:8-10>

此陁羅尼呪乙 誦持ㅅ白ナ尸ㅅㄱ 得ᄒᆞᄉᆞ 一切怖畏ㅣㄱ 一切惡獸ㅓ 一切惡鬼ㅓ 人非人等ㅅㄱ ㅣㅓ 災橫ㅓ (諸惱ㅓㄴ尸乙 度脫ㅅᄒᆞ 五障乙 解

35) 이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데 9장 11행과 비교하면 '生ㅣナㅎㄴㅣ'로 되어야 옳을 것이다.

脫ㅅ가) 初地乙 念ㅅ尸入乙 忘尸 不多ㅅ가ㅅ나ㅎ七ㅣ

此陁羅尼呪를 誦持ᄒᆞ숣겋 ᄃᆞᆫ 시러곰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여 一切 惡鬼여 人 非人 다ᄒᆞᆫ이여 災橫여 諸惱여 홇올 度脫ᄒᆞ아 五障올 解脫(ᄒᆞ며) 初地를 念홇 ᄃᆞᆯ 니즗 안ᄃᆞᆯ ᄒᆞ며 ᄒᆞ겸싸

<金光 9:10-11>

善男子ㅣ 菩薩摩訶薩ㄱ [於]此 二地ㅣ十 善安樂住ㅗㅅ尸 名ㄴ 陁羅尼乙 得ㅣ ㅎ 生ㅣㄴㅎ七ㅣ

善男子아 菩薩摩訶薩ᄋᆞᆫ [於]이 二地아기 善安樂住여 홇 일홇 陁羅尼를 시러곰 내겸싸

<金光 9:12-14>

哆姪他 鬱閣禍淚 旨履旨履 鬱祉羅南 禪斗禪斗 鬱祉禍離 吼柳吼柳 莎訶

<金光 9:15-16>

善男子 是 陁羅尼ㄴ 名ㄱ 二恒河沙數乙 過ㅅㄷㄱ 諸ㄷㄱ 佛ㅐ 二地菩薩乙 救護(ㅅ) [爲]ㅅㅅ白ㅅㄱ ㅐㄷㄱ ㅐㅠ

善男子 이 陁羅尼ㅅ 일홈은 二恒河沙數를 過ᄒᆞ신 모ᄃᆞ신 佛이 二地菩薩올 救護(ᄒᆞ)[爲]과 ᄒᆞ숣온이신이라

<金光 9:16-18>

此 陁羅尼呪乙 誦持ㅅ白ㅁㅏ尸入ㄱ 得ㅣ ㅎ 一切怖畏ㅐㄱ 一切惡獸ㅗ 一切惡鬼ㅗ 人非人等ㅅㄱ 怨賊ㅗ 災橫ㅗ 諸惱ㅗㅅ尸乙 度脫ㅅㅣ 五障乙 解脫ㅅ가 二地乙 念ㅅ尸入乙 忘(尸) 不多ㅅ가ㅅ나ㅎ七ㅣ

이 陁羅尼 呪를 誦持ᄒᆞ숣고겋 ᄃᆞᆫ 시러곰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여 一切 惡鬼여 人 非人 다ᄒᆞᆫ 怨賊여 災橫여 諸惱여 홇올 度脫ᄒᆞ아 五障

올 解脫ᄒᆞ며 二地를 念홇 돌 니즐 안돌 ᄒᆞ며 ᄒᆞ겸싸

<金光 9:18-20>
善男子 菩薩摩訶薩ㄱ [於]此三地ᄋᆞ十 難勝大力ㅅㄴ尸 名ㄴ 陁羅尼乙 得ᄋᆞᄉᆞ 生
善男子 菩薩摩訶薩ᄋᆞᆫ [於]此三地아기 難勝大力여 홇 일홇 陁羅尼를 시러곰 生

<金光 9:21-22>
哆姪他 檀陁枳 般陁枳 柯羅智 高懶智 枳由罽 檀智罽 莎訶

<金光 9:23-24>
善男子 是 陁羅尼 名 三恒河沙 過 諸佛 三地菩薩 救護 [爲]
善男子 이 陁羅尼 名 三恒河沙 過 諸佛 三地菩薩 救護 [爲]

<金光 9:24-10:1>
陀羅尼呪 誦持 得ᄋᆞᄉᆞ 一切怖畏ㅣㄱ 一切惡獸ㅣ尸 虎狼師子ㅅ 一切惡鬼ㅅ 人非人等ㅅㄱ 怨賊ㅅ 災橫ㅅ 諸ㅋ 有ㅅㄱ 惱害ㅅㄴ尸乙 度脫ㅅᄋᆞ 五障乙 解脫ㅅᄀᆞ 三地乙 念ㄴ尸ㅅ乙 忘 不冬ㅅナㅎㅏ
陀羅尼 呪 誦持 시러곰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잃 虎狼師子여 一切 惡鬼여 人 非人 다ᄒᆞᆫ 怨賊여 災橫여 모ᄃᆞᆫ의 有ᄒᆞᆫ 惱害여 홇올 度脫ᄒᆞ아 五障올 解脫ᄒᆞ며 三地를 念홀 돐 忘 안돌 ᄒᆞ겸싸

<金光 10:2-3>
善男子 菩薩摩訶薩 [於]此四地 大利益難壞 名 陀羅尼 得 生
善男子 菩薩摩訶薩 [於]此四地 大利益難壞 名 陀羅尼 得 生

<金光 10:4-6>

哆姪他 尸利尸利 陁彌梶 陁彌梶 陁履陁履尼 尸履尸履梶 陛捨羅婆細 波豕那 般陁底 莎訶

<金光 10:7-8>

善男子 是陁羅尼 名 四恒河沙 過 諸佛 四地菩薩 救護 [爲]

善男子 是陁羅尼 名 四恒河沙 過 諸佛 四地菩薩 救護 [爲]

<金光 10:8-10>

陁羅尼 誦持 得ㅣㅈ 一切怖畏ㅣㄱ 一切惡獸ㅣㄹ 虎狼師子ㅗ 一切惡鬼ㅗ 人非人等ㅅㄱ 怨賊ㅗ 災橫ㅗ 及諸毒害ㅗㅅㄹㅅㄴ 度ㅅㅣ 五障 解脫 四地 念 忘 不

陁羅尼 誦持 시러곰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잃 虎狼師子여 一切 惡鬼여 人 非人 다ᄒᆞᆫ 怨賊여 災橫여 ᄆᆞᆺ 諸毒害여 홇 ᄃᆞᆯ옳 度ᄒᆞ아 五障 解脫 四地 念 忘 不

<金光 10:10-12>

善男子 菩薩摩訶薩 [於]此五地 種種功德莊嚴 名 陁羅尼 得 生

善男子 菩薩摩訶薩 [於]此五地 種種功德莊嚴 名 陁羅尼 得 生

<金光 10:13-16>

哆姪他 訶里訶里梶 遮履遮履梶 迦羅摩梶 僧伽羅摩梶 三婆訶沙梶 刹婆訶梶 悉 耽婆訶梶 謨訶梶 莎塭部 吼陛 莎訶

<金光 10:17-18>

善男子 是陁羅尼 名 五恒河沙 過 諸佛 五地菩薩 救護 [爲]

善男子 是陁羅尼 名 五恒河沙 過 諸佛 五地菩薩 救護 [爲]

<金光 10:18-20>

陁羅尼 誦持 得ᄒᆞᄆᆞ 一切怖畏ᄅᆡᄀᆞ 一切毒害ᄅᆡᄆᆞ 虎狼師子ㅅ 一切惡鬼ㅅ 人非人等ᄋᆞᆫᄀᆞ 怨賊ㅅ 災橫ㅅ 諸ᄒᆞ有ᄋᆞᆫᄀᆞ 惱害ㅅᄂᆞᆺᄆᆞᆯ乙 度ᄋᆞᄒᆞ 五障 解脫 五地 念 忘 不

陁羅尼 誦持 시러곰 一切怖畏인 一切毒害읳 虎狼師子여 一切惡鬼여 人 非人 다ᄒᆞᆫ 怨賊여 災橫여 모ᄃᆞᆫ의 有ᄒᆞᆫ 惱害여 홇ᄋᆞᆯ 度ᄒᆞ아 五障 解脫 五地 念 忘 不

<金光 10:20-22>

善男子 菩薩摩訶薩 [於]此六地 圓智等 名 陁羅尼 得 生

善男子 菩薩摩訶薩 [於]此六地 圓智等 名 陁羅尼 得 生

<金光 10:23-11:2>

哆姪他 毗頭晉毗頭晉 摩履枳 柯履柯履 苾頭誘訶底 溜溜溜溜 周柳周柳 杜魯婆杜魯婆 遮遮遮者 婆娑 薩活私底 薩婆薩埵悉南 彌斗 曼多羅 波拖 莎訶

<金光 11:3-4>

善男子 是陁羅尼 名 六恒河沙 過 諸佛 六地善薩 救護 [爲]

善男子 是陁羅尼 名 六恒河沙 過 諸佛 六地善薩 救護 [爲]

<金光 11:4-6>

陀羅尼 誦持 得 一切怖畏ᄅᆡᄀᆞ 一切毒害ᄅᆡᄆᆞ 虎狼師子ㅅ 一切惡鬼ㅅ 人非人等ᄋᆞᆫᄀᆞ 怨賊ㅅ 災橫ㅅ 諸ᄒᆞ 有ᄋᆞᆫᄀᆞ 惱害ㅅᄂᆞᆺᄆᆞᆯ乙 度ᄋᆞᄒᆞ 五障 解脫 六地 念 忘 不

陀羅尼 誦持 得 一切 怖畏인 一切 毒害읳 虎狼 師子여 一切 惡鬼여 人 非人 다ᄒᆞᆫ 怨賊여 災橫여 모ᄃᆞᆫ의 有ᄒᆞᆫ 惱害여 홇ᄋᆞᆯ 度ᄒᆞ아 五障 解

脫 六地 念 忘 不

<金光 11:6-8>
善男子 菩薩摩訶薩 [於]此七地 法勝行 名 陀羅尼 得 生
善男子 菩薩摩訶薩 [於]此七地 法勝行 名 陀羅尼 得 生

<金光 11:9-13>
哆姪他 闍訶闍訶漏 闍訶闍訶闍訶漏 鞞柳枳鞞柳枳 阿密多邏伽訶多枳婆力灑枳 鞞柳毗枳 婆柳婆底 鞞提喜枳 頻陁鞞履枳 密栗咀底枳 蒲笥蒲笥 莎訶

<金光 11:14-15>
善男子 是陁羅尼 名 七恒河沙 過 諸佛 七地菩薩 救護 [爲]
善男子 是陁羅尼 名 七恒河沙 過 諸佛 七地菩薩 救護 [爲]

<金光 11:15-17>
陁羅尼 誦持 得 一切怖畏ㅣㄱ 一切惡獸ㅣ尸 虎狼師子ㅗ 一切惡鬼ㅗ 人非人等ㅅㄱ 怨賊ㅗ 毒害ㅗ 災橫ㅗㅅ尸乙 度ㅅㅋ 五障 解脫 七地 念 忘 不
陁羅尼 誦持 得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읽 虎狼 師子여 一切 惡鬼여 人 非人 다ᄒᆞᆫ 怨賊여 毒害여 災橫여 홇ᄋᆞᆯ 度ᄒᆞ아 五障 解脫 七地 念 忘 不

<金光 11:17-18>
善男子 菩薩摩訶薩 [於]此八地 無盡藏 名 陁羅尼 得 生
善男子 菩薩摩訶薩 [於]此八地 無盡藏 名 陁羅尼 得 生

<金光 11:19-21>

哆姪他 死履死履 始履始履 寐底寐底 柯履柯履 訶履訶履 醓捌醓柳 周柳周柳 伴陁寐 莎訶

<金光 11:22-23>

善男子 是陁羅尼 名 八恒河沙 過 諸佛 八地菩薩 救護 [爲]

善男子 是陁羅尼 名 八恒河沙 過 諸佛 八地菩薩 救護 [爲]

<金光 11:23-25>

陁羅尼 誦持 得 一切怖畏ㅐㄱ 一切惡獸ㅐ尸 虎狼師子ㅗ 一切惡鬼ㅗ 人 非人 等ㅅㄱ 怨賊ㅗ 毒害ㅗ 災橫ㅗㅅ尸乙 度ㅅㅈ 五障 解脫 八地 念 忘 不

陁羅尼 誦持 得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잃 虎狼 師子여 一切 惡鬼여 人 非人 다흔 怨賊여 毒害여 災橫여 홇올 度ᄒᆞ아 五障 解脫 八地 念 忘 不

<金光 12:1-2>

善男子 菩薩摩訶薩 [於]此九地 無量門 名 陁羅尼 得 生

善男子 菩薩摩訶薩 [於]此九地 無量門 名 陁羅尼 得 生

<金光 12:3-6>

哆姪他 訶底(六履反> 旆陁履枳 俱嵐婆邏梯 斗邏死斗邏死 拔吒扶吒死 死履死履 柯死履 柯補修履 薩活私底 薩婆薩埵南 莎訶

<金光 12:7-8>

善男子 是 陁羅尼 名 九恒河沙 過 諸佛 九地菩薩 救護 [爲]

善男子 是 陁羅尼 名 九恒河沙 過 諸佛 九地菩薩 救護 [爲]

<金光 12:8-10>

陁羅尼 誦持 得 一切怖畏ㅣㄱ 一切惡獸ㅣ尸 虎狼師子ㅗ 一切惡鬼ㅗ 人非人等ㅅㄱ 怨賊ㅗ 毒害ㅗ 災橫ㅗㅅ尸乙 度ㅅㅈ 五障 解脫 九地 念 忘 不

陁羅尼 誦持 得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읳 虎狼 師子여 一切 惡鬼여 人 非人 다ᄒᆞᆫ 怨賊여 毒害여 災橫여 홇올 度ᄒᆞ아 五障 解脫 九地 念 忘 不

<金光 12:10-12>

善男子 菩薩摩訶薩ㄱ [於]此 十地ㅈㅓ 破壞堅固金剛山ㅗㅅ尸 陁羅尼乙 得ㅈㅎ 生ㅣㅏㅎㅊㅣ

善男子 菩薩摩訶薩온 [於]이 十地아긔 破壞堅固金剛山여 홇 陁羅尼를 시러곰 내겸짜

<金光 12:13-21>

哆姪他 悉提醯 修悉提醯 姥差祢 姥差祢 毗目底 阿摩詈 毗摩詈 涅摩詈 瞢伽詈 喜懶若伽嚩埵 刺那伽嚩埵 娑曼多跋陁提詈 薩跋刺他娑陁梶摩那死 摩訶摩那死 遏部吼底 遏哲部吼底 婆邏提 毗邏提 遏周提 阿美里底 阿邏是 毗邏是 婆竇訶寐(志已反) 婆竇訶寐 富樓祢 富樓那摩奴邏體莎訶

<金光 12:22-23>

善男子ㅈ 是 陁羅尼 灌頂吉祥句ㅂ 名ㄱ 十恒河沙乙 過ㅅㄴㄱ 諸佛ㅣ 十地菩薩乙 救護ㅅ [爲]ㅅㅅ白ㅅㄱㅣㄴㄱㅣㅛ

善男子아 이 陁羅尼 灌頂吉祥句ㅅ 일홈은 十恒河沙ᄅᆞᆯ 過ᄒᆞ신 諸佛이 十地菩薩올 救護ᄒᆞ[爲]과 ᄒᆞ숣온이신이라

<金光 12:23-13:1>

陁羅尼呪乙 誦持ン白ロナ尸入ㄱ 得ㅋ ホ 一切怖畏リㄱ 一切惡獸 虎狼師子 一切惡鬼 人非人等ンㄱ 怨賊ㅗ 毒害ㅗ 災橫ㅗノ尸乙 度ンㅋ 五障乙 解脫ンカ 十地乙 念ノ尸入乙 忘 不冬ンカンナヤセㅣ

陁羅尼 呪를 誦持ᄒᆞ숣고겸 든 시러곰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 虎狼師子 一切 惡鬼 人 非人 다ᄒᆞᆫ 怨賊여 毒害여 災橫여 홇올 度ᄒᆞ아 五障올 解脫ᄒᆞ며 十地를 念홇 돌 忘 안돌 ᄒᆞ며 ᄒᆞ겸짜

師子相無礙光焰菩薩의 讚歎

<金光 13:1-3>

是時十 師子相無礙光焰菩薩ㄱ 卽ノ 座し 從セ 起ンニ下 徧袒右肩 右膝著地 合掌恭敬ンㅋ尒 頂ᄆ 佛足し 禮ン白ロ 卽ノ 偈頌し 以ㅋ 而ᄆ 佛し 讚歎ン白ニ尸

이 ᄢᅴ 師子相無礙光焰菩薩은 곧오 座를 좇 起ᄒᆞ시하 徧袒右肩 右膝著地 合掌恭敬ᄒᆞ아곰 頂(ᄋᆞ)로 佛足올 禮ᄒᆞ숣고 곧오 偈頌올 뻐 而로 佛을 讚歎ᄒᆞ숣싫

<金光 13:4>

敬禮ン白ロノヤセㅣ 譬喩ンㅋノ尸入 無ニㄱ 深無上意し 說ニロトㄱしㅗ[36]

敬禮ᄒᆞ숣고 홇다 譬喩ᄒᆞ아 홇 ᄃᆞ(돌) 없으신 深無上意를 니르시고눈을여

---

36) '說ニロトㄱしㅗ'는 화법동사 '니르-'에 존경법의 '-시-'와 선어말어미 '-고-', '-ㅏ-'(-누-), 명사형어미 '-ㄱ'에 다시 '-しㅗ'(-ㄹ+여)가 통합한 특이한 것이다. 석독구결에서 명사형어미 '-ㄴ' 뒤에 다시 '-ㄹ'과 조사 '-여'가 통합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金光 13:4-5>

衆生ㅣ [於]見ᄂᆡ 失ㅣᄒᆞᄀᆞᆫ 世尊ㅣㄴᆞᆯ 能ᄀᆞ 濟度ᄒᆞᄂᆞᆫᄃᆞᆫᄀᆞ

衆生이 [於]見을 잃이아ᄂᆞᆯ 世尊이시ᅀᅡ 시르며 濟度ᄒᆞ시골며

<金光 13:5-7>

世尊ᄀᆡ 佛眼ᄆᆞᆫ 故ᄂᆞ 一法相ᄋᆞᆨᄀᆞᆷ 見ᄆᆞ 無ᄂᆞᆫᄀᆞ 無上尊ᄀᆡ 法眼ᄆᆞᆫ 不思議義ᄂᆡ 見ᄂᆞᆫᄀᆞ 能ᄀᆞ 一法ᄋᆞᆨᄀᆞᆷ 生ㅣᄆᆞ 不ᄉᆞᆼᄒᆞᄂᆞᆫ 亦 一法ᄋᆞᆨᄀᆞᆷ 滅ᄆᆞ 不ᄉᆞᆼᄒᆞᄂᆞᆫᄂᆞᄂᆡᄀᆡ 平等見ㅣᄂᆞᄂᆡᄀᆞ ᄉᆞᆸᄂᆡ 爲ᄂᆞᄂᆡᄀᆞ ᄉᆞᆸᄆᆞᆫ 故ᄂᆞ 尊ᄀᆡ 無上處ᄒᆞᆫ 至ᄂᆞᄅᆞᄀᆞ ㅣᄒᆞᄂᆞᆫᄉᆞᆫᄂᆞᆫᄀᆞᆷ

世尊은 佛眼으로 [故ᄂᆞ] 一法相마도 봄 없으시며 無上尊은 法眼으로 不思 議義를 보시며 시르며 一法마도 나잃 안ᄃᆞᆯᄒᆞ져 ᄯᅩ 一法마도 滅ᄆᆞ (뱷) 안ᄃᆞᆯ ᄒᆞ져 ᄒᆞ신 平等見이신 ᄃᆞᆯ ᄒᆞ신 ᄃᆞ로 [故ᄂᆞ] 尊은 無上處아기 니르시곤이앗(다) ᄒᆞ며

<金光 13:8-9>

生死ᄂᆡ 損 不ᄉᆞᆼᄂᆞᄂᆡᄀᆞ ᄉᆞᆸᄆᆞᆫ 故ᄂᆞ 願ᄂᆞᄒᆞᄂᆞᆫ 尊ᄀᆡ 涅槃ᄂᆡ 證ᄂᆞᄂᆡᄅᆞᄀᆞ ㅣᄆᆞᄆᆞ 二法見ᄂᆡ 過ᄂᆞᄂᆡᄀᆞ ᄉᆞᆸᄆᆞᆫ 故ᄂᆞ 是故ᄆᆞᆫ 寂靜ᄂᆡ 證ᄂᆞᄂᆡᄅᆞᄀᆞ ㅣᄒᆞᄂᆞᆫᄉᆞᆫᄀᆞᆷ

生死ᄅᆞᆯ 損 안ᄃᆞᆯ ᄒᆞ신 ᄃᆞ로 [故ᄂᆞ] 願ᄒᆞ아곰 尊은 涅槃ᄋᆞᆯ 證ᄒᆞ시곤이라 二法見을 過ᄒᆞ신 ᄃᆞ로 [故ᄂᆞ] 是故로 寂靜을 證ᄒᆞ시곤이앗(다 ᄒᆞ)며

<金光 13:9-10>

世尊ᄋᆞᄒᆞ 智ᄀᆞ 一味ㅣᄂᆞᄂᆡᄒᆞ 淨品ᄉᆞᆨ 不淨品ᄉᆞᆨᄂᆞᆫᄉᆞᆼᄒᆞᆫ 界ᄂᆡ 分別 不ᄉᆞᆼᄂᆞᄂᆡᄀᆞ ᄉᆞᆸᄆᆞᆫ(ᄂᆞᄂᆡᄆᆞ ᄉᆞᆸᄆᆞᆫ)[37] 故ᄂᆞ 無上淸淨ᄂᆡ 獲ᄂᆞᄅᆞᄀᆞ ㅣᄒᆞᄂᆞᆫᄉᆞᆫㅣ

世尊의 智는 一味이시하 淨品여 不淨品여 호리긔 界를 分別 안ᄃᆞᆯ ᄒᆞ싫 ᄃᆞ로 [故ᄂᆞ] 無上淸淨을 얻으시곤이앗다

---

37) 난상에 수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수정된 것을 ( )에 표시하였다.

<金光 13:10-11>

世尊ㅅ 無邊身ㄱ 一言字ㅏㄲ 說ᄆᆞ 不多ᄉᆞᄂᆞᄆᆞᄆᆞᄉᆞ 一切 弟子衆ㅅ十 法雨ㅣ 飽滿ᄒᆞᄫᅡ ᄒᆞᄉᆡᄉᆞᄆᆞᄉᆞᄆᆞ 故ᄂᆞᄉᆞᄂᆞᄆᆞᄆᆞᄒᆞ

世尊의 無邊身은 一言字마도 니를 안ᄃᆞᆯ ᄒᆞ시골여 一切 弟子衆의긔 法雨를 飽滿히앗더 ᄒᆞᆷ ᄃᆞ로 [故ᄂᆞ]ᄒᆞ시곰며

<金光 13:12-13>

衆生ㅅ 相ㅣ 思惟ᄉᆞ白ᄂᆞᄆᆞᄆᆞᄉᆞ 一切 種 皆ᄒᆞ 無ᄉᆞᄀᆞᄫᅡᄒᆞᄉᆡᄉᆞᄂᆞᄆᆞᄆᆞ ᄉᆞ 困苦ᄉᆞᄐᆞᄀᆞ 諸 衆生ㅅ十 世尊ᄫᅡᄂᆞᄒᆞ 普ᄫᅡ 救濟ᄉᆞᄂᆞᄆᆞᄆᆞᄒᆞ

衆生이 相ᄋᆞᆯ 思惟ᄒᆞᄉᆞᆷᄋᆞᆷ ᄃᆡ 一切 種 닷 無ᄒᆞᆫ이앗다 ᄒᆞ시곰여 困苦ᄒᆞᄂᆞᆫ 모ᄃᆞᆫ 衆生의긔 世尊이시사 너비 救濟ᄒᆞ시곰며

<金光 13:13-14>

苦ㅅ 樂ㅅ 常ㅅ 無常ㅅ 有我ㅅ 無我ㅅ 等ᄉᆞᄀᆞ 是 如 衆多ᄉᆞᄀᆞ 義ᄒᆞ十 世尊ㅅ 慧ㄱ 著ᄂᆞᄆᆞ 無ᄂᆞᄆᆞᄆᆞᄒᆞ

苦여 樂여 常여 無常여 有我여 無我여 다ᄒᆞᆫ 是 如 衆 多ᄒᆞᆫ 義아기 世尊의 慧는 著ᄒᆞᆷ 업시곰며

<金光 13:14-15>

世間ㄱ 一ᄒᆞ 異ᄉᆞᄀᆞ 不矣ᄫᅡᄀᆞ矣 譬入ㄱ 空谷ᄒᆞᄉᆡ 響 如支ᄉᆞᄒᆞ 不度ᄉᆞᄒᆞ 亦 不滅ᄉᆞᄒᆞᄉᆞᄐᆞᄂᆞᄀᆞ 入ㄴ 唯ㅅ 佛ᄫᅡᄂᆞᄒᆞ 能ᄒᆞ 了知ᄉᆞᄂᆞᄆᆞᄆᆞᄒᆞ

世間은 一(이)며 異ᄒᆞᆫ 안디인디 가ᄌᆞᆯ빌 ᄃᆞᆫ 空谷앗 響 다ᄒᆞ아 不度ᄒᆞ져 ᄯᅩ 不滅ᄒᆞ져 ᄒᆞ누온 ᄃᆞᆯ 오직 佛이시사 시르며 了知ᄒᆞ시곰며

<金光 13:16-17>

法界ㄱ 分別 無ᄒᆡᄆᆞㄱ 是故ᄆᆞ 異ᄉᆞᄀᆞ 乘 無ᄒᆡᄆᆞㄱᄂᆞ 衆生ㄴ 度ᄉᆞ 爲ㅅᄉᆞᄂᆞᄆᆞᄆᆞᄉᆞ 故ᄂᆞ 分別ᄉᆞᄒᆞ 三乘ㄴ 說ᄂᆞᄆᆞᄀᆞ ᄫᅡᄒᆞᄉᆡᄉᆞᄇᆞᄒᆞᄂᆞᄒᆡ

法界는 分別 없곤 是故로 異ᄒᆞᆫ 乘 없곤ᄋᆞᆯ 衆生ᄋᆞᆯ 度ᄒᆞ[爲]과 ᄒᆞ실ᄊᆡ ᄃᆞ로 [故ㅅ] 分別ᄒᆞ아 三乘을 니르시곤이앗다 ᄒᆞᄂᆞ기시다

大自在梵王ᄭᅴ 말

<金光 13:18>

是時十 大自在梵王ㄱ 於大會ㅌ中ㅇㅣ十 ㅅㅏㅎㄱㅗ

이 ᄢᅴ 大自在梵王은 [於]大會ㅅ 中아기 ᄒᆞ겨기신여

<金光 13:18-19>

座乙 從ㅌ 而ᄆᆞᆷ 起ㄴㅏ下 偏ㅇ 右肩乙 袒ᄀᆞ 右膝乙 地ㅇ十 著ㅅㅇ 合掌恭敬ㅅ白ㅇᄉᆞ 頂ᄆᆞᆷ 佛足乙 禮ㅅ白ㅁ 而ᄆᆞᆷ 白佛言

座를 좇 而ᄆᆞᆷ 니ᄅᆞ시하 기우리아 右肩을 메밧ᄋᆞ며 右膝을 ᄭᅮᆼ아기 著ᄒᆞ야 合掌恭敬ᄒᆞ술바곰 뎡바기로 佛足을 禮ᄒᆞ숣고 而ᄆᆞᆷ 白佛 言

<金光 13:20-21>

世尊ㅏ 希有難量ㅅᄒᆞㄴㅁㅣ 是金光明經ㅗ 微妙ㅅㄴㅂㅌㅋ[之]義ㅣ 究竟滿足ㅅㄴㄱ 皆 能ㅋ[38] 一切 佛法ㅗ 一切 佛ㅗ恩[39] 成就ㅅㄱ ㅅㄴㅁ ㄱㅅᄆᆞㅗ

世尊하 希有難量호리시고다 이 金光明經여 微妙ᄒᆞ신ᄂᆞᆺ 뜯이 究竟 滿足ᄒᆞ시며 닷 시르며 一切 佛法여 一切 佛恩여 成就ᄒᆞ며 ᄒᆞ시곤 ᄃᆞ로여

---

38) '能'이 부사로 쓰일 때에는 대개 '能ᄒᆞ, 能ᄉᆞ'나 혹은 연결어미가 결합된 형태인 '能ㄱ'로 나타나고 여기에서처럼 '能ㅋ'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ㅋ'은 앞의 '皆'의 토를 잘못 내려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원문의 欄上에 '能ㄱ'라고 쓰인 것은 이를 교정한 것이다.

39) 이 부분은 '一切佛恩ㅗ'가 되어야 함.

佛의 말과 偈頌

<金光 13:21-22>

佛ㄱ 言乃ㄴ尸 是 如ᄎᆞ 是 如ᄎᆞ 善男子ᄋᆞ 汝ㅋ 說ᄋᆞᄉᆞㄱ 所 如ᄎᆞ ᄂᆞᄒᆞ

佛은 言乃ㄴ尸 이 다ᄒᆞ다 이 다ᄒᆞ다 善男子아 너의 닐아ᄂᆞᆫ 바 다ᄒᆞ겨다

<金光 13:22-24>

善男子ᄋᆞ 若 得ᄋᆞᄉᆞ 是金光明經ㄹ 聽聞ᄂᆞ白ㅁᄒᆞㄱ 一切菩薩ㄱ 阿褥多羅三藐三菩提ᄋᆞᅀᆞㄱ 退 不ᄉᆞᄂᆞᄇᆞᄉᆞᄒᆞᆫᄃᆡ

善男子아 ᄒᆞ다가 시러곰 이 金光明經을 聽聞ᄒᆞᅀᆞᆷ고젼 一切 菩薩은 阿褥多羅三藐三菩提아긘 退 안ᄃᆞᆯ ᄒᆞᄂᆞᆷᄉᆞ다

<金光 13:24-14:1>

何以故 善男子ᄋᆞ 是ㄱ 退ㄹ 不 地[40] 菩薩 善根ㄹ 成熟ᄂᆞᄉᆞᅀᆞ 是ㄱ 第一印ㅣㄴᄀᆞᆫ 是金光明微妙經典ㄱ 衆經ᄋᆞ 七[之]王ㅣᄀᆞᆫ ᄂᆞㄴㄱ ㅅㅡᄂᆞᄒᆞ

何以故 善男子아 이ᄂᆞᆫ 退ㄹ 不 地 菩薩 善根을 成熟호리긔 이ᄂᆞᆫ 第一印이시며 이 金光明微妙經典은 衆經앗 王이며 ᄒᆞ신 ᄃᆞ로여

<金光 14:1>

故ㅈᆞ 得ᄋᆞᄉᆞ 聽聞ᄂᆞᄒᆞ 受持ᄂᆞᄒᆞ 讀ᄂᆞᄒᆞ 誦ᄂᆞᄒᆞ ᄂᆞᄂᆞᄒᆞㅣ[41]

故커 시러곰 聽聞ᄒᆞ져 受持ᄒᆞ져 讀ᄒᆞ져 誦ᄒᆞ져 ᄒᆞ겨리다

<金光 14:1-3>

---

40) 본문 '不退地'에서 '退'에 'ㄹ'(을)과 역독점(丶)이 달려 있다.
41) 『金光明經』 원문에는 이 부분이 'ᄂᆞᄉᆞᄒᆞㅣ'로 되어 있음.

何以故 善男子ᄋᆞ 若 一切衆ㅣ生[42] 善根乙 種一尸 未ㅣᄒᆞᆫ 善根乙 成熟 未ㅣᄒᆞᆫ 諸佛乙 親近 未ㅣᄒᆞᆫ ᄂᆞᆫᄀᆞᆫ 得ᄋᆞᄉᆞ 是金光明經乙 聽聞 不ᄒᆞᄂᆞᆫᄒᆞᆨᄀᆞᆫ 入ᄆᆞᆫᄂᆞᆫ

何以故 善男子아 ᄒᆞ다가 一切 衆生이 善根을 種ᄒᆞᆷ 아니져 善根을 成熟 아니져 諸佛을 親近 아니져 ᄒᆞ견은 시러곰 이 金光明經을 聽聞 안ᄃᆞᆨ ᄒᆞ겨린 ᄃᆞ로여

<金光 14:3-5>

善男子ᄋᆞ 是金光明經乙 聽聞ᄒᆞᆫᄒᆞᆫ 受持ᄒᆞᆫᄒᆞᆫ ᄂᆞᆫᄀᆞᆫ 入乙 以ᄋᆞᄀᆞᆫ 入ᄆᆞᆫ 故ᄂᆞ 是 善男子ᄂᆞᆫ 善女人ᄂᆞᆫ ᄂᆞᆫ尸ᄀᆞᆫ 一切罪障乙 悉 能ᄀᆞ 除滅ᄒᆞᆫᄆᆞ 極淸淨ᄂᆞᆫᄀᆞᆫ 入乙 得ᄒᆞᆫᄒᆞᆨᄀᆞ

善男子아 이 金光明經을 聽聞ᄒᆞ져 受持ᄒᆞ져 ᄒᆞᆫ 둘 ᄲᅳᆫ ᄃᆞ로 [故ᄂᆞ] 이 善男子여 善女人여 ᄒᆞᆷ은 一切 罪障을 다 시르며 除滅ᄒᆞ고 極淸淨ᄒᆞᆫ 둘 得ᄒᆞᄂᆞ리며

<金光 14:5-6>

常ㅣ 得ᄋᆞᄉᆞ 佛乙 見白ᄒᆞᆫ 世尊乙 離 不矣ᄒᆞᆫ ᄂᆞᆫᄋᆞ 常ㅣ 妙法乙 聞白ᄒᆞᆫ 常ㅣ 正法乙 聽白ᄒᆞᆫ ᄂᆞᆫᄒᆞᆨᄀᆞ

덛더디 시러곰 佛을 보ᅀᆞᆷ져 世尊을 離 안디져 ᄒᆞ아 덛더디 妙法을 듣ᅀᆞᆷ져 덛더디 正法을 듣ᅀᆞᆷ져 ᄒᆞᄂᆞ리며

<金光 14:6-7>

不退地ᄋᆞᄉᆞᆸ 生ᄂᆞᆫᄀᆞ 師子勝人乙 而ᄆᆞ 得ᄋᆞᄉᆞ 親近ᄂᆞᆫ白ᄋᆞ 相ᄂᆞ[43] 遠離

---

42) 이 부분은 마땅히 '一切衆生ㅣ'로 나타나야 하는데 구결토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43) 15세기 국어 한글자료에서는 '相'을 주로 '서르'로 번역하였고 '서ᄅᆞ'나 '서로'는 16세기 후반 자료에서부터 나타난다. 여기서의 '相ᄂᆞ'도 '서로' 정도

不多ㅅᄒᆞ干分

不退地아기 生ᄒᆞ시 師子 勝人을 [而ㅱ] 시러곰 親近ᄒᆞ숣아 相ㅅ(서로) 遠離 안ᄃᆞᆯ ᄒᆞᄂᆞ리며

<金光 14:7-12>

無盡無滅海印出妙功德陁羅尼ㅗ 無盡無滅衆生意行言語誦達陁羅尼ㅗ 無盡無滅日圓無垢相光陁羅尼ㅗ 無盡無滅滿月相光陁羅尼ㅗ 無盡無滅能伏一切惑事功德流陁羅尼ㅗ 無盡無滅破壞堅固金剛山陁羅尼ㅗ

無盡無滅海印出妙功德陁羅尼여 無盡無滅衆生意行言語誦達陁羅尼여 無盡無滅日圓無垢相光陁羅尼여 無盡無滅滿月相光陁羅尼여 無盡無滅能伏一切惑事功德流陁羅尼여 無盡無滅破壞堅固金剛山陁羅尼여

<金光 14:12-15>

無盡無滅說不可說義因緣藏陁羅尼ㅗ 無盡無滅眞實語言法則音聲誦達陁羅尼ㅗ 無盡無滅虛空無垢心行印陁羅尼ㅗ 無盡無滅無邊佛身能顯現陁羅尼ㅗ ㅅ尸ㄴ ㅅㅋ ㅅㅂㅎㅌㅣ

無盡無滅說不可說義因緣藏陁羅尼여 無盡無滅眞實語言法則音聲誦達陁羅尼여 無盡無滅虛空無垢心行印陁羅尼여 無盡無滅無邊佛身能顯現陁羅尼여 홇올 ᄒᆞ아 ᄒᆞ늠ㅅ다

<金光 14:15-17>

善男子ㅋ 是 如ᄎᆞㅅㄱ 諸陁羅尼 等ㅅㄱ乙 得ㅋㅎ 成就ㅅㅋㅏㄱ入ㅱ 故ㅅ 菩薩摩訶薩ㄱ [於]十方ㄷ 一切佛土ㅋ十 諸化佛身ㅱ 無上ㅅㄴㄱ 種

로 읽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만, 중세어 자료를 고려한다면 다소 주저되는 면도 없지 않다. '相에 대해서는 '마조'라는 번역도 가능했는데, 이 문장의 문맥상 '마주'란 해석은 어색하다. 구역인왕경에는 '相ㅎㅁㅗㅎ'로 유가사지론에서는 '相ㅎ'로 나타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種ㄴ 正法ㄹ 說ᄂᆞᄒᆞᄆᆞᄉᆞ

善男子아 이 다ᄒᆞᆫ 諸 陁羅尼 다ᄒᆞᆫᄋᆞᆯ 시러곰 成就ᄒᆞ아견 ᄃᆞ로 [故ㅅ] 菩薩摩訶薩ᄋᆞᆫ 十方ㅅ 一切 佛土아기 諸化佛身으로 無上ᄒᆞ신 갓갓 正法을 說ᄒᆞᄂᆞᆭ여

<金光 14:18-20>

於法如如ᄒᆞ十 動 不多ᄒᆞ 去 不多ᄒᆞ 來 不多ᄒᆞ ᄂᆞᆫ 善能ᄒᆞ 一切衆生ᄋᆞ 善根 成熟ᄉᆞᄅᆡᄒᆞᄆᆞᄉᆞ 亦 一切衆生ㅣ 成熟ᄉᆞᄅᆡᄂᆞᄒᆞ 可ㄴᄂᆞᆨ ㄹ[者] 見ᄆᆞ 不多ᄂᆞᆫ 種種ㄴ 諸法ㄹ 說ㄴᄆᆞᄉᆞ

[於]法如如아기 動 안ᄃᆞᆯ져 去 안ᄃᆞᆯ져 來 안ᄃᆞᆯ져 ᄒᆞ며 善能히 一切 衆生의 善根을 成熟히ᄂᆞᆭ여 ᄯᅩ 一切 衆生이 成熟히옴 짓ᄒᆞᆫ을 ᄇᆞᆷ 안ᄃᆞᆯ ᄒᆞ며 갓갓 諸法을 니ᄅᆞᄂᆞᆭ여

<金光 14:20-22>

於諸言辭ᄒᆞ十 動 不多ᄒᆞ 去 不多ᄒᆞ 住 不多ᄒᆞ 來 不多ᄒᆞ (ᄂᆞᄉᆞᄎᆞ ᄀᆞ)[44] 能ᄀᆞ 生滅ㄹ 現ㄴᄆᆞᄉᆞ 無生滅ㄹ 向ᄂᆞᆫ 諸行法ㄹ 說ㄴᄆᆞᄉᆞ 去來ᄂᆞᄆᆞ 所 無ㄴᄒᆞᄐᆞㄴㅣ 一切法ㄱ 異ᄂᆞᄀᆞ 無ᄂᆞᄀᆞ ㅅᄇᆞ[故]ᄉᆞ

諸言辭아기 動 안ᄃᆞᆯ져 去 안ᄃᆞᆯ져 住 안ᄃᆞᆯ져 來 안ᄃᆞᆯ져 ᄒᆞ겨리며 能ᄀᆞ 生滅을 낟ᄂᆞᆭ여 無生滅을 向ᄒᆞ며 諸行法을 니ᄅᆞᄂᆞᆯ여 去來홇 바 없ᄂᆞᆷᄉᆞ다 一切法은 異ᄒᆞᆫ 無ᄒᆞᆫ ᄃᆞ로여

<金光 14:22-24>

是 金光明經ㄹ 說ᄆᆞ 已ᄒᆞ ᄂᆞᆫ白ㅅㄴᄀᆞ 三万億菩薩摩訶薩ㄱ 無生法忍ㄹ 得ㄴㅅㄴᄀᆞ 量 無ㄱ 諸菩薩ㄱ 菩提心ㄹ 退 不多ᄂᆞㄴㅅㄴᄀᆞ 量 無ᄀᆞ 邊 無ᄂᆞᆫ 比丘ㄱ 法眼淨ㄹ 得ㄴᄆᆞᄀᆞ 量 無ㄱ 衆生ㄱ 菩提心ㄹ 發ᄂᆞㄴㅣ

---

44) 수정된 것이다.

이 金光明經을 니롤 이믜ᅀᅡ ᄒᆞ숣기신 三万億菩薩摩訶薩은 無生法忍을 얻ᄂᆞ기시며 量(그지) 업슨 諸菩薩은 菩諸心을 退 안돌 ᄒᆞᄂᆞ기시며 量(그지) 업스며 邊(ᄀᆞᆺ) 無ᄒᆞᆫ 比丘는 法眼淨을 얻ᄂᆞᆼ며 量 업슨 衆生은 菩提心을 發ᄒᆞᄂᆞ다

<金光 14:24-15:1>

是時ㅓ 世尊ㄱ 而ᄆᆞ 偈乙 說ᄉᆞ 言ㅣㄴㄷ尸 生死流乙 逆ㄷᄉᆞᄀᆞᆫ(去叱ㄷ干)[45] 道ㄱ 甚深ᄋᆞᄒᆞ 微ᄋᆞᄒᆞ ᄋᆞㄷ下 難ᄒᆞ 見白ノ干ㅁ八ㄷㅣ

이 ᄢᅴ긔 世尊은 而ᄆᆞ 偈을 닐아 言ㅣㄴㄷ尸 生死流을 거스르시릿 道은 甚深ᄒᆞ져 微ᄒᆞ져 ᄒᆞ시하 어려ᄇᆡ라 보ᄉᆞᆯ보리고기시다

<金光 15:1-2>

貪欲ᄆᆞ 覆ノㄱ 衆生ㄱ 愚ᄋᆞᄀᆞ 冥暗ᄋᆞナㄱ入ᄆᆞ 見尸 不八 ノ干ナㄱㅣㅣ ᄋᆞヒ八ㄷㅣ

貪欲ᄋᆞ로 覆ᄒᆞᆫ 衆生은 愚ᄒᆞ며 冥暗ᄒᆞ견 ᄃᆞ로 ᄇᆞᆰ 안ᄃᆞᆨ 호리견이다 ᄒᆞᄂᆞ기시다

大會之衆의 말

<金光 15:3-4>

是時ㅓ 大會七 [之]衆ㄱ 座乙 從七 而ᄆᆞ 起ㄷ下 右肩 偏袒 右膝 着地 合掌恭敬ᄋᆞ白ᄉᆞ ホ 頂ᄆᆞ 佛足乙 禮白ㅁ 而ᄆᆞ 白佛 言白ㄷ尸

이 ᄢᅴ긔 大會ㅅ 衆은 座ᄋᆞᆯ 좇 而ᄆᆞ 니ᄅᆞ시하 右肩 偏袒 右膝 着地 合掌 恭敬ᄒᆞ숣바곰 뎡바기로 佛足을 禮(ᄒᆞ)숣고 而ᄆᆞ 白佛 니르숣실

45) '逆ㄷᄉᆞᄀᆞᆫ'과 관련하여 난상에 '去叱ㄷ干'가 적혀 있다.

<金光 15:4-5>

若 有處處ᄀᆞ十 此 金光明經乙 講宣ᄉᆞᆸ白ᄆᆞᄂᆞᆨᄀᆞᆨ矣ㅗ

ᄒᆞ다갓 곧곧아기 이 金光明經을 講宣히ᅀᆞᆸ고젼 디여

<金光 15:5-7>

是 會ㅌ 大衆ᄀᆞ 皆 悉 彼ㅁ 往ᄀᆞ 爲ノ 聽衆ㅣ尸入乙 [作]ㅅ口ㅌノ矛ᄉᆞ 是 說法師乙火 種種ᄴ 利益ノ 安樂無障ㅅᄒᆞ 身心泰然ㅅᄒᆞ ᄉᆞㅣᄉᆞ

이 會ㅅ 大衆은 닷(모다) 다 더디 가아 삼오 聽衆일 ᄃᆞᆯ ᄒᆞ곳 호리며 이 說法師을ᄇᆞᆺ 種種ᄋᆞ로 利益ノ 安樂無障ᄒᆞ져 身心泰然ᄒᆞ져 히며

<金光 15:7>

我ᄒᆞ 等ㅅᄀᆞᄂᆞ 皆 當ㅅ 盡ㅂㅌ 心ᄴ 供養ㅅ白ᄉᆞ 諸聽衆乙ㅠ刀 安隱快樂ㅅ令ㅣ呂ㅌノ矛ᄉᆞ

우리 다ᄒᆞᆫ은 닷 반ᄃᆞᆨ 다ᄋᆞᄂᆞᆺ ᄆᆞᄉᆞᆷᄋᆞ로 供養ᄒᆞᄉᆞᆯᄇᆞ며 諸聽衆으라도 安隱快樂히렷 호리며

<金光 15:8-9>

是 所ㅣᄀᆞ 國土ᄀᆞ十ᄀᆞ 諸怨賊ㅗ 恐怖ノᄉᆞㅌ[之]難ㅗ ノ尸乙 無ㅣㅅᄒᆞ 飢饉ㅌ 畏ノ尸入乙 無ㅣㅅᄒᆞ 非人ㅌ 畏ノ尸入乙 無ㅣㅅᄒᆞ 人民興盛ㅅᄒᆞㅅㅣ呂ㅌノ矛ᄉᆞ

이 고딘? 國土아긴 諸 怨賊여 恐怖호릿 難여 홈올 업시 ᄒᆞ져 飢饉ㅅ 畏홈 ᄃᆞᆯ 업시 ᄒᆞ져 非人ㅅ 畏홈 ᄃᆞᆯ 업시 ᄒᆞ져 人民興盛ᄒᆞ져 히렷 호리며

<金光 15:9-10>

是 說法處乙火 一切諸天ㅗ 人ㅗ 非人ㅗ 等ㅅᄀᆞㅣㅗ 及 諸衆生ㅗノ尸乙 得ᄀᆞᄉᆞ 上乙 從ㅌ 而ᄴ 過ㅅᄀᆞ 說法ㅌ之處乙 汗漫ㅅㅣ尸 不多ㅅ呂

七ノ亇七ㅣ

이 說法處을ᄇᆞᆺ 一切 諸天여 人여 非人여 다ᄒᆞᆫ이여 及 諸衆生여 홇올 시러곰 우흘 좇 (而ᄆᆞᆷ) 過ᄒᆞ아 說法ㅅ[之]處를 汗漫힗 안돌 ᄒᆞ렷 홄다

<金光 15:11>

何以故ㅡㄴ白ノ千尸入ㄱ 說法七[之]處ㅣ 卽ノ 是ㄱ 其塔ㅣニロㄱ入ᄆᆞㅡ

何以故여 ᄒᆞ술보릴 ᄃᆞᆫ 說法ㅅ 處이 고도 이ᄂᆞᆫ 其塔이시곤 ᄃᆞ로여

<金光 15:11-13>

若 善男子ㅡ 善女人ㅡノ尸ㄱ 當 諸香ㅡ 花繒ㅡ 綵ㅡ 幡ㅡ 蓋ㅡノ尸乙 以ㅋ 是 說法處乙 供養ノ亇 應七ㄴロㅣ

ᄒᆞ다가 善男子여 善女人여 홇온 반ᄃᆞ기 諸香여 花繒여 綵여 幡여 蓋여 홇올 뼈 이 說法處를 供養홈 應七ᄒᆞ고다

<金光 15:13-14>

我千 等ㄴㄱㄱ 爲ノ 救護ㄴ亏 利益ㄴ亏 ノ尸入乙 作ㄴ氵 一切障礙乙 消除ㅅㅣ分 其 須七ㅓ[46] ノ尸 所乙 隨ノ 意乙 如ㅅ 供給ㄴ氵ホ 悉 具足ㄴ令ㅣ呂七ノ亇七ㅣ

우리 다ᄒᆞᆫ은 삼오 救護ᄒᆞ져 利益ᄒᆞ져 홇 ᄃᆞᆯ 作ᄒᆞ아 一切 障礙을 消除히며 其 須七ㅓ 홇 바ᄅᆞᆯ 조초 ᄲᅳᆯ을 如ㅅ 供給ᄒᆞ아곰 다 具足히렷 홄다

---

46) '須七ㅓ'의 '須'는 '바라다, 구하다, 원하다'는 의미의 동사로 쓰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15세기의 언해문에서도 '須'가 동사로 쓰일 때는 "須求"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須七ㅓ'에 통합되어 있는 '-七ㅓ'(-ㅅ더)는 감탄이나 당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통합형 어미구조체이다.

佛의 말

<金光 15:14-16>

佛ㄱ 言ㅢㄴㄷㅍ 善男子ㅈ 是 如ᄎᆞㅅㅣ 汝等ㅅㄱㄱ 當ㅎ 此 如ᄎᆞㅅㄴ ㄱ 經典ㄹ 精勤修行ㅅㅅㅜ 應ㅌㅅㄱㅗ 則ㅅ 法ㄹ 久ㅈ [於]世ㅋㅜ 住ᄉ ㅢ白ㅈㄱㄱ ㅅㅎㅏㄱㅢㅣ ㅅㅌㅎㄴㅣ

佛은 言ㅢㄴㄷㅍ 善男子아 이 다ᄒᆞ다 너희 다ᄒᆞᆫ은 반ᄃᆞ기 이 다ᄒᆞ신 經典을 精勤修行ᄒᆞ놈 應ㅌㅎ여 則ㅅ(고도?) 法을 오라 [於]누리의긔 住히 숣안뎌 호리견이다 ᄒᆞᄂᆞ기시다

金光明經卷第三

參考 文獻

口訣學會 編(1997),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태학사.

金完鎭(1980a), 「指定文字說의 定立을 위하여」, 『南廣祐博士華甲紀念論叢』, 일조각.

金完鎭(1980b), 『鄕歌解讀法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金完鎭(1980), 「指定文字說의 定立을 위하여」, 『南廣祐博士華甲紀念論叢』, 일조각.

남권희(1994a), 「高麗本 大方廣佛華嚴經疏 卷35의 書誌學的 考察」, 1994년 여름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구두 발표.

남권희(1994b), 「高麗 釋讀口訣 資料 金光明經 卷三의 紹介」, 1994년 11월 구결학회 월례 강독회.

남권희(1996), 「高麗 口訣資料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의 書誌的 分析」, 『口訣硏究』 제1집.

남권희(1997), 「차자 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

南豊鉉(1986), 「舊譯仁王經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新硏究(若泉金敏洙敎授華甲紀念)』, 塔出版社.

南豊鉉(1993a), 「高麗本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대하여」, 『東方學志』 81.

南豊鉉(1993b), 「借字表記의 詩經釋義에 대하여」, 『퇴계학연구』 제7집, 단국대학교.

南豊鉉(1995), 「朴東燮本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集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南豊鉉(1996a),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ㅱ/ㄹ'에 대한 考察」, 『口訣硏究』 제1집, 태학사.

南豊鉉(1996b), 「『金光明經』 卷三 釋讀口訣에 나타난 ㅱ의 用法에 대하여」, 『李基文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南豊鉉(1996c),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ㄴ'에 대한 考察」, 『國語學』 28.

南豊鉉(1997),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ㅅ와 ㅿ의 原字에 대하여」, 『淸凡陳泰夏敎授啓七頌壽紀念 語文學論叢』, 태학사.

남풍현 · 김두찬 · 윤승준(1995), 「借字表記의 詩經釋義 註解(1)」, 『퇴계학연구』 제9집, 단국대학교.

박진호(1997), 「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

백두현(1997a), 「高麗時代 口訣의 文字體系와 通時的 變遷」,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태학사.

백두현(1997b), 「高麗本 金光明經에 나타난 特異 형태에 대하여」, 『국어학 연구의 새지평』, 태학사.

安秉禧(1976), 「口訣과 漢文訓讀에 대하여」, 『震檀學報』 41.

安秉禧(1984), 「韓國語 借字表記法의 形成과 特徵」, 『제3회국제학술회의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安秉禧(1987), 「均如의 方言本 著述에 대하여」, 『國語學』 16.

이건식(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助詞에 대한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건식(1997), 「釋讀口訣의 省略表記와 難解吐의 解讀」, 『國語史硏究』, 태학사.

李東林(1982), 「舊譯仁王經의 口訣解讀을 위하여」, 『論文集』 第21輯, 동국대학교.

李丞宰(1991), 「鄕歌의 '遣只賜'와 舊譯仁王經 口訣의 'ㅁㅏㄴ'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李丞宰(1992),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李丞宰(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國語學』 23, 국어학회.
李丞宰(1995a), 「動名詞 語尾의 歷史的 變化」,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李丞宰(1995b), 「華嚴經 口訣의 狀態動詞 語幹」, 『韓日語學論叢』, 국학자료원.
李丞宰(1996),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主體敬語法 先語末語尾 '-ナ(겨)-'」, 『이기문선생 정년퇴임논총』, 신구문화사.
李丞宰(1998),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敬語法 體系」, 『國語 語彙의 基盤과 歷史』, 태학사.
이장희(1995), 「華嚴經 口訣字 'ㄕ'의 기능과 독음」, 『어문학』 56, 한국어문학회.
李賢熙(1995a), 「'-아져'와 '-良結'」,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李賢熙(1995b), 「'-ㅿ아'와 '-沙'」, 『韓日語學論叢』, 국학자료원.
鄭在永(1995a), 「前期中世國語의 疑問法」, 『國語學』 25집.
鄭在永(1995b), 「'ㅅ'형 부사와 'ㄷ'형 부사」,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鄭在永(1996a), 「終結語尾 '-立'에 대하여」, 『震檀學報』 제81호.
鄭在永(1996b), 『依存名詞 '-ᄃᆞ-'의 文法化』, 국어학총서 23, 태학사.
鄭在永(1997a), 「高麗時代 釋讀口訣」, 『문헌과해석』 통권1호.
鄭在永(1997b), 「'-오-'의 변화」, 『國語史硏究』, 태학사.
鄭在永(1997c), 「借字表記 연구의 흐름과 방향」,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
鄭在永(1998), 「高麗時代 {-이} 부사와 부사형」, 『國語 語彙의 基盤과 歷史』, 태학사.